

2019년도 일제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 학술연구용역 보고서

# 일본지역 탄광·광산 조선인 강제동원 실태

- 미쓰비시(三菱)광업(주) 사도(佐渡)광산을 중심으로 -

책임연구원 정혜경(ARGO인문사회연구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2019년도 일제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 학술연구용역 보고서

# 일본지역 탄광·광산 조선인 강제동원 실태

- 미쓰비시(三菱)광업(주) 사도(佐渡)광산을 중심으로 -

책임연구원 정혜경(ARGO인문사회연구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 발간사

## 평화와 인권이 회복되는 앞날이 되길 희망하며....

올해 2019년은 3·1운동이 일어나고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 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긴 시간이 지났음에도 일본국으로부터는 진정한 사과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어느 해 보다도 강제동원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았던 해이기도 했습니다.

일제강점기 고국을 떠나 강제로 동원된 조상들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고 더 알아보려는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부분도 있지만, 조선인 강제동원의 실상을 왜곡하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를 무시하거나 지나치지 않고 피해와 강제성을 밝힐 수 있는 자료와 연구 성과로 계속 밝히려 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이름도 남기지 못하고 희생되신 분들에 대한 우리들의 할 일이라 생각하며 그 일환으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서는 2017년부터 일제강제동원 피해진상조사 학술연구 용역사업을 계속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총 다섯 건의 주제로 진상조사 학술연구사업을 실시하였는데 그 중 ‘일본지역 탄광·광산 조선인 강제동원 실태-미쓰비시(三菱)광업(주) 사도(佐渡)광산을 중심으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도광산은 전시기간 중 최대 1,200여 명의 조선인을 강제동원 했지만 그 실태는 거의 밝혀지지 않았습니니다. 그러나 이번 연구단의 노력으로 사도광산 관련 조선인 명부 2종(조선인연초배급명부, 지정연령자연명부) 덕분에 강제동원과 관련한 사실의 무계를 인식할 수 있는 근거와 기회가 되었습니다. 일본은 2021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사도금은산-금을 중심으로 하는 사도광산의 유산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우리의 적절한 대응자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2019년에 발간되는 5종 보고서 내용의 공통점 중 하나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은 남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5종의 보고서가 보여주듯이 피해자 실태와 작업량 분포현황 등은 강제동원의 피해가 한반도 전체임을 보여줍니다.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이야말로 앞으로 남과 북이 공동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 나가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보고서는 정혜경 박사와 연구 참여자들의 성과입니다. 강제동원 연구 성과물이 외교적·교육적으로 활용되어 과거에만 머무는 역사가 아니라, 평화와 인권이 회복되는 앞날의 역사로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2019년 12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

김 용 덕

# 목차

I. 조사 개요 및 방법	7
1. 조사의 배경	7
2. 선행연구 및 자료	9
3. 조사 방향	10
4. 보고서 구성	11
5. 연구단 구성	13
II. 일본의 탄광·광산 기초 현황	15
1. 일본의 탄광·광산 실태 - 지역별·동원기업별	15
1) 지역별·탄전 및 광구별 현황	15
2) 동원기업별 현황	27
2. 일본 광산 노동의 역사와 조선인 광부의 전환배치 실태	33
1) 일본 광산 노동의 역사	33
2) 1943년 금광업조정령에 의한 조선인 광부의 전환배치 실태	38
III. 미쓰비시광업(주) 사도광산의 조선인 강제동원	55
1. 미쓰비시(三菱) - 전쟁으로 성장한 일본 최대 재벌	55
2. 미쓰비시광업(주)의 탄광·광산 운영 현황	58
3. 명부를 통해 본 사도(佐渡)광산 조선인 강제동원	68
1) 사도광산 조선인 광부 명부의 미시적 분석 - 명부의 구성과 내용	68
2) 사도광산 조선인 공탁금 관련 명부	74
3) 위원회 피해조사 명부	76
4. 사도광산에 동원된 조선인 광부의 경험 세계	79

5. 아시아태평양전쟁기 사도광산 조선인 동원과정과 노동실태	
- 광산에서 지하공사장까지 .....	82
1) 니가타현의 조선인 노무동원 작업장 현황 .....	82
2) 에도 시대의 사도광산 .....	85
3) 일본의 강제병합 후 사도섬의 재일조선인 .....	92
4) 사도광산의 조선인 강제동원 실태 - 광산에서 군공사장까지 .....	94
 IV. 조사 성과 및 활용 방안 .....	115
1. 조사의 성과 및 의의 .....	115
2. 활용 방안 .....	119
 참고문헌 .....	121
○ 자료집 및 연구서, 구술집 .....	121
○ 연구 논문 .....	123
○ 관련 웹사이트 .....	124
 부록 .....	125



# I. 조사 개요 및 방법

## 1. 조사의 배경

아시안태평양전쟁 기간 중 일본에 강제 동원된 조선인의 노무동원 작업장은 4,294개소이고 탄광·광산은 886개소이다. 지역적으로는 오키나와에서 홋카이도까지 일본 전역에 걸쳐 있다. 886개 탄광·광산은 산출물에 따라 크게 석탄, 광산, 석유, 불상(석탄으로 추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 탄광·광산에 동원된 조선인 피해자 규모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가 피해 판정한 인원은 1만 명이 넘는다.

탄광·광산의 현황에 대해서는 일본 내 시민활동가의 조사와 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통해 대략적인 내용이 알려졌고, 특정 작업장(아소광업 소속 탄광산, 홋카이도 가야누마 탄광)의 조선인 강제동원 실태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진상조사보고서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학술용역보고서를 통해 밝혀졌다. 주요 성과는 竹內康人, 『戰時朝鮮人強制勞働調査資料集 - 連行先一覽 全國地圖·死亡者名簿』(2007)와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2016)이다. 진상조사보고서는 아소광업 관련 진상조사보고서(2011)와 홋카이도 가야누마탄광 진상조사보고서(2010),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비바이 탄광 학술용역보고서(2018) 등이다.

그러나 다케우치 야스토와 위원회의 현황은 목록에 불과하고, 위원회 진상조사 결과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학술연구용역결과보고는 886개 탄광·광산 가운데 극히 일부이며, 모든 학술연구용역결과보고서가 공개 자료가 아니다. 그러므로 조선인이 동원되었던 일본지역 탄광·광산의 현황을 구체화하고, 특정 작업장에 대한 조선인 강제동원 실태조사를 추가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일본지역 탄광·광산 기초현황 파악 작업은 향후 일본지역 탄광·광산 연구에 기초 작업으로써 의미가 있다. 작업장 이름을 비롯해 동원기업 및 자본계열(현존기업 여부 포함), 주소, 명부 등재 여부, 주요 생산품 등 탄광·광산과 관련한 풍부한 정보를 폭넓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조선인을 동원한 일본지역 탄광·광산의 기업은 총 325개이고, 이 가운데 다수를 차지하는 기업은 니혼(日本)광업(주) 52개소, 미쓰비시(三菱)광업(주) 46개소, 스미토모(住友)광업(주) 37개소, 닛테츠(日鐵)광업(주) 36개소, 미쓰이(三井)광산(주) 33개소, 후루카와(古河)광업(주) 18개소 등이다. 작업장의 규모로는 니혼광업(주)이 가장 많은 수를 나타내고 있으나 일본을 포함한 제국 일본 영역 전체의 탄광·광산의 규모로 보면, 미쓰비시광업(주)의 비중이 매우 높다. 미쓰비시는 한반도 88개소, 남사할린 4개소, 태평양 지역 2개소 등 총 94개소의 탄광과 광산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미쓰비시광업(주)이 일본 전시체제가 탄광·광산 조선인 동원에 미친 영향력을 통해 조선인 탄광·광산 동원 피해의 일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미쓰비시광업(주)이 운영한 탄광·광산 가운데 니가타(新潟)현 사도(佐渡)시 소재 미쓰비시(三菱)광업(주) 사도(佐渡)광산은 가장 역사가 오래되고 산출량이 높은 광산이었으며, 1989년 3월 31일까지 채굴했던 곳이었다. 사도광산은 전시기간 중 최대 1,200여명의 조선인을 동원했지만, 상세한 강제동원 실태는 알려지지 않았다. 사도섬에 소재한 금은광인 사도광산은 1601년 처음 발견되어 5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광산으로써 1896년 미쓰비시합자회사가 인수한 후 1989년 채굴을 중단할 때까지 103년간 미쓰비시그룹 소속 광산이었다. 사도광산에 동원된 조선인 가운데 위원회가 판정한 피해자는 148명이다. 강제동원의 현장이지만 일본 사회는 2021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사도금은산 - 금을 중심으로 하는 사도광산의 유산군)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간 사도광산 조선인 강제동원에 대해 일본 정부와 기업이 작성한 명부는 발굴하지 못했으며, 관련 연구도 니가타현에 비중을 둔 연구가 대부분이고 사도광산을 주제로 한 연구는 논문 1편에 불과하다. 특히 2008년 이후 니가타 현지에서 출간한 참고문헌의 대부분은 세계유산 등재 추진 목적의 출판물이어서 홍보물의 성격이 짙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도광산의 조선인 강제동원 실태를 규명하는 것은 2015년 일본 산업근대화유산 등재 과정이 남긴 교훈을 되새기고, 이를 통해 세계유산 등재 지역의 역사성을 명확히 해 세계인류보존의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하는 의미를 가진 작업이라 생각한다.

탄광과 광산은 일반적으로 탄광산업이라는 하나의 범주로 분류하지만 작업 과정과 노동실태는 차이가 있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조선인 강제동원 실태 규명에서 탄광에 주목했으나 광산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다수의 노무자를 동원한 작업현장을 탄광으로 파악했기 때문이다. 물론 탄광은 조선인 강제동원 피해 규모가 가장 많은 현장이다. 그러나 광산은 탄광보다 많은 작업현장을 가지고 있었다. 일본지역 886개 탄광·광산 가운데 광산은 522개로 59%에 달했고, 한반도에서도 5,506개 탄광·광산의 97.3%에 달하는 5,356개소가 광산이다. 노무작업장을 기준으로 본다면 광산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또한 광부들은 발파와 채굴 기술로 인해 일제 말기 본토 결전에 임박해 군사시설물 구축공사장에 전환배치 되기도 했다.<sup>1)</sup>

1) 광산노동자의 군사시설물 공사장 전환배치에 대한 연구는 한반도 지역 사례연구가 있다. 관련 연구는 정혜경, 「일제말기 제주도 군사시설공사에 전환배치된 조선인 광부의 경험 세계 - 한반도 내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인식과 배경을 중심으로」(『한일민족문제연구』35, 2018)이다.

그러므로 본 보고서에서는 그간 학계가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 광산에 주목해 광산의 작업 과정을 토대로 노동실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현재까지 조선인을 동원한 일본지역 탄광·광산의 구체적 현황도 발표된 바 없으므로 886개 탄광·광산의 기본 현황도 소개하고자 한다. 다만 이 현황은 다양한 문헌자료 및 현장 조사의 결과를 반영하고, 관련 자료에 대한 교차 분석을 했지만 확정 자료로 보기는 어렵다. 이후 한국 정부와 학계의 적극적 관심과 연구를 통해 보완되어야 할 자료이지만 탄광·광산의 현황을 통해 일본지역 조선인 강제동원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 2. 선행연구 및 자료

사도광산 조선인 강제동원 관련 자료는 문헌기록과 비문헌기록(구술기록, 사진 등), 현지 조사 자료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문헌기록을 살펴보면, 공안당국문서와 중앙협화회 자료(조선인노무자모집상황, 1941년), 신문기사, 회고록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중앙협화회 자료는 사도광산 동원 조선인 광부의 규모를 파악하는데 참고자료이고, 구체 실태에 대해서는 공안당국문서와 신문기사가 유용하다.

조선인이 동원된 일본지역 탄광·광산 기초 현황을 추출하는데 활용한 자료는 기존 연구와 조사 보고서, 광산명감 등 관련 자료와 관련 명부(조선인노무자에 관한 조사결과, 소위 조선인피징용자에 관한 건, 조선인노무자공탁금자료, 조선인의 재일자산조사보고서철, 후생연금명부, 경제협력한국·105·조선인에 대한 임금비불채무조) 등이다. 또한 니가타현과 니가타시, 사도시가 발간한 지역사와 미쓰비시광업(주)이 발간한 사사(社史)가 있다. 미쓰비시광업사는 사도광산을 포함해 조선인을 동원한 미쓰비시광업(주) 소속 45개 탄광·광산의 현황과 광산 운영 실태 파악에 중요한 자료이다.

경험자의 구술기록도 보고서 작성에 활용 자료이다. 현재 사도광산의 생존자들이 남긴 구술 자료 1편(朝鮮人強制連行真相調査團, 『朝鮮人強制連行の記録-關東編』, 柏書房, 2002)이 출판물에 수록되어 있다. 생존자를 발굴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생존자의 구술은 출판물로, 유족은 현지조사과정에서 생산한 구술기록을 활용해야 한다. 그러나 출간된 생존자의 구술은 매우 소략하고, 유족의 경험과 기억은 제한적이어서 구술기록의 분석을 통한 피해실태 파악에는 한계가 있다.

사도광산의 조선인 강제동원에 대해서는 히로세(広瀬貞三)가 발표한 연구 논문이 1편 있다. 그 외 사도광산을 포함한 니가타현의 조선인 강제동원을 분석한 논문으로 나가사와(長澤秀)와 사토(佐藤泰治)의 논문을 들 수 있다. 히로세의 논문은 『특고월보』등 당국의 공안자료와 신문기사를 폭넓게 분석해 보고서 작성에 큰 도움이 되었다. 관련 논문 목록은 다음과 같다.

佐藤泰治, 「新潟縣における朝鮮人労働者の處遇」, 『魚沼文化』27, 1978  
 佐藤泰治, 「新潟県における朝鮮人労働者 1」, 『新潟県部落史研究』3, 1980  
 佐藤泰治, 「新潟県における朝鮮人労働者 2」, 『新潟県部落史研究』4, 1981  
 佐藤泰治, 「新潟縣における朝鮮人ノート」, 『新潟近代史研究』3, 1982  
 長澤秀, 「新潟縣と朝鮮人強制連行」, 『在日朝鮮人史研究』19, 1989  
 広瀬貞三, 「佐渡鉱山と朝鮮人労働者(1939~1945)」, 『新潟国際情報大学情報文化学部紀要』  
 [人文科学編]3, 2000

### 3. 조사 방향

보고서 작성을 위한 조사방법은 크게 자료 분석과 현지조사이다. 자료 분석은 문헌기록과 비문헌기록이 있는데, 문헌기록은 관련 명부와 신문기사, 연구 성과(사사, 연구서, 연구논문 등)가, 비문헌기록에는 구술기록과 사진, 물건(저금통장과 수첩 등)이 있다.

문헌기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동원한 피해자의 명부이다. 사도광산과 관련해서 그간 학계는 일본 정부와 기업이 생산한 명부는 발굴하지 못했다. 그러나 연구단이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도광산 관련 조선인 명부 2종을 확보했다. 하나는 사도시 사도박물관이 1980년 초에 수집한 총 4개소의 료(寮, 노무자 숙소)와 1개소의 사택에 거주한 조선인 명단(일부, 이하 조선인 연초 배급명부)이고, 다른 하나는 조선총독부가 작성한 ‘지정연령자연명부’이다. 모두 명단 전체를 공개한 적도, 기존 연구에 활용한 적도 없으므로 본 보고서를 통해 최초로 공개하는 셈이다.

명부 2종은 니가타현 조선인 강제동원 연구자인 사토 타이치(佐藤泰治)와 일제강제동원&평화연구회 허광무 연구위원, 니가타정보대학 요시자와 후미토시(吉宅文壽)교수의 도움으로 입수했다. 보고서 본문에는 명단을 확인할 수 있는 조선인 연초 배급명부를 분석하고, 2종의 명부는 모두 부록에 수록했다. 기록학적 미시적 분석을 통해 명부자료의 구성을 파악하고, 이 가운데 조선인 연초 배급명부를 관련 자료(일정시피징용징병자명부, 왜정시피징용자명부, 위원회 피해조사명부 등)와 교차 분석도 시도했다. 명부 분석은 관련 명부의 교차 검증 방식을 적용했다.<sup>2)</sup>

그 외 일본 국립공문서관 쓰쿠바(筑波)분관에 「조선인의 재일자산조사보고철」과 「경제협력 한국105-조선인에 대한 임금미불채무조」라는 제목의 자료는 있으나 인원수(1,140명)와 공탁금액(231,059.59엔)에 불과해 인적 정보는 전혀 확인할 수 없다. 내용은 본문에 수록했다.

2) 명부분석방법은 정혜경, 「국내 소장 전시체제기 조선인 인적동원 관련 명부자료의 활용방안」(『일본제국과 조선인 노무자 공출』, 도서출판 선인, 2011)에 근거했다.



위원회가 피해조사를 한 결과도 ‘위원회 피해조사 명부’라는 이름으로 분석했다. 피해실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는 위원회 보도자료 작성 과정에서 확보한 대상자 148명을 대상으로, 일정 시피징용징병자명부(본적지 수록)를 근거로 추정지역을 확인했다. 이 정보를 토대로 탐방(이장, 노인회장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와 유족을 파악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이 같은 생존자·유족 찾기를 통해 안타깝게도 생존자는 찾지 못했으나 몇몇 유족을 찾아 중요한 자료를 확인하고 진폐증 등 피해 상황도 들을 수 있었다. 위원회가 ‘사도광산’으로 피해자로 결정했으나 해당 유족이 홋카이도 등 다른 지역으로 기억하는 경우도 있었다. 주요 피해실태에 대한 분석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제공받은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소장 자료에 근거해 실시했다.

또한 1943년 금광업조정령에 의해 전환배치 된 조선인 관련 명부 12종도 분석했다. 1943년 금광업조정령에 의해 전환배치 된 조선인 관련 명부 12종 분석의 근거자료는 국가기록원 소장 자료이지만 검증을 통해 국가기록원이 DB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를 수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국가기록원이 정리한 48만 명, 강제동원자 명부는 일부 오류(작업장 이름, 인명, 연령 기재, 보상 여부 항목 등)가 있다. 현재 오류에 대한 전수 조사나 전면적 수정 작업은 불가능하므로 이같이 주제별 검증작업을 통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동일인이지만 다른 인적 정보가 수록된 경우에는 교차 분석을 통해 검증하고 내용을 부록에 수록했다.

연구 성과는 사도광산에 직접 관련되는 문헌 외에 니가타지역 강제동원과 관련한 문헌을 모두 포함해서 분석했다. 특히 니가타 현지 신문기사를 추출해 분석했다. 또한 탄광·광산 관련한 자료 집과 사사를 분석해 일본지역 탄광·광산 현황 파악에 활용했다.

국의 현지조사는 니가타현 사도광산(연구팀 자체 조사)과 홋카이도 고노마이(鴻之舞)광업소 등 두 군데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현지조사를 통해 관련 문헌자료와 현장 사진을 확보해 분석했다. 광산의 작업 현장과 조선인 숙소 등 강제동원 관련 유적을 확인하고 문헌자료를 통해 교차 검증한 후 확정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또한 사도광산 경험자(동반 가족)들이 이주한 가와사키시의 경험자들이 소장한 귀중한 당시 사진도 확보했다.

국내 현지조사과정을 통해 생산한 구술기록도 상세목록을 부록에 수록하고, 확보한 자료(사진, 음성, 영상 파일)와 상세목록, 그리고 자료 활용에 필요한 자료공개이용허가서와 현지조사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 4. 보고서 구성

본 연구는 총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조사 개요 및 방법은 보고서 구성의 방향을 제시하는 장으로써 서론에 해당한다. 보고서

의 본문은 제2장 일본의 탄광·광산 기초현황, 제3장 사도광산의 조선인 동원 과정과 피해실태 등 크게 두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제2장은 조선인이 동원된 일본지역 탄광·광산 기초현황을 수록했다. 제2장의 제1절에서는 조선인이 강제 동원된 886개 일본의 탄광·광산 전체 현황을 제시하고 지역별·탄전 및 광구별·동원기업별로 분석했다. 제2절에서는 일본 광산의 역사와 1943년 금광업조정령에 의한 조선인 노무자 전환배치 실태를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522개 광산을 대상으로 작업장 이름, 동원기업 및 자본계열, 주소, 명부 등재 여부, 주요 생상품 등 기초현황을 폭넓게 수집, 정리해 부록으로 수록함으로써 향후 활용도를 높이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와 조사보고서는 물론, 광산명감 등 관련 자료와 관련 명부(조선인노무자에 관한 조사결과, 소위 조선인피징용자에 관한 건, 조선인노무자공탁금자료, 조선인 재일자산조사보고서철, 후생연금명부, 경제협력 한국·105·조선인에 대한 임금미불채무조) 수록 내용을 적극 활용했다.

또한 1943년 광산 노무자의 전환배치는 강제성을 입증하는 사례이기도 하다. 당국이 전시체제 운영을 위해 노무자의 통제와 효율적 운용을 도모한 사례이기 때문이다. 광산노무자의 전환배치는 당시 군수물자 생산에서 광산이 갖는 의미를 확인하는 사례로서도 의미가 있다. 광산의 채굴품 가운데 철광석은 비행기와 선박 등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물자였고, 금은 전비 마련에 중요한 광물이었다. 그러나 전쟁 말기에 철광석과 구리 생산에 노동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으므로 일본 상공성은 금광업조정령을 발동하고 노무자의 전환배치를 단행했다. 이 절에서는 명부 분석을 통해 조선인들의 전환배치 과정과 전환배치 전후의 노동실태에 대해 살펴보고, 현장조사 결과도 반영했다. 관련 명부(1943년 금광업조정령에 의한 전환배치 노무자 명부)는 엑셀 파일에 입력하고 필터링하여 통계 수치를 추출하는 동시에 다각적인 분석이 가능하도록 정리해서 부록에 수록했다.

제3장에서는 미쓰비시광업(주)과 사도광산의 조선인 동원과정과 피해실태를 분석했다. 제1절에서는 미쓰비시 관련 자료를 근거로 메이지 이후 일본의 전쟁을 통해 미쓰비시 그룹의 성장 과정을 살펴보았다. 또한 미쓰비시광업(주) 사사(社史)를 토대로 조선인을 동원한 미쓰비시광업(주) 소속 45개 탄광·광산 가운데 27개 광산의 현황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광산 운영 실태를 살펴보았다. 제2절에서는 미쓰비시광업(주) 소속 사도광산의 조선인 강제동원 실태를 살펴보았다. 명부와 신문기사 및 문서기록과 구술기록, 현지 조사를 통해 동원과정과 피해실태를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명부와 구술기록, 신문기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사도광산의 강제동원 과정과 실태를 정리했다.

특히 이 절에서는 최초로 사도광산 관련 조선인 명부에 대한 미시적 분석을 시도했다. 사도광산과 관련해서 그간 학계는 일본 정부와 기업이 생산한 명부는 발굴하지 못했다. 그러나 연구단은 연구 수행 과정에서 사도광산 관련 조선인 명부 2종을 확보했다. 최초의 명단 공개이다. 보고서에는 명단을 확인할 수 있는 조선인 연초 배급명부를 분석하고, 2종의 명부는 모두 부록에 수록해 최초로 명부를 공개했다.

특히 연구단이 확보한 148명을 일정시피징병징용자명부를 통해 50여 명의 본적지를 확인한 후 이를 대상으로 탐방(이장, 노인회장 등)의 방법으로 유족을 파악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이 같은 생존자·유족 찾기를 통해 안타깝게도 생존자는 찾지 못했으나 몇몇 유족을 찾아 간접적인 피해 상황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매우 제한적이므로 보고서에는 한국 정부가 생산한 2종의 명부에서 동일 인물을 확인해 피해자 현황을 보완했다. 또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제공받은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이 소장한 자료에 근거해 피해자의 피해유형과 동원기간, 본적지, 동원 당시 연령 현황 등 주요 피해실태에 대해 분석했다.

제4장 조사의 성과와 활용 방안은 결론에 해당한다. 그러나 본문 내용을 정리하는데 그치지 않고, 조사과정에서 확보한 자료에 대한 활용 방안과 아시아태평양전쟁유적으로서 사도광산을 대상으로 한 역사문화콘텐츠적 시각에서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아시아태평양전쟁유적의 역사문화콘텐츠적 활용 방안은 일반 시민들이 역사를 만나는 창구로 알려져 있다. 역사문화콘텐츠가 할 수 있는 일은 적극적 기록 활용을 통한 역사의 복원과 재현이다. 필드워크,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일반인들이 역사의 진지함을 찾아가도록 돕는다. 아시아태평양전쟁유적은 활용과정을 통해 역사 경험을 축적하고 축적된 경험을 다시 시민의 반전평화역사교육으로 순환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그러므로 이를 토대로 적합한 문화콘텐츠 구축 및 활용 방안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도의 일환으로 제4장 제2절에 사도광산의 역사문화콘텐츠적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부록에는 탄광·광산기초현황목록, 현지조사 자료(국내, 일본), 1943년 금광업조정령에 의한 전환배치 노무자 명부, 연구단이 확보한 사도광산 조선인 강제동원 명부 제2종의 명단과 사본, 위원회 피해조사 명부 등 총 6종을 수록했다.

## 5. 연구단 구성

연구단은 연구책임자와 공동연구자, 연구보조원 등 3인으로 구성했다. 연구책임자는 다수의 탄광과 광산에 동원된 조선인 관련 저서와 연구논문을 발표했고, 구술사 전문가이며, 일본지역을 비롯한 한반도와 동남아태평양·중국만주지역 강제동원 작업장을 답사해 목록화 작업을 수행해 역사문화콘텐츠 활용 방안을 책으로 발간한 전문 연구자가 담당했다. 또한 공동연구자는 30년 가까이 일본지역 강제동원 현장을 답사하며 사진과 인터뷰 등 기록으로 남기는 일을 계속하고, 관련 다큐멘터리 제작과 전시회 개최, 번역서 발간 등 국내 최고의 성과를 내고 있는 기록 작가이다. 연구보조원 역시 10년 이상 기자로서 활동하며, 일본 현지조사와 강제동원 피해자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결과를 책으로 발간한 구술 기록가이다. 모두 학계의 관련 연구 성과에 대해 이미 충분히 이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어 자료의 해독과 분석, 구술인터뷰, 보고서 집필에 적합한 연구인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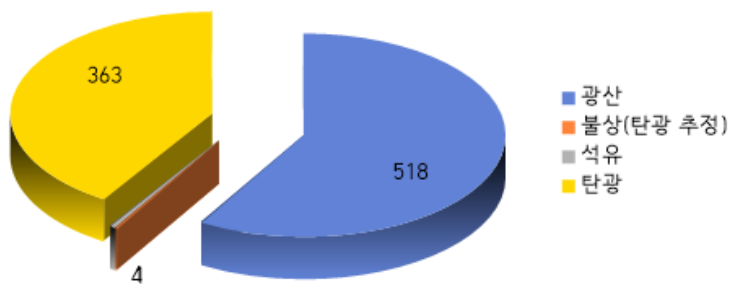
## II. 일본의 탄광·광산 기초 현황

### 1. 일본의 탄광·광산 실태 - 지역별·동원기업별

#### 1) 지역별·탄전 및 광구별 현황

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아시아태평양전쟁 기간 중 일본에 강제 동원된 조선인의 노동동원 작업장은 4,119개소이고, 이 가운데 탄광·광산은 892개소이다.<sup>3)</sup> 그러나 개인적으로 검증한 내용(정혜경 목록)에 의하면, 2019년 8월 현재 총 작업장은 4,296개소이고 탄광·광산은 886개소이다. 지역적으로는 오키나와에서 홋카이도까지 일본 전역에 걸쳐 있다. 정혜경 목록은 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에 수록한 정보에 추가 정보를 입력하고 검증한 목록이다.<sup>4)</sup>

조선인을 동원한 일본지역 탄광산 현황



[그림 1] 광물의 종류별 현황

3)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2016, 141쪽

4) 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에 수록한 내용은 허광무, 심재욱, 정혜경, 윤지현 등 위원회 소속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작업한 자료이다. 작성 과정에 대해서는 『활동결과보고서』, 137쪽 참조. 내용 가운데 일부는 국회 제출 과정을 통해 언론에 공개되었다.

886개 탄광·광산은 산출물에 따라 크게 석탄, 광산, 석유, 불상(석탄으로 추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가운데 광산은 522개소(가스와 석유를 채굴한 광산 4개소 포함), 탄광은 363개소이다. 아키타현(秋田縣)과 니가타현(新潟縣)에 있는 탄광·광산에서 석유와 천연가스(LNG)를 채굴했다.

[표 1] 조선인을 동원한 일본지역 석유광구

작업장 이름	소속 기업	소재지
하치모리(八森)광업소	東邦(도호)석유(주)	아키타현(山本郡)
도요이와(豊岩) 석유채굴(石油採掘)		아키타현(秋田市)
산쿄(三協) 무라마쓰(村松)광산	산쿄(三協)	니가타현(中蒲原郡)
해군 제4연료장 재유부(採油部)	해군 제4연료창	니가타현(長岡市)

불상인 탄광산 1개소는 일본 정부 자료(공문서관 소장 조선인 재일자산보고서철)에서 ‘■ ■ 鑛業所 (나가사키현 소재, 가와나미(川南)공업(주) 소속)’로 기재한 곳이다.

이 내용만으로는 산출 내용을 알 수 없으나 해당 기업인 가와나미(川南)공업(주)이 나가사키현(長野縣)과 사가현(佐賀縣)에 아보(安保), 가라쓰(唐津), 무카이야마(向山)탄광 등 탄광 3개소를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탄광으로 추정했다.



[그림 2] 일본 탄광 광산 분포지도

[표 2] 도도부현별 일본 탄광·광산 분포 현황 \* 괄호안은 탄광수

번호	도도부현	탄광 · 광산 수	번호	도도부현	탄광 · 광산 수
1	福岡縣	123(112)	23	高知縣	10
2	北海道	116(55)	24	大分縣	10
3	長崎縣	60(55)	25	熊本縣	10(4)
4	山口縣	54(40)	26	群馬縣	9
5	秋田縣	40(6)	27	德島縣	9(1)
6	愛媛縣	33(1)	28	奈良縣	8(1)
7	兵庫縣	32(1)	29	鹿児島縣	8
8	福島縣	32(17)	30	京都府	7
9	長野縣	24(10)	31	廣島縣	6
10	佐賀縣	24(23)	32	宮崎縣	6
11	宮城縣	23(9)	33	和歌山縣	6(1)
12	山形縣	23(6)	34	滋賀縣	5
13	岩手縣	23(3)	35	鳥取縣	5
14	岐阜縣	22(1)	36	富山縣	4
15	岡山縣	20	37	山梨縣	4
16	島根縣	19(5)	38	三重縣	4(1)
17	靜岡縣	18	39	石川縣	4
18	福井縣	17(1)	40	愛知縣	4
19	新潟縣	17(2)	41	沖繩縣	4(1)
20	青森縣	16	42	埼玉縣	2
21	茨城縣	12(8)	43	岩手縣/秋田縣	1
22	栃木縣	12			

탄광·광산의 분포지역은 일본의 47개 도도부현 가운데 42개 도도부현에 달할 정도로 광범위하다. [그림 2]와 같다. 주요 탄전과 광구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 (1) 주요 탄전 현황

[표 3]을 통해 886개 탄광·광산 가운데 먼저 탄전을 보면, 탄광 소재지는 24개 도도부현이다. 이를 통해 일본의 대표적 탄전은 규슈탄전(후쿠오카, 나가사키현)과 홋카이도 탄전, 조반(常磐, 후쿠시마, 이바라키현) 탄전임을 알 수 있다. 다수의 탄광이 밀집한 지역은 규슈와 홋카이도 지역이다.

[표 3] 일본지역 탄광 분포 현황(조선인 동원 도도부현 24개소)

지역	탄광수	지역	탄광수	지역	탄광수	지역	탄광수
福岡縣	112	長野縣	10	熊本縣	4	兵庫縣	1
北海道	55	宮城縣	9	岩手縣	3	福井縣	1
長崎縣	55	茨城縣	8	新潟縣	2	三重縣	1
山口縣	40	山形縣	6	岐阜縣	1	愛媛縣	1
佐賀縣	23	秋田縣	6	奈良縣	1	沖繩縣	1
福島縣	17	島根縣	5	德島縣	1	和歌山縣	1

일본 본토에서 석탄을 처음 발견한 것은 668년이었으나, 연료로서 활용가치에 주목한 것은 메이지(明治)유신 이후부터이다. 산업혁명 이전에 석탄은 연료로서 활용가치를 주목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석탄산업은 메이지 유신 이후 산업혁명 과정에서 광업으로서의 조직적 형태를 보이기 시작했다. 일본 정부는 1869년 2월 20일자(행정관포고 제77호)로 자유채굴을 허용하면서 광산을 번(藩)으로부터 개방했다. 1872년 「광산심득(鑛山心得)」에 의해 광산은 정부 소유가 되었다. 일본 정부는 1873년 최초의 광산법인 「일본광법(日本坑法)」을 발포하고 주요 광산의 경영, 민영을 허용했다. 1887년에는 출탄고가 170만톤에 불과했으나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기존 탄산(炭山)의 확장과 새로운 탄산 개발 등으로 출탄고가 급증했다. 탄전별 생산량 추이를 보면 [표 4]와 같다.

[표 4] 일본 전역 탄전별 연도별 생산량 추이 (단위 : 천톤 / %)

연도	전국	홋카이도(北海道)							혼슈(本州)		규슈(九州)	
		전체	비율	石狩	釧路	留萌	天北	茅沼	생산량	비율	생산량	비율
1911	17,633	1,702	9.65	-	-	-	-	-	2,103	11.92	13,689	77.63
1920	29,245	4,510	15.42	4,209	212	26	62	-	4,949	16.92	19,787	67.65
1925	31,459	5,639	17.92	5,168	450	18	4	-	4,661	14.81	21,159	67.25
1930	31,376	6,727	21.56	6,042	639	45	0	-	4,359	13.89	20,291	64.67
1935	37,762	8,318	22.02	7,407	757	147	7	-	5,269	13.95	24,175	64.01
1940	56,313	15,106	26.82	12,595	2,027	314	170	-	8,734	15.50	32,473	57.66
1941	56,602	15,747	27.82	12,682	2,385	400	146	133	7,993	14.12	31,862	56.29
1942	54,179	15,657	28.89	12,727	2,261	428	111	130	7,979	14.72	30,543	56.37
1943	55,539	15,647	28.17	12,888	2,074	429	140	116	8,596	15.47	31,295	56.34
1944	49,335	14,409	29.20	13,022	683	487	124	94	7,395	14.98	27,530	55.80
1945	22,335	6,972	31.21	6,402	256	211	58	44	3,401	15.22	11,961	53.55

자료 : <http://e-ono.com/coal/> 수목 통계 (3) '탄전별 생산량 추이' 내용 중 일부.

\* 비율은 전국 생산량 대비 해당 지역 생산 비율

\* 1945년은 8월 이후 채탄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았으므로 전년도의 반 정도

기존 연구 성과를 토대로 주요 탄전과 광구별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지쿠호(築豊)탄전 : 후쿠오카현 동쪽에 위치한 지쿠호 지역은, 이즈카시(飯塚市)를 중심으로 동쪽의 다가와시(田川市)와 북쪽의 노가타시(直方市) 3개 도시를 둘러싼 지역을 지칭한다. 지쿠호라는 명칭은 탄전이 존재하는 지역이 율령제도에 의한 지쿠젠(筑前国)과 부젠(豊前国)에 걸쳐 있었기 때문이었다. 지쿠호 지역에 자리 잡은 지쿠호 탄전은 후쿠오카현 북부 온가강(遠賀川) 유역 일대의 남북 약 50km, 동서 약 20km의 면적 약 800km<sup>2</sup>의 탄전 지대로, 지쿠호 지역에 포함되는 지자체[온가군(遠賀郡), 구라테군(鞍手郡), 다가와군(田川郡), 가호군(嘉穂郡), 기구군(企救郡)] 외에 나카마시(中間市), 무나카타시(宗像市), 후쿠츠



시(福津市), 기타큐슈시(北九州市), 야하타(八幡), 고쿠라(小倉) 등 지쿠호 지역 북서와 북동에 인접한 도시들에 걸쳐 있는 대탄전이다.<sup>5)</sup> 일본 전국에서 출탄량 제1위를 차지한 적도 있었다.

지쿠호 탄전의 역사는 석탄을 처음 발견한 7세기 무로마치(室町)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후 에도(江戸) 시대 중기(1700년대)경부터는 제염의 연료로서 석탄을 이용하게 되었다. 당시 고쿠라번(小倉藩)과 후쿠오카번(福岡藩)은 지역 내 석탄채굴·수송·판매를 번(藩)의 관리 아래에 두고, 탄광 개발을 추진했다. 막번(幕藩)체제를 종료하고 메이지(明治) 신정부가 성립된 후 1872년에 「광산개방령」을 공포하고 정부와 민간에 의한 탄광개발을 급속하게 추진했다. 1871년 아소(麻生)가 이 지역의 토착자본으로서 탄광 개발에 뛰어들었다. 뒤를 이어 가이시마(貝島, 1885), 야스가와(安川, 1889) 등의 토착자본이 형성되기 시작했으며 미쓰비시(1889), 스미토모(1894), 후루가와(1894), 미쓰이(1896) 등과 같은 중앙의 대자본도 지쿠호 탄전으로 진출했다. 이러한 대기업들의 지쿠호 탄전 진출을 통해 출탄량도 매년 증가해 1888년에는 41만톤, 1891년에는 92만톤, 1892년에는 100톤에 달했다.

초기의 지쿠호 탄전은 죄수를 사용한 수인노동의 현장이었다. 미이케(三池)탄광은 대표적인 수인노동현장으로써 탄광 경내에 감옥소를 설치하고 발목에 쇠사슬을 맨 수인들을 갱내에 투입했다. 미이케 탄광에서 시작한 죄수(수인)노동은 다른 탄광에 확산되어 당시 보편적인 탄광노동의 모습을 띠었다. 탈주를 방지한다는 이유로 발에 족쇄를 채우고 혼도시 외에 의복을 입히지 않은 채 사역하는 모습의 사진이 남아 있다.<sup>6)</sup> 그 후 탄광 갱부는 죄수에서 일반 노동자로 전환했으나 갱부에 대한 인식과 대우는 달라지지 않았다. 죄수 대신 조선인이거나 일본 최하층민을 투입했고, 갱부에 대한 인식과 처우는 이후 조선인에게 그대로 적용되었다.

지역 토착 자본의 성장 및 중앙 대자본의 진출, 그리고 1901년 야하타제철소(八幡製鐵所) 조업 개시와 맞물려 이 지역 석탄 생산량은 증대했다. 1911년 지쿠호의 총 출탄고는 792만톤으로 1891년에 비해 8배 이상으로 증가하였고, 전국 출탄량의 50%를 점하게 되었다. 이처럼 일본 석탄 생산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이 지쿠호 탄전의 탄광들은 일찍부터 조선인 노동력에 주목했고, 다수의 기업들이 1920년대부터 조선인들을 광부로 고용해 왔다.<sup>7)</sup>

5) 飯塚市役所, 『飯塚市誌』, 筑豊印刷, 1952, 276쪽

6) 森末義彰·寶月圭吾·小西四郎, 『生活史』, 山川出版社, 1969, 68쪽

7)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진상조사보고서 - 전시체제가 규슈지역 '아소광업(주)'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진상조사』(작성자 심재욱), 2011, 10~12쪽



[그림 3] 지쿠호 탄전 분포도(『진상조사보고서 - 전시체제기 규슈지역 ‘아소광업(주)’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진상조사』(작성자 심재욱), 2011), 10쪽

- 나가사키 현 소재 탄전 : 나가사키현에는 크게 기타마쓰(北松)탄전과 니시소노(西彼)탄전이 있다. 이 가운데 조선인을 동원한 탄광 현장은 총 54개소이고, 2015년 세계근대유산으로 지정된 다카시마(高島) 탄광 소속 하시마(端島) 탄광이 포함되어 있다.

# 長崎県炭坑所在地



[그림 4] 나가사키현 탄광소재지(출처 :

長崎在日朝鮮人の人權を守る會, 『原爆と朝鮮人』2, 1983, 12쪽)

- 조반 탄전 : 후쿠시마현의 후타바(双葉)·이와키(石城) 탄전과 이바라키현의 이바라키(茨城) 탄전을 의미한다. 1880년대 이와키(磐城) 탄광의 창립을 기점으로 조반 탄전에서 근대적 탄광 경영을 시작했다. 이후 동북지방과 북관동지방의 노동력으로 탄광을 가동했다. 조반 탄전은 1930~1945년간 생산량이나 광부 규모에서 전국 대비 7% 정도인 소규모였다.<sup>8)</sup> 일본 전시체제가 이전에는 조선인의 취로 규모가 100명 내외로 적은 탄전이었으나 1939년부터 증가했다.<sup>9)</sup>

조반탄전 내 탄광 가운데 석탄통제회 동부지부 산하 탄광(연산 5만톤 이상 탄광)은 다음과 같다.<sup>10)</sup>

8) 長澤秀, 『戦時下常磐炭田における朝鮮人鑛夫の労働と闘争』, 『朝鮮人強制連行論文集成』, 明石書店, 1993, 148쪽, 151쪽

9) 長澤秀의 연구에 의하면, 조선인 광부수가 428명(1931년)에 달한 통계가 제시되어 있으나, 이 통계에는 탄광부 외에 광산부도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日立광산의 조선인 노동자 수가 다수이므로 실제 탄광부의 수는 428여명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長澤秀, 『戦時下常磐炭田における朝鮮人鑛夫の労働と闘争』, 『朝鮮人強制連行論文集成』, 明石書店, 1993, 149쪽, 〈표1〉

10) 국무총리 소속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위원회, 『진상조사보고서 - 사할린 '이중징용' 피해

[표 5] 조반(常磐)탄전으로 동원된 조선인 입산 상황(석탄통제회 동부지부 산하 탄광)

구분	광업권자	탄광	소재지	군수회사 지정	강제동원된 조선인 총수							
					1939	1940	1941	1942	1943	1944	1945	계
석탄통제회 회원탄광	常磐탄광(주)	内郷	福島	○	501	1,851	814	1,144	1,194	1,649	228	7,381
		磐崎	福島	○								
		湯本	福島	○	496	1,764	731	1,720	1,392	616	68	6,787
		中郷	茨城				146	142	112	38	438	
		神山	茨城						77	26	103	
	古河광업(주)	好間	福島	○	46	275	141	559	399	815	23	2,258
	대일본탄광(주)	勿來	福島					362	191	457	18	1,028
東邦탄광(주)	櫛形	茨城					99	134	220	6	459	
석탄통제회 합탄광	日曹광업(주)	赤井	福島		278			148	138	204	9	777
		常磐	福島									
	鳳城탄광(주)	小田	福島							149	2	151
	大昭광업(주)	上山田	福島						87	171	33	291
	關本탄광(주)	關本	茨城							75	23	98
	山口탄광(주)	山口	茨城							22		22
	山一탄광(주)	山一	茨城							75		75
	불분명									147	34	181
합계					1,043	4,248	1,868	4,508	4,086	5,122	538	21,413

자료 : 석탄통제회 동부지부 문서(長澤秀, 「戰時下常磐炭田における朝鮮人鑛夫の勞働と闘争」, 『朝鮮人強制連行論文集』, 明石書店, 1993, 160~161쪽. 재인용)

- 홋카이도 광구와 탄전 : 홋카이도(北海道)<sup>11)</sup>는 일본의 대표적인 탄전으로 알려졌다. 탄광과 광산이 공존하는 지역이다. 시기적으로는 탄광보다 금광산을 먼저 발견했다. 구전(口傳)에 의하면, 1191년에 가미이소군(上磯郡) 시리우치(知内)천 상류에서 금괴를 발견한 후 가마쿠라 막부(鎌倉幕府)의 명에 따라 병사 1천여 명과 인부 800명으로 구성된 원정탐험대가 들어가 사금을 채취하기 위해 아이누족과 싸웠으나 실패했다. 1608년에는 시리우치천에서 금을 채굴하기 시작했고, 1617년에는 오사와무라(大澤村)에서 금광산을 발견해 마쓰마에(松前)금광산의 효시가 되었다. 1635년에는 인근의 도카치(十勝) 지역에서도 금광산을 개굴했다. 철광은 1456년 봄에 가메다군(龜田郡) 주변에서 사철(砂鐵)을 채취하여 제련한 기록이 있다.

진상조사(작성자 정해경), 2007, 58쪽, <표 10> 수정

- 11) 홋카이도(北海道)는 1869년 일본이 점령하여 일본 영토(내지)로 확정한 땅이다. 구석기 시대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했는데, 일본이 점령하기 전의 이름은 '아이누모시리'였다. 일본에서는 에조(蝦夷)라고 불렀으며 메이지 유신 이전에도 영주 차원의 개발이 있었으나 메이지 유신 이후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했다. 메이지 정부는 '보호이민정책'을 실시하고 관영사업을 통해 산업을 개발하고자 했으나 효과는 거두지 못했다. 일본은 1869년 아이누모시리를 점령해 홋카이도로 이름하고, 개척사(開拓使)를 설치하여 일본 영토로 확정했다. 개척사제도는 1882년에 폐지되고, 일본 본토와 동일하게 현(縣) 제도가 적용되었으며, 1886년에는 홋카이도청을 개설했다. 일본은 홋카이도를 점령한 후에 죄수노동력을 투입하는 등 적극적인 개척 정책을 실시했다. 일본의 점령 이후 아이누족은 점차 홋카이도에서 밀려나고 그 자리는 일본 본토의 일본인 이민자들이 채워나갔다.

1846년에는 하코다테(函館)에서 유황을 발견하기 시작했고, 은광산 채굴도 시작했다. 이러한 금은광산의 발견으로 서민들은 홋카이도를 입신출세와 성공을 보장하는 땅으로 인식할 정도였다.

석탄은 안세이(安政) 연간(1854~1859년)에 시라누카(白糠) 탄전과 가야누마(茅沼) 탄전을 발견하면서 알려졌다. 1854년에 채굴을 시작한 시라누카 탄전은 이미 갯내에서 안전등(安全燈)을 사용했다. 홋카이도의 탄전은 가장 많은 채굴 면적을 가진 이시카리(石狩)를 필두로 시라누카, 가야누마, 가바토(樺戸), 루모이(留萌), 도마마에(苫前), 소야·덴보쿠(宗谷·天北), 도카치(十勝), 구시로(釧路), 치도세(千歳) 탄전 등 총 10개이다. 지쿠호 탄전과 마찬가지로 관영 탄광제도로써 죄수노동으로 개발한 홋카이도의 여러 탄전은 1889년 홋카이도탄광철도회사 설립을 계기로 대기업들이 진출하면서 활황기를 맞았다. 홋카이도 탄전에서 가장 빨리 채탄을 시작한 탄광은 1863년에 개광한 가야누마 탄광이다.<sup>12)</sup>

[표 6] 홋카이도 연도별 채굴 광구 현황 (단위 : 개소)

연도별	금속광구	석탄광구	석유광구	유황광구	계
1913년	44	178	21	42	285
1918년	54	202	28	44	328
1919년	62	210	28	45	345
1920년	60	224	30	46	360
1921년	60	214	30	43	347
1922년	59	212	33	43	347
1923년	59	208	35	42	344
1924년	60	208	36	40	344
1925년	57	207	34	41	339
1926년	55	207	33	39	334
1927년	53	203	32	39	327

자료 : 社団法人北海道石炭鑛業會, 『北海道鑛業誌』, 32쪽, [표 3] 수정

홋카이도 광업은 막부 시기에 사철광업을 시작으로 금속광산과 유황광산, 석탄광산을 각각 개발했으나 본격적인 개발은 메이지 이후이다. 1869년 개척사제도 실시 이후 개척사가 홋카이도의 광산 업무를 통괄했다. 개척사는 지질광물조사를 통해 광산의 채산성을 검증한 후 개광을 하고 채굴했으며 채굴품을 실어 나르기 위해 광산지역을 연계한 철도 부설작업도 확대했다. 1890년 일본

12) 가야누마 탄광의 조선인 강제동원에 대해서는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홋카이도 가야누마 탄광에 강제동원된 전북 출신자의 피해 진상조사』(작성: 정혜경, 하승현), 2010 참조

정부는 「광업조령」을 제정하면서 광산 사무를 공부성에서 광산국으로 이관했다. 1892년에 삿포로(札幌)에 삿포로광산감독국을 설치하고 1896년에는 삿포로광산감독서(1913년 광무서로 개칭)로 변경했다. 1905년에 광업법을 제정하고 1909년에는 「사광(砂鑛)법」도 발표했다. 이와 같이 홋카이도의 광업은 관업(官業)으로서 시작했으나 1889년 홋카이도탄광철도회사 설립 후 호로나이(幌内)탄광 불하(拂下)를 필두로 이시카리 탄전에 속하는 소라치(空知)와 유바리(夕張) 광구도 모두 홋카이도탄광철도회사 소유가 되었다. 1920년대 초반에는 미쓰이와 미쓰비시, 스미토모 등 대기업이 진출해 탄광업을 압도했다.

[표 6]에서 연도별 채굴광구수의 변화를 보면, 1916년 이후 증가해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경제 공황에서도 채굴 광구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지세, 기후와 교통 등 광산을 둘러싼 환경이 대기업에 유리했기 때문이다. 채굴 광구의 평수를 보면, 1913년의 165,062,619평에서 1927년에는 259,235,720평으로 1억 평 가까운 면적이 늘어났다. 광종별로 보면, 석탄이 가장 많다. 시굴(試掘)의 수나 면적에서 홋카이도는 전체 광구의 50%가 넘고 채굴 면적은 62%이다. 총생산액에서도 석탄은 비중이 높아 1927년에는 92%를 기록했다.<sup>13)</sup>



[그림 5] 일본 규슈(九州)·시코쿠(四国)·혼슈(本州)의 탄전(炭田)

이외에도 일본 규슈(九州)·시코쿠(四国)·혼슈(本州)에는 여러 탄전(炭田)이 있다. 이 가운데 주목할 만한 탄전은 아마구치(山口) 탄전의 중심인 우베(宇部)탄전이다. 아마구치 탄전은 우베(宇部)탄

13) 社団法人北海道石炭鑛業會, 『北海道鑛業誌』, 1928, 1~38쪽



전, 오미네(大嶺)탄전, 쓰부타(津布田)탄전을 총칭하는 표현이다. 이 가운데 우베 탄전은 규모나 생산량에서 선두를 차지했다.

- 우베 탄전 : 우베 탄전은 우베시, 오노다시(小野田市), 구스노키초(楠町), 산요초(山陽町)에 걸친 탄광지대를 의미하며 생산량의 9할은 해저탄광에서 산출했다. 탄광 외에 2개소의 광산이 존재했다. 우베 탄전이 최고의 출탄량을 기록했던 1940년 당시 내역을 보면 중소탄전을 포함해 약 59개에 이르는 탄광을 거느리고 있었다.<sup>14)</sup> 이 가운데 조선인을 동원한 탄광·광산은 54개소이다.<sup>15)</sup>

[표 7] 우베 탄전 소속 주요 탄광의 사업장별 조선인 탄광부 동원 승인 내역

구분	작업장명	기업명(당시)	1939년도 승인수	1940년도 승인수	1941년도 승인수	계
석탄산	히가시미조메(東見初)탄광	우베(宇部)광업소(주)	680	600	-	1,280
	모토야마(本山)탄광	우베(宇部)광업소(주)	100	620	200	920
	오키노야마(沖ノ山)탄광	우베(宇部)광업소(주)	-	200	300	500
	산요(山陽)무연탄광	닛산(日産)화학공업(주)	200	200	500	900
	오노다(小野田)광업소	후루타니(古谷)광업(주)	-	150	-	150
	신미조(新見初)탄광	니혼(日本)흥업(주)	50	50	-	100
	조세이(長生)탄광	미쓰이(三井)광산(주)	450	800	380	1,630
	나카하라(中原)탄광	기소(木曾)광업	100	-	-	100
	사쿠라야마(櫻山)탄광	기소(木曾)광업	-	50	-	50
	다이쇼(大正)탄광	아키야마(秋山)광업소	50	150	-	200
	오키우베(沖宇部)탄광	오키우베(沖宇部)탄광(주)	60	-	-	60
금속광산	후지가야(藤ヶ谷)광산	니시바시(西橋)광업	45	40	-	85
	가와야마(河山)광산	니혼(日本)광업(주)	60	-	-	60

자료 : 中央協和會, 『移入朝鮮人勞働者狀況調』, 1942년

## (2) 주요 광산지역과 산출품

다음으로 광산 분포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일본의 광산은 전국적으로 분포(42개 도도부현)하고 있지만 20개소 이상 다수의 광산이 밀집한 지역은 홋카이도와 관동, 동북, 관서 지역이

14) 『山口炭田三百年史』70~71쪽. 정확하게는 산출량 100만톤을 돌파한 1917년 기준(국무총리 소속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위원회, 『진상조사보고서 - 일본 조세이(長生)탄광 수몰사고 진상조사』(작성자 허광무), 2007, 5쪽 재인용)

15) 중앙협화회 자료는 소속 광업소 기재 내용에서 다른 자료와 차이를 보였다. 히가시미조메(東見初)탄광에 대해 중앙협화회 자료는 기소(木曾)광업 소속으로 기재했으나 공탁금 문서 등 다른 자료에는 우베(宇部)광업소(주)로 기재했다. 또한 우베광업소의 경우에도 중앙협화회 자료는 우베광산과 구분했으나 교차 분석한 결과 우베광업소가 적절해 보인다. 小野田(오노다)광업소의 경우에도 중앙협화회 자료는 우베광업소로 기재했으나 광산목록이나 다케우치 목록에는 후루타니(古谷)광업(주)으로 기재했다. 보고서에서는 후루타니광업(주)으로 판단했다. 오키우베(沖宇部)탄광도 중앙협화회 자료는 우베광업소 소속으로 파악했으나 기타 자료에는 오키우베(沖宇部)탄광(주)로 기재했다.

다. 탄광이 24개 도도부현인데 비해 광산의 분포지역은 두 배에 달할 정도로 넓다. 특히 홋카이도는 55개소의 탄광과 함께 61개소의 광산을 가진 지하자원의 보고였다. <표 8>을 통해 광산 현황과 함께 동일 지역의 탄광 현황(\* 표시)도 비교할 수 있다.

[표 8] 일본 지역 광산 분포 현황(조선인 동원 도도부현 42개소)

광산 소재지	광산수	광산 소재지	광산수	광산 소재지	광산수	광산 소재지	광산수
北海道*55	61	福島縣*17	15	德島縣*1	8	富山縣	4
秋田縣*6	34	新潟縣*2	15	鹿兒島縣	8	山梨縣	4
愛媛縣*1	32	宮城縣*3	14	京都府	7	石川縣	4
兵庫縣*1	31	島根縣*5	14	奈良縣*1	7	愛知縣	4
岐阜縣*1	21	山口縣*40	14	廣島縣	6	茨城縣*8	4
岡山縣	20	長野縣*10	14	宮崎縣*9	6	三重縣*1	3
岩手縣	20	栃木縣	12	熊本縣*4	6	沖繩縣*1	3
靜岡縣	18	福岡縣*112	11	滋賀縣	5	埼玉縣	2
山形縣*6	17	高知縣	10	長崎縣*55	5	岩手縣/秋田縣	1
福井縣*1	16	大分縣	10	鳥取縣	5	佐賀縣*23	1
青森縣	16	群馬縣	9	和歌山縣*1	5	소계	522

\* : 탄광이 있는 지역과 탄광수

42개 도도부현에 달하는 일본의 광산에서 어떤 광물을 채굴했을까. 522개 광산 가운데 산출품을 파악할 수 없는 178개 광산을 제외한 345개 광산의 광물을 살펴보면, 구리(66개소)가 가장 많고, 은(65개소), 철(48개소), 납(47개소), 금(44개소), 아연(41개소)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광산 규모는 작지만 망간(26개소), 황(16개소), 텅스텐(15개소), 석회석(13개소), 흑광(10개소), 주석(9개소), 코발트(5개소), 니켈(4개소), 우라늄(4개소)을 비롯해 다양한 광물도 산출하고 있다. 알루미늄의 원광으로 사용하는 명반석(alunite)을 산출한 광산도 3개소(시즈오카현의 宇久須광산, 오키나와현의 北大東광산과 沖大東광산)를 찾을 수 있다.

금은 전비 마련에 매우 중요한 광물이었으며 전쟁 수행에 필요한 금속으로 철광과 구리를 빼놓을 수 없었다. 철광은 비행기와 선박을 만드는 데 필수 원료였고, 구리도 제조업 전반에 필요한 원료였으므로 군수물자 생산에 필수 광물이었다. 이와 함께 중요한 재료는 알루미늄이다. 알루미늄은 전선이나 고압 케이블, 엔진 부품, 자동차나 비행기 몸체 등 군수품이나 특수기계 제작에 필요한 원료였다. 전투기와 폭탄 제조의 재료이기도 했으므로 일본의 전쟁 수행에 가장 중요한 금속이기도 했다. 그러나 일본의 명반석 광산은 소수였고, 채굴 규모가 작았으므로 조선의 명반석 광산 개발에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전쟁을 일으키기 전인 1920년대 중반부터 조선 전역의 지질조사를 통해 1932년에는 매장량이 2천만 톤에 달하는 전남 해남 옥매산의 명반석 광산인 옥매광산을 발견하고 아사다(淺田)화학공업(주)이 운영하도록 했다.<sup>16)</sup>

16) 옥매광산의 강제동원에 대해서는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 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또한 망간은 도자기의 유약이나 비료, 성냥 제조, 건전지 제조에도 필요하지만, 대부분은 철을 단단하게 만드는데 중요한 전시광물이었다. 탄산망간을 20~30% 정도 첨가하면 레일이나 볼더, 탱크 궤도, 대포 포신, 총 등을 만드는 강철이 되었다. 도호쿠의 하치노헤(八戸), 시코쿠(四國)의 우와지마(宇和島), 교토부의 단바(丹波)가 일본 3대 망간 산지였다. 이 가운데 최대 망간 산출지는 단바였고, 1944년에 최대 망간 채굴량을 보였다. 당시 연간 망간 필요량 300만톤 가운데 단바에서 채굴한 양이 35만톤으로 11%에 달했다.<sup>17)</sup>

광물과 광산 밀집 지역을 관련지어 살펴보면, 홋카이도는 금·은·구리·망간·크롬·수은·유황이 주요 광물이고, 아키타현(秋田縣)과 이와테현(岩手縣), 후쿠시마현(福島縣), 아오모리현(靑森縣) 등 동북 지역 광산은 주로 철광과 구리를 채굴했으며, 도치기현(栃木県), 니가타현(新潟縣), 야마가타현(山形縣), 시즈오카현(靜岡縣) 등 관동 북부지역은 구리광산이 많았다. 에히메현(愛媛縣)과 효고현(兵庫縣), 기후현(岐阜縣)은 구리와 규석(珪石)광산 중심지역이었다. 전쟁의 막바지에 당국이 광산노동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홋카이도 금은 광산의 광부들을 전환배치한 지역은 아키타현과 도치기현, 에히메현 등 모두 구리광산 지역이었다.<sup>18)</sup> 효고현은 31개 광산 가운데 14개 광산이 규석광산이었다.<sup>19)</sup> 오카야마현(岡山縣)의 광산은 주로 구리와 석회석을 채굴했다. 전체적으로 일본의 가장 많은 광산에서 채굴한 광물은 구리와 철광석으로 보인다.

## 2) 동원기업별 현황

조선인을 동원한 일본지역 탄광·광산의 기업은 총 325개이고, 이 가운데 10개소 이상의 광산을 운영한 기업을 보면, 니혼(日本)광업(주) 52개소, 미쓰비시(三菱)광업(주) 46개소, 스미토모(住友)광업(주) 37개소, 닛테츠(日鐵)광업(주) 36개소, 미쓰이(三井)광산(주) 25개소, 후루카와(古河)광업(주) 18개소, 홋카이도(北海道)탄광기선(주) 16개소, 메이지(明治)광업(주) 13개소, 아소(麻生)광업(주)과 데이코쿠(帝國)광업개발(주) 12개소, 닛치쓰(日窒)광업개발(주)과 쇼와(昭和)광업(주) 11개소, 주가이(中外)광업(주) 10개소 등 총 13개 기업이다.

기업이 운영했던 탄광·광산의 대부분은 폐광되었으나 소속 기업은 유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13개 기업 가운데 메이지광업(주)과 데이코쿠광업개발(주)을 제외한 모든 기업이 회사명을 변경하고 운영 중인 강제동원 현존기업이다. 메이지광업(주)은 1969년에 해산했고, 데이코쿠광업개발(주)은 1949년에 해산한 후 신(新)광업개발(주)이 전체 사업을 계승했다.

등 지원위원회, 『전라남도 해남 옥매광산 노무자들의 강제동원 및 피해실태 기초조사 보고서(작성자 우영송)』, 2012 참조

17) 이용식 지음, 배지원 옮김, 『재일조선인 아리랑』, 논형, 2010, 37~38쪽

18) 홋카이도 광산의 전환배치에 대해서는 보고서 제2절에서 기술했다.

19) 규석은 내화벽돌이나 도자기, 유리 생산 원료이다.

[표 9] 조선인 강제동원 일본 탄광·광산(886개소)의 기업별 현황

기업	소속 탄광산	기업	소속 탄광산
가네마루(金丸)광업(주)	5	산세이(三星)광업(주)	1
가모(加茂)탄광(주)	1	산신(三信)광공(주)	1
가미세키(上關)광산	1	세키모토(關本)탄광(주)	1
가미오카(神岡)광업(주)(三井금속광업 소속)	7	세토다(瀬戸田)광산	1
가미오카(神岡)금속	1	센류(潛龍)鑛業所(주)	1
가미오키(上沖)탄광	1	센센(戰線)광업(주)	2
가미우(神生)수은광업(주)	1	쇼로혼키(庶路本岐)	1
가부토야마(甲山)광업(주)	1	쇼와(昭和)광업(주)	11
가사키(笠置)광업(주)	1	쇼와(昭和)電工(주)	1
가야누마(茅沼)탄화광업(주)	1	쇼와(昭和)탄업(주)	2
가와나미(川南)공업(주)	4	쇼와(昭和)화학공업(주)	1
가와나미(川南)광산	1	쇼카와(莊川)광업(주)	1
가이지마(貝島)탄광(주)	5	스가와라(菅原)광업	1
가이지마(貝島)화학공업(주)	1	스미토모(住友)광업(주)	37
가타쿠라오자와(片倉大澤)광산	1	스에요시(末吉)광업(주)	1
가호(嘉穂)광업(주)	3	스즈가사카(鈴ヶ坂)탄광	1
간바야시(神林)탄광(주)	1	시나가와(品川)백련외(주)	1
간토(關東)도로마이트공업(주)	1	시노노이(篠ノ井)탄광	1
고난(厚南)탄광	1	시라이시(白石)공업(주)	1
고니시아스효에(小西安兵衛)상점	1	시마즈(島津)광업(주)	1
고다마(児玉)광업소	1	시모카와(下川)광업(주)	1
고도부키(寿)탄광(주)	1	시즈카리(靜狩)금산	1
고부쿠로(幸袋)광업(주)	1	시코쿠(四國)광업개발(주)	1
고쇼(興昌)광업(주)	1	시코쿠(四國)탄광	1
고아(興亞)광업(주)	1	시토마에(尿前)동산	1
고야기(香焼)광업(주)	1	신(新)鑛業開發(주)	1
고와(興和)탄광(주)	1	신니혼(新日本)炭坑(주)	1
고쿠라(小倉)탄광	1	신모토야마(新本山)탄광	1
광석배금통제(주)	1	신슈(信洲)(信河)탄광(주)	1
구와오(桑尾)광산	1	신카와(新川)탄광	1
구즈(葛生)석회석광업(주)	1	쓰구(津具)광업(주)	1
구지(久慈)점토광업(주)	1	쓰치야(土谷)광업(주)	1
규슈(九州)소다쓰(曹達)(주)	1	쓰키야마(月山)탄광	1
규슈(九州)채탄(주)	4	아라키(荒木)硃石광업소	1
기소(木曾)광업(주)	3	아모(天生)광산광업소	1
기시마(杵島)탄광(주)	3	아베(安部)광업소	1
기요히사(清久)광업(주)	2	아사(厚狭)탄광	1
기타시마(北島)광업(주)	1	아사노(淺野)시멘트	1
기타큐슈(北九州)탄광(주)	1	아사노(淺野)시멘트(주)	2
긴메이(金明)광산	1	아사노(淺野)우류(雨竜)탄광(주)	1
긴조(金城)탄광(주)	2	아사히(旭)광산(주)	1
깃쵸(吉兆)광산	1	아사히(旭)무연	1
나가노(長野)채광(주)	1	아사히코마쓰(旭鐵末)(주)	1

기업	소속 탄광산	기업	소속 탄광산
나가사와(長澤)탄광	1	아소(麻生)광업(주)	12
나가사카(長坂)고산	1	아시다치(足立)석화공업	1
나가사키(長崎)광업(주)	1	아시마(淺間)탄광(주)	1
나가쿠라(長倉)탄광(주)	1	아이즈(會津)광업	2
나가타(新潟)전공	1	아카호(赤穂)町營 제탄장	1
나고시(名越)광산	1	아키야마(秋山)광업소	1
나카노야마(中の山)탄광	1	아키야마(赤山)광산(주)	1
나카지마(中島)광업(주)	5	아미가타(山形)광업(주)	1
네부토야마(根太山)광산	1	아미구치(山口)광업(주)	1
노가미(野上)광업(주)	2	아마신(山新)광업(주)	1
노가미도야(野上東亞)광업(주)	1	아마이치(山一)탄광(주)	2
노무라(野村)광업(주)	3	야타카(弥高)광산	1
누마다구미(沼田組)	1	에노키야마(榎山)탄광	1
니시바시(西橋)광업	1	에비스(恵比寿)광산(주)	1
니치난(日南)광업(주)	1	에사시(江刺)興業(주)/후지타(藤田)광업(주)	1
니치만(日滿)광업(주)	5	에히메(愛媛)광업(주)	1
니치하라(日原)광산	1	오가쓰마(吾妻)광산	1
니헤이(二平)탄광	1	오기타(扇田)탄광	1
니혼(日本)가이시(碍子)(주)	1	오노다(小野田)시멘트(주)	3
니혼(日本)강관광업	1	오니키(魚貫)탄광(주)	1
니혼(日本)강관(주)	2	오미네(大嶺)광산	1
니혼(日本)광발	1	오사카(大阪)구석(鉤錫)재생공업조합	1
니혼(日本)광업(주)	50	오사카(大阪)요업시멘트(セメント)(주)	2
니혼(日本)광업(주)/미쓰이(三井)광산(주)	1	오시바(大柴)광산	1
니혼(日本)광업(주)/메이코쿠(帝国)광발	1	오시타니(オシ谷)규석채굴소	1
니혼(日本)소다츠(曹達)(주)	8	오쓰카(大塚)광업(주)	1
니혼(日本)수연	1	오카(大岡)탄광	1
니혼(日本)수은	1	오카자키(岡崎)공동(주)	1
니혼(日本)아연광업(주) [三井금속광업 소속]	3	오키우베(沖宇部)탄광(주)	1
니혼(日本)야금공업(주)	1	오토메(乙女)광업(주)	1
니혼(日本)전기야금(주)	1	오하마(大浜)탄광(주)	1
니혼(日本)정광(주)	1	오후야(大家)광업	1
니혼(日本)탄업(주)	2	오후케시(小針岸)금산(주)	1
니혼(日本)흥업(주)	1	오후쿠(於福)광산(주)	1
닛보(日寶)광업용역(주)	1	오히라(大衡)아탄(亞炭)	1
닛산(日産)화학공업(주)	6	와카세닌(和賀仙人)광산(주)	1
닛소(日曹)광업(주)	1	와카야마(若山)탄광	1
닛치쓰(日窒)광업개발(주)	11	와카오키(若冲)탄광	1
닛테쓰(日鐵)광업(주)	36	요시노(吉野)광업소	1
닛토(日東)물산(주)	1	요시아(吉谷)광업소	1
닛토(日東)문화공업(주)	1	요시오카(吉岡)광업	4
다나카(田中)광업(주)	8	요시하라(吉原)광업소	1
다로(田籠)광업(주)	1	우도(鵜峠)광산	1
다이니치(大日)광업(주)	1	우메가시마(梅ヶ島)광산	1

기업	소속 탄광산	기업	소속 탄광산
다이니혼(大日本)광업(주)	5	우베(宇部)광업소(주)	4
다이니혼(大日本)도로마이트광업(주)	1	우스이(臼井)규석채굴장	1
다이니혼(大日本)석유광업(주)	1	우시부카(牛深)탄광(주)	1
다이도(大同)식산(주)	1	우에다(上田)광업(주)	1
다이도(大同)제강(주)	2	우에다(上田)陶石(주)	1
다이세이(大星)광업소	1	우와(宇和)광업(주)	1
다이쇼(大昭)광업(주)	2	아사히(旭)硝子(주)	1
다이쇼(大正)광업(주)	2	유베쓰(雄別)탄광철도(주)	4
다시오(鯛生)산업(주)	1	이나가키(稲垣)광업(주)	1
다이와(大和)광산(주)	1	이나메(稲目)광업(주)	1
다이와(大和)水銀광업소	1	이노(飯野)탄광(주)	1
다이요(太陽)광업(주)	1	이노토(猪戸)김속광업(주)	1
다이토(大東)산업(주)	1	이누미(犬見)흥업(주)	1
다이토(大東)탄광(주)	1	이리아마(入山)채탄(주)/조반(常磐)탄광(주)	1
다이헤이요(太平洋)탄광(주)	3	이마이(今井)	1
다이호(大宝)광업(주)	1	이시하라(石原)산업(주)	6
다카야마(鷹山)광산	1	이와사와(岩澤)亞炭	1
다카하키(高萩)탄광	1	이와키(磐城)탄광(주)	1
다케야리(武鎗)탄광	1	이와테(岩手)탄광철도(炭鑛鐵道)(주)	1
데이코쿠(帝國)광업개발(주)	12	니혼(日本)코발트광업(주)	1
데이코쿠(帝國)사백김유한회사	4	닛주(日中)광업(주)	2
데이코쿠(帝國)産金興業(주)	1	제2신오키야마(新洲山)탄광조합	1
텐호쿠(天北)석탄광업(주)	1	조반(常磐)탄광(주)	7
도넨(動燃)	1	조선(朝鮮)정련(주)	1
도모토(堂本)硃石採掘所	1	조신(上信)광업(주)	1
도사(土佐)광산	1	(주)가마이시(釜石)광산	1
도사(土佐)석화공업	1	주가이(中外)광업(주)	10
도아(東亞)광공(주)	7	(주)구리무라(栗村)광업소	2
도아(東亞)광업(주)	2	(주)규석(硃石)채굴장	1
도와(東和)광업(주)	1	(주)기와다(喜和田)광산	1
도요사토(豊里)탄광	1	(주)데이코쿠(帝國)광업소	1
도요우라(豊浦)탄광	1	(주)멧코사(鐵興社)	1
도이(土肥)광업(주)	2	(주)시라네(白根)류항광업소	1
도이(土井)硃石광업소	1	주오(中央)광업(주)	2
도타쿠(東拓)탄광(주)	1	주오(中央)전기공업(주)	1
도호(東邦)석유(주)	1	(주)후지타구미(藤田組)	8
도호(東邦)아연(주)	3	지토세(千歳)광산(주)	1
도호(東邦)탄광/다가구라(高倉)광업(주)	2	치치부(秩父)시멘트	1
도호(東邦)탄광(주)	2	치하라(千原)광업(주)(三井계)	2
도호(東邦)탄광(주)/다카하키(高萩)탄광(주)	1	하기모리(萩森)탄광(주)	1
도호우에노(東邦上野)탄광(주)	3	하보로(羽幌)탄광철도(주)	2
도호쿠(東北)광업	2	하야시(林)광업소	1
도호쿠(東北)採炭	1	하타(幡多)광산	1
도호쿠(東北)興業(주)	1	해군 제4연료창	2

기업	소속 탄광산	기업	소속 탄광산
렌산(連山)광산	1	호쇼(宝生)산업(주)	1
마루고시(丸越)탄광	1	호슈(寶珠)광산	1
마루쇼카마도(丸昭釜戸)광업공동조합	1	호슈야마(寶珠山)광업(주)	1
마스토미(増富)광산	1	호조(鳳城)탄광(주)	1
마쓰시마(松島)탄광(주)	1	호코쿠시멘트(豊國セメント)(주)	1
마쓰오(松尾)광업(주)	1	호쿠세이(北星)광업(주)	1
마쓰우라(松浦)탄광(주)	1	혼고도(本後藤)광업(주)	1
마쓰하마(松浜)광산	1	홋카이도(北海道)광	1
메이세이(明星)시멘트(주)	1	홋카이도(北海道)류황(주)	1
메이지(明治)광업(주)	13	홋카이도(北海道)류황(주)/미쓰이(三井)광산	2
모리(森)광업(주)	1	홋카이도(北海道)사광개발	2
몬베쓰(紋別)철광 ■■■	1	홋카이도(北海道)탄광기선(주)	16
미나미이쿠치(南生口)광산	1	효고현(兵庫縣)亞炭(주)	1
미쓰비시(三菱)광업(주)	46	후쿠가와(古河)광업(주)	18
미쓰이(三井)광산(주)	19	후루타니(古谷)광업(주)	2
미쓰이(三井)광산(주)/마쓰시마(松島)탄광(주)	1	후소(扶桑)석면	1
미야가이(宮垣)규석공장	1	후지(富士)홍산(주)	1
미요시(三吉)광산	1	후카(布賀)광산	1
미요시(三好)광업	1	후카사카(深坂)탄광(주)	1
반자이(萬歳)동산광업소	1	후카에(深江)탄광(주)	1
벳시(別子)광업	1	후쿠시마(福島)형제상점	1
부도(蘆田)광업(주)	1	후쿠이(福井)탄광	1
호쿠신(北振)홍산(주)/가가(加賀)토석건설(주)	1	히가시키시마(東杵島)탄광(주)	1
사사호라(笹洞)광산(주)	1	히가시호로나이(東幌内)탄광(주)	1
사와라(早良)광업(주)	1	히구치(樋口)광업(주)	1
사자레(佐佐連)광업(주)	1	히노키(日の本)산업	2
사코시오토마리(坂越大泊)광산	1	히라키(平木)광업소	1
사토야마(里山)탄광(주)	1	히로세(廣瀬)광업	1
산교(産業)시멘트철도	1	히사쓰네(久恒)광업(주)	3
산요(山陽)무연탄광(주)	1	히요시(日吉)광산	1
산쿄(三協)	1		

\* 색 표시: 소속 탄광산이 10개소 이상인 기업

\* ■: 일본 정부 자료 원문 그대로, 식별할 수 없는 경우

작업장의 규모로는 니혼광업(주)이 가장 많은 수를 나타내고 있다. 지역적으로도 북쪽으로 홋카이도에서 규슈지역의 오이타현(大分縣)까지 24개 도도부현에 걸쳐 52개소의 탄광(4개소)과 광산(48개소)을 운영했다. 탄광도 운영했으나 광산에 집중했음을 알 수 있다. 광산의 채굴품은 금과 은도 있지만 주로 구리였다. 니혼광업(주)의 현재 회사명은 JX일광일석에너지(日鉱日石エネルギー)(주)이다.

[표 10] 니혼광업이 운영한 조선인 강제동원 일본 탄광·광산 지역별 현황

지역	작업장 수	지역	작업장 수	지역	작업장 수
北海道	7	茨城縣	2	山口縣	1
德島縣	5	靜岡縣	2	山形縣	1
愛媛縣	5	秋田縣	2	石川縣	1
高知縣	4	栃木縣	2	岩手縣	1
鹿兒島縣	3	宮城縣	1	岩手縣/秋田縣	1
福岡縣	3	岐阜縣	1	長崎縣	1
兵庫縣	2	大分縣	1	鳥取縣	1
福島縣	2	島根縣	1	青森縣	1
新潟縣	1				

니혼광업(주)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탄광과 광산을 운영한 미쓰비시광업(주)도 총 17개 도도부현에서 46개소의 탄광(18개소)과 광산(28개소)을 운영했다. 미쓰비시광업(주)이 니혼광업(주)에 비해 일본지역에서 운영한 탄광·광산이 적은 이유는 한반도와 남사할린, 동남아지역 등 작업장을 운영한 지역 자체가 일본에 국한하지 않고 넓었기 때문이다. 미쓰비시는 강제동원 노무작업장 총수로 보면, 일본 전체 기업 중에서 가장 많았다.

[표 11] 일본 주요 기업의 강제동원 관련 작업장 운영 실태(합자 포함)

구분	한반도	일본	사할린	동남아태평양	중국만주	소계
미쓰비시계	114	140	4	19	8	285
미쓰이계	129	62	4	20	4	219
일본제철계	25	68	2	2	3	100
스미토모계	32	51	1	3	5	92

미쓰비시가 여러 지역에 운영한 노무동원 작업장 가운데 다수는 탄광·광산이었다. 사할린이 100%(4개소), 한반도가 77.19%(88개소)로 집중되어 있고, 태평양지역도 11.8%(2개소)에 이르렀다. 그러므로 일본지역을 포함한 제국 일본 영역 전체로 확장해 보면, 가장 많은 탄광·광산을 운영한 기업은 미쓰비시이다. 미쓰비시광업(주)의 광산 운영 실태에 대해서는 제3장에서 상세히 언급할 예정이다.

스미토모광업(주)도 한반도와 일본, 남사할린, 동남아시아와 태평양, 중국과 만주까지 조선인 강제동원 작업장을 운영한 기업이었는데, 일본에서 운영한 탄광·광산은 37개소였다. 11개 도도부현에서 운영했는데, 홋카이도(12개소)와 에히메현(13개소)의 광산에 밀집되어 있었다. 스미토모광업은 전후 광산과 탄광을 분리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광산부문은 1937년 스미토모광업(주)을

1946년 세이카(井華)광업(주)으로 개칭한 후 1952년에 금속부문을 분리해 스미토모금속광산(주)으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탄광부문은 1952년 스미토모석탄광업(주)로 변경한 후 2008년 스미토모 Materials(주)로 바뀌었다.

닛테츠(日鐵)광업(주)은 11개 도도부현에 36개소의 탄광·광산을 운영했는데, 주로 나가사키(10개소)와 후쿠오카현(8개소) 중심이었다. 광종은 탄광이 17개소이고 광산이 19개소로 탄광과 광산의 비중은 큰 차이가 없었다. 철광석, 석회석, 구리가 광산의 주요 채굴품이었다. 닛테츠광업(주)은 지금도 동일한 회사 이름(日鐵광업(주), Nittetsu Mining Co., Ltd.)으로 운영 중이다. 모기업이었던 니혼(日本)제철은 2012년 10월에 스미토모와 합병을 해 신일철주금(新日鐵住金, 신일철주금이 닛테츠광업(주)의 주식 14.82%를 보유)이 되었다가 2019년 4월 1일자로 상호를 니혼제철로 변경했다.<sup>20)</sup>

미쓰이광산(주)은 15개 도도부현에 33개소(니혼광업과 공동운영 1개소 포함)의 탄광·광산을 운영했다. 광산이 20개소이고 탄광이 13개소이며, 주요 지역은 후쿠오카현(5개소), 홋카이도(5개소), 후쿠이현(福井縣, 4개소), 기후현(岐阜縣, 4개소), 구마모토현(熊本縣, 3개소) 등이다. 미쓰이광산(주)은 현재 미쓰이금속광업(주)(三井金屬鉱業, MITSUI MINING & SMELTING CO., LTD)로 운영 중이다.

## 2. 일본 광산 노동의 역사와 조선인 광부의 전환배치 실태

### 1) 일본 광산 노동의 역사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에서 광산을 채굴한 시기는 15세기경이다. 홋카이도 가메다군(龜田郡) 주변에서 사철(砂鐵)을 채취해 제련한 기록이 있고, 사도광산의 역사도 17세기초부터이다. 1601년 금광맥 채굴이 본격적으로 개시된 이후 도쿠가와(徳川)막부는 에도 막부를 연 1603년에 사도광산의 일부를 직영으로 지정했다.<sup>21)</sup> 금과 구리, 철강, 석탄을 비롯한 광물을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채굴한 것은 일본이 근대국민국가를 지향하며 산업화과정에 들어간 메이지 이후이다.

메이지유신 이후 일본의 광업은 기계와 서양식 기술에 의해 근대화가 시작되었다. 광산의 작업은 인력에서 기계로 이전했다. 메이지 초기부터 발파용인 다이나마이트와 암반을 뚫는 착암기가 광산 채굴의 효율화를 가져왔다. 광물에서 유용한 광석을 구별하는 선광과 광석을 금석으로 가공하는 제련 공정도 기계화를 촉진하면서 생산력을 강화했다.

메이지부터 쇼와 초기에는 석탄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석탄 자체의 수요도 늘었지만

20) 닛테츠광업의 창립 주체는 후쿠오카현의 후타세(二瀬)탄광이 창업 주체인데, 1899년 니혼제철의 전신인 관영 야하타(八幡)제철소의 원료부문으로 창립한 니혼제철 소속 기업이다.

21) 사도광산의 역사에 대해서는 제3장 제3절에서 상세히 언급

석탄을 사용한 증기기관을 산업의 여러 분야와 광산기계의 동력으로 활용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또한 전력도 기계의 동력원으로 보급되기 시작했다. 아시오동산은 일본 최초로 수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적극적으로 전력을 개발했다.

근대적 광산의 주력 생산 광물은 동으로 통신용 동선 등 산업 자재의 핵심이 되었다. 일본 국내 외에서 동에 대한 수요가 급속히 신장하면서 생산력을 높이기 위해 금과 은의 채굴로 변영했던 이와미은산 등이 동 중심으로 채굴 광물을 전환했다. 아시오동산, 벳시동산, 고사카광산 등 일본의 3대 동산은 세계 동 생산량의 5~7%를 차지했다.<sup>22)</sup>

메이지 이후 쇼와 초기까지 간략한 일본 탄광과 광산 주요 연표를 보면 다음과 같다.<sup>23)</sup>

1868년	메이지정부가 사도금산(佐渡金山), 이쿠노은산(生野銀山)을 직영
	프랑스인 기사 장 프랑스와 코와니에가 이쿠노은산의 근대화 추진
1872년	하마다(浜田)지진으로 이와미은산(石見銀山)의 갱도가 일부 붕괴
1873년	독일인 기사 쿠르트 아돌프 네트가 고사카(小坂)광산의 근대화 추진
	근대 일본 최초의 광업법 '일본갱법(日本坑法)' 공포
	정부가 미이케(三池)탄광을 직영
1874년	정부가 가마이시(釜石)광산을 관영 제철소로 지정
	프랑스인 기사 루이 라로크가 벳시(別子)광산의 근대화 추진
1875년	석회를 사용한 일본 최초의 시멘트 제조
1877년	후루카와 이치베(古河市兵衛)가 아시오동산(足尾銅山)을 매수해 재개발
1878년	사도금산이 일본 최초로 양식 입갱(立坑)인 오다테타테갱(大立堅坑) 개갱(수직 갱도에 광부와 광물 운반용 기계를 설치)
1880년	이쿠노은산에서 일본 최초로 다이나마이트 발파
1881년	사도금산에 일본 최초의 수입 착암기(削岩機) 설치
1884년	후루카와 이치베가 인나이은산(院内銀山) 매수
1885년	후루카와 이치베가 아니광산(阿仁鉱山) 매수
1886년	아시오동산에 민간 최초로 사설 전화 설치
1887년	하시마탄갱에서 제1 견갱(堅坑) 개갱(전장 약 44미터)
1889년	사도금산을 황실 재산으로 전환
	인나이은산 최성기(1904년)까지 연평균 산은량(産銀量) 약 11톤
1890년	일본내의 광산에 수입 착암기 보급이 시작되다.
1890년	아시오동산 광독(鉱毒)문제
	아시오동산에 일본 최초의 수력발전소 마도(間藤)수력발전소 개설
	벳시동산에서 철도 부설 개시
1891년	아시오동산에서 일본 최초의 전기기관차 개통
	다나카 쇼조(田中正造)가 아시오동산의 광독문제를 제국의회에서 질문
	니가타현 아마세(尼瀬)에서 일본 최초의 해저 유전의 기계 굴삭
	미이케탄광 전용 철도가 전선 개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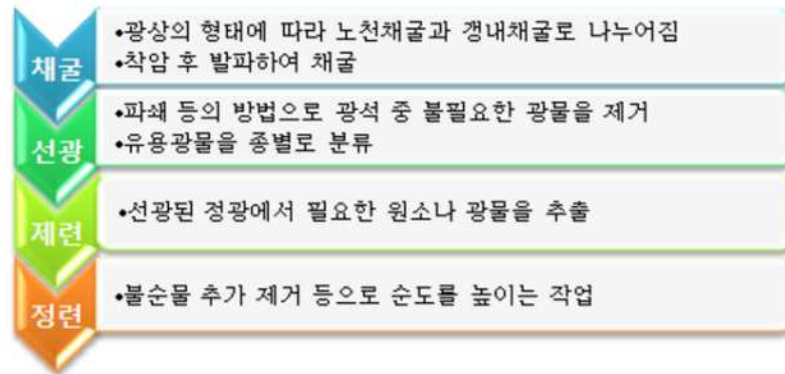
22) 大野達也 編, 『鉱山をゆく』, イカロス出版株式会社, 2012, 64쪽

23) 大野達也 編, 『鉱山をゆく』, イカロス出版株式会社, 2012, 64~65쪽



	지바현 오타키(太多喜)에서 천연가스 용출(일본 최초의 수용성 천연가스)
1893년	아시오동산에서 제련에 벳세마식 전로(轉炉)를 실용화. *벳세마식 전로 : 녹인 광물에 산소를 집어넣어 산화환원반응으로 불순물을 제거하는 전화로(轉換炉) 홋카이도 오사리자와(尾去沢)광산에서 화력발전소 건설
1894년	오사리자와광산이 전기 권양기(卷揚機)를 설치(갱도 내의 광부와 광석을 외부로 운반하는 기계의 동력으로 전기를 사용)
1895년	하시마탄갱에서 제2 견갱 개갱(전장 약 168미터)
1896년	아시오동산에 광독 예방 공사 명령(1903년까지 모두 5차례 명령)
1897년	벳시동산 최성기(연간 산동량(産銅量) 약 3500톤) 아시오동산 갱내에 일본 최초의 전기기관차 운행
1901년	다나가 쇼조가 아시오동산 광독문제를 천황에게 직소
1902년	아시오동산, 벳시동산, 고사카광산이 연간 산동량으로 일본 3대 동광산이 되다 미케탄광에서 만다갱(万田坑, 제1 견갱) 개갱 아시오동산의 연해(煙害)로 마쓰기마을(松木村, 현재 도치기현 니코시) 폐촌
1906년	하세카와 게이고로(長谷川銑五郎)가 도이금산(土肥金山) 재개발 인나이은산에서 갱내 화재(사망자 100명 이상)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으로 철·동의 수요 증가 아시오동산이 일본 최초의 국산 착암기 개발
1915년	이쿠노은산에서 부유선광소(浮遊選鉱所) 건설 고노마이(鴻之舞)광산(금, 은, 동 등) 채굴 개시
1916년	하시마에 일본 최고의 철근콘크리트 아파트 건설
1917년	이와미은산의 동생산량 최성기(연간 산동량 약 477톤)
1920년	구시로(釧路)탄광과 미쓰이광산이 합병하여 태평양탄광 창업
1921년	『長崎日日新聞』이 하시마탄갱을 '군함도'로 소개 인나이은산 휴산(休山)
1923년	이와미은산 휴산
1925년	하시마탄갱에서 제4 견갱 개갱(전장 약 353미터)
1931년	일본 최초의 천연가스회사 '오타키천연가스주식회사' 설립
1933년	아니광산에서 새로운 니쥬시고금산(二十四孝金山) 채굴 개시
1934년	인나이은산의 채굴 재개
1936년	오사리자와광산의 나카자와고사이(中沢鉱滓)댐 폭발(사망자 374명)
1937년	일본 내 석회석 연간 산출량이 1000만톤 돌파
1938년	사도금산에 동양 최대의 부유선탄장 건설
1939년	하시마에 조선인 노동자 집단 동원
1940년	아시오동산에 조선인 노동자가 증가하기 시작 일본 석회석의 연간 산출량이 일본 사상 최고를 기록(약 5631톤)
1941년	태평양전쟁의 발발로 동의 산출 증가
1942년	이와미은산의 재개발을 시도했지만 대수해로 갱도가 수몰되면서 단념
1943년	금산 정비령(일본 금산사의 전환기) 오사리자와광산 최성기(월간 산동량 약 10만톤) 이와미은산 폐산

1941년 태평양전쟁으로 확대되면서 동 의 수요가 증대되자 당국은 금산의 노동력과 광산기계를 동, 석탄 등의 탄광산으로 전용하기 시작했다. 1941년 무렵 일본 국내의 각 금산은 정부의 채굴 장려로 과열 상태였는데, 금산정비령으로 금 이외에 동 등의 중요 광물을 산출하는 광산은 조업을 인정했지만 금산은 거의 모두 폐산했다.



[그림 6] 산의 기본 채광 과정(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전라남도 해남 옥매광산 노무자들의 강제동원 및 피해실태 기초조사 보고서』, 2012, 19쪽)

광산은 광상의 형태에 따라 노천과 갱내채굴로 구분된다. 갱내채굴의 경우에는 굴진(掘進) 방식을 택하게 된다. 일반적인 광산의 채광 과정은 채굴→선광→제련→정련 등 4단계를 거친다. 채굴은 착암(鑿巖) 후 화약과 전기 등으로 발파하고, 채굴된 광석은 파쇄작업을 통해 선광하게 된다. 선광작업은 광석에 섞여 있는 불필요한 광물을 제거해 광석의 품위(品位)<sup>24)</sup>를 높이고 유용 광물을 종별로 분류하는 작업이다. 제련은 선광된 정광(精鑛)에서 필요한 광물이나 원소를 추출하는 작업이다. 필요에 따라 불순물을 더 제거하고 순도를 높이기 위한 정련 과정을 거치게 된다.

메이지 이후 일본 광산업계는 나야(納屋)제도와 함바(飯場)제도를 대표적인 노무관리 제도로 운영했다. 주로 석탄광산에서는 나야제도를, 금속광산에서는 함바제도를 적용했는데, 본질적 차이는 없다. 이들 제도의 특징은 노무계에 속한 나야가시라와 함바가시라(飯場頭)가 광부의 모집과 생활 관리, 채굴 및 채탄 등의 작업 청부, 임금의 일괄 관리를 담당한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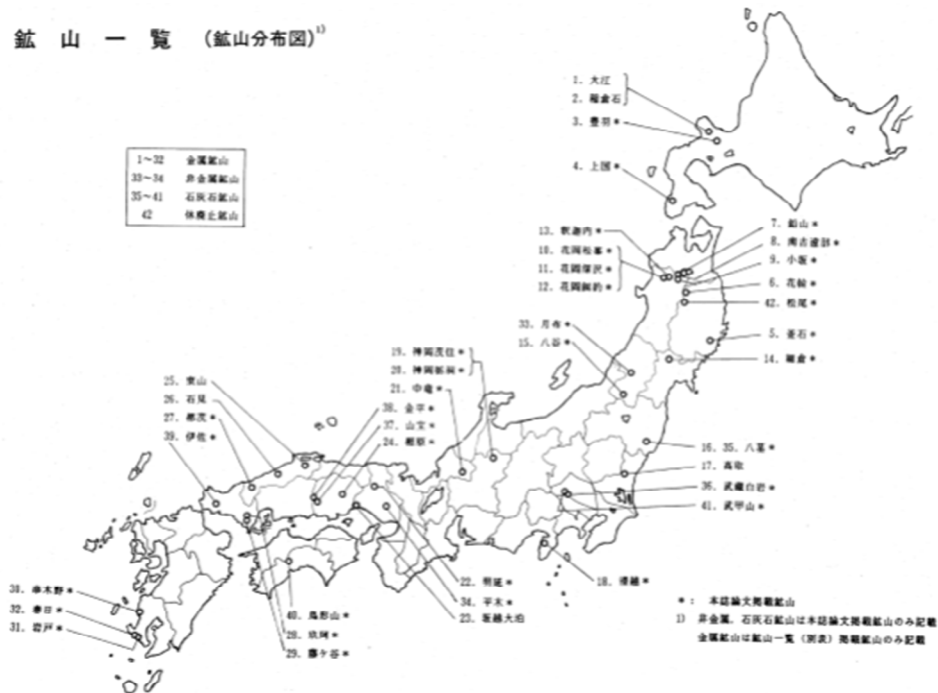
이 제도는 노무계 → 주선인(또는 세화방) → 나야가시라(納屋頭), 함바가시라(親方, 오야카타) → 히도쿠리(人繰り) → 갱부(子方, 고가타)로 이어지는 중층적 고용관계이다. 나야가시라는 오야카타(親方)이라고도 하는데, 노무공급청부업자로서 갱부인 고가타(子方)를 관리하는 중층적 고용관계이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연상하는 오야카타와 고가타 관계는 가족 같은 유대감이 연상

24) 광석에 함유된 유용광물의 실수량을 바탕으로 하는 광석 등급

되지만 실제로는 의사(疑似)가족관계를 표방한 착취구조였다.

1888년 잡지『일본인』에 마쓰오카(松岡好)의 르포 「다카시마(高島) 탄광의 참상」이 실리면서 나야제도의 실태와 부작용이 세상에 알려졌다. 나야제도의 폐해는 당시 사회 문제가 될 정도였으므로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노동조합이 이들 제도의 철폐 운동을 해서 공식적으로는 사라졌으나 실제로는 1930년대까지 한인 갱부들을 옥죄는 제도로 활용했다. 일본의 전시체제기에도 여전히 탄광산 현장에서 사라지지 않았다.<sup>25)</sup>

탄광산 노동은 탄광부들에게 후유증을 남겼다. 대표적인 후유증은 진폐증이다. 당시 일본에서는 규폐증이라고 불렀다. 규석이 원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폐의 원인은 규석에 포함된 규산 외에 석면, 시멘트, 철, 보크사이트 등 분진도 있다. 일본은 1930년 「광산법」에 의해 규폐를 직업병으로 인정했고, 1960년에 명칭이 진폐로 바뀌었다.



[그림 7] 1983년 기준 일본 광산 전국 분포 현황(『일본광업회지』100, 1984, 193쪽)

광산에 종사한 광부들은 여러 원인으로 진폐증에 시달렸다. 갱내에서 암석을 다이내마이트로 폭발할 때 산산조각이 난 돌이 먼지가 되어 공기 중에 떠돌게 된다. 먼지는 3~5 마이크론 정도로 아

25) 상세한 내용은 大山蔵太郎, 『鑛業労働と親方制度』, 有斐閣, 1964, 30쪽; 藤原 彰・今井清一・大江志乃夫, 『近代日本史の基礎智識』, 有斐閣, 1972, 160~161쪽; 정혜경, 「식민지 시대 아소(麻生)탄광 재일조선인노동쟁의」,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대학원논문집』7, 1992, 74~77쪽

주 미세해서 눈으로 보면 연기처럼 보일 뿐이다. 50cm 높이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데 2시간이나 걸릴 정도로 아주 가벼운 가루인데, 인간이 그 먼지 안에서 작업을 하면 먼지는 다시 공중으로 떠다니게 된다. 연기처럼 보이는 가루는 현미경으로 보면 창처럼 끝이 뾰족하다. 이 분진이 폐를 찌르면서 다량 축적됨에 따라 폐가 딱딱하게 굳어지는 것을 섬유화한다고 한다. 이 상태에서는 이산화탄소와 산소의 교환이 어려워지고 호흡이 곤란해진다. 이것이 진폐증이다.

일본의 주요 광산은 작업 공정의 개선을 통해 진폐증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자체 병원이거나 요양소 설립으로 대체했다. 사도광산에도 병원과 요양소가 있었다. 이러한 조치는 대외적으로 광부 처우에 노력함을 과시하는 효과는 있었지만 진폐증 완화나 예방과는 무관했다.

일본 패전 후 광산의 현황은 어떠한가. 1984년에 일본광업회지가 발표한 일본 전국의 광산 분포 현황을 보면 41개 사업소이다(그림 7).

## 2) 1943년 금광업조정령에 의한 조선인 광부의 전환배치 실태

총동원 전쟁에서 국가 권력에 의한 인력과 물자의 공급은 필수요소이다. 유럽에서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일과 이탈리아는 물론이고, 아시아태평양전쟁을 일으킨 일본 당국도 제1차 세계대전 직후 인력과 물자의 공급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총동원 체제의 수립이다.

일본은 제1차 세계대전을 통해 자국과 식민지 등 제국의 모든 인력과 물자, 자금을 총동원하는 ‘총력전’ 사상을 접했다. 총력전 사상이란, 제1차 세계대전 후 세계적으로 확산된 근대 전쟁관이 다. 제1차 세계대전 말기 프랑스가 총력전(guerre totale) 용어를 사용한 후 1935년 독일에서 『총력전』을 출판했고, 1937년에 영국에서도 ‘total war’를 사용했다. 총력적이라는 용어가 세계적으로 확산한 것은 1930년대 후반이었으나 총력전 사상의 출발 시기는 제1차 세계대전이었다.

제1차 세계대전을 통해 총력전 개념이 출현하게 된 이유는 이전과 다른 전쟁 상황 때문이었다. 이전에는 병사들의 전투가 중심이었으므로 병사의 질과 양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을 통해 대형 폭탄과 기관총·전차 등 대량 살상 무기가 발달했다. 이에 따라 전투원들의 희생은 폭발적으로 늘었고, 많은 탄약과 연료가 필요했다. 많은 무기와 연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국력이 뒷받침되어야 했다. 우수한 무기를 생산할 기술력도 필요했고, 자금도 필요했다. 외교력도 뛰어나야 했고, 자국 국민들이 전쟁을 감수할 의지도 있어야 했다. 국민들은 전쟁 승리를 위해 내핍(耐乏)의 생활을 감수해야 하고, 군수공장에서 일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러므로 각국은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을 설득해야 했다. 이제 전쟁은 전선의 문제나 우수한 병사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같이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전쟁은 군사, 정치, 경제, 사상, 문화 등 국가의 총력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sup>26)</sup>

제1차 세계대전 참전을 통해 새로운 전쟁의 양상을 확인한 일본은 총동원체제 만들기에 뛰어들

26) 정혜경, 『일본의 아시아태평양전쟁과 조선인 강제동원』, 동북아역사재단, 2019, 70~72쪽

었다. 1918년 12월 육군임시군사조사위원회 제2반은 국가총동원 개념을 담은 문서「전 제국의 육군에 대하여」를 작성했다. 문서에서 밝힌 국가총동원은 국민동원과 공업동원을 포함해 병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담았다. 내각은 제1차 세계대전이 진행 중이던 1918년 4월 육군의 독려 아래 「군수공업동원법」을 제정했다. 총력전 수행을 위해 평상시부터 전 국가의 자원을 조사하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보급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법이었다. 제9조에 '징용제의 실시'라는 규정이 있었다. 그리고 6월 1일, 군수국을 신설해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제1차 세계대전 종결 후 일본의 국가총동원 체제 만들기는 계속되었다. 1919년 12월에는 「군수조사령」을 제정하고 '조선과 타이완'을 대상 지역에 포함했다. 1924년 3월 육군이 수립한 「대정 13년도 육군군수공업동원 중앙계획안」에 일본총동원체제의 구상을 마련했다. 1925년 4월 국가총동원기관설치위원회를 설치했고, 1929년에 자원조사법을 제정했다. 이러한 행보는 아시아 침략 과정을 통해 더욱 빨라졌다. 일본 자원국은 1930~1932년에 참정총동원기간계획 및 1932~1933년간 응급총동원계획, 1934~1935년간 제2차 총동원기간계획 등을 책정했다. 물론 중일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실시하지 않았다. 1936~1938년간 책정한 제3차 총동원기간계획을 중일전쟁 시기에 일부 실시했으나 본격적 개시는 1938년이다. 1937년 중일전쟁 발발 후, 1938년 4월 국가총동원법을 제정해 국가총동원체제를 확립했다.<sup>27)</sup>

이같이 총동원 체제에서 인력과 물자는 조달의 토대가 있어야 하므로 일본은 본토와 식민지·점령지에서 수급이 가능한 물자를 조사하고 인적자원에 대한 조사도 실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일본 본토와 식민지·점령지의 물자와 인력은 필요한 지역에 적정한 인원과 물량을 제공해야 했다.

총동원 전쟁은 대규모 인력을 요구한다. 전장에서 대규모 교전군들이 전투를 하기 위해서는 병사의 12~13배에 해당하는 후방 노동력이 필요하다. 이들은 대병력이 소모하는 군수품을 보급하는 중차대한 역할을 담당하는 산업군(産業軍)이다. 그러므로 전쟁을 수행하는 주체라면 당연히 대규모 병력 외에도 물자를 원활하고도 적절하게 조달하는 후방 노동력과 이를 적시에 수송하는 방법에 노력을 기울인다. 군수품 보급은 노동력과 물자의 적절한 조화가 열쇠이다.

일본 당국은 아시아태평양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제국 영역 전체를 대상으로 총동원 체제를 운영했다. 운영 흐름은 '자원조사에 의한 현황 파악 → 수요 결정 → 계획 수립(동원 및 배분의 범위·규모의 결정) → 자원 동원 → 자원 배분' 순이다. 총동원 체제는 총동원계획과 동원 관련 법령, 운영기구의 세 가지를 기본 축으로 한다.<sup>28)</sup> 이 가운데 총동원 체제 형성의 설계도이자 체제운영의 지침이라 할 수 있는 총동원계획은 물자와 인력, 자급에 대한 유기적인 시스템과 종합적인 구도 아래 실시했다.<sup>29)</sup>

27) 안자코 유카, 「조선총독부의 「총동원체제」(1937~1945) 형성 정책」, 고려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6, 23~24쪽, 34쪽, 표1-2.

28) 안자코 유카, 「조선총독부의 총동원 체제(1937~1945)형성 정책」, 고려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6, 11, 32쪽

29) 상세한 내용은 原朗, 「初期物資動員計劃資料解説」, 『初期物資動員計劃資料』(原朗·山崎志郎 編, 現代史料出版, 1997) 참조

총동원계획 총괄 부서는 자원국기획원·군수성이지만, 실행은 물자동원·생산력 확충·자금통제·노동력 동원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있으므로 내각 전체에 해당하는 일이었다. 이 가운데 전환배치는 총동원계획의 네 분야 가운데 생산력 확충과 노동력 동원이라는 두 가지 분야에 해당하는 일이었다.

총동원 체제에서 '인력과 물자의 적재적소 공급'은 전세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일관된 원칙이었다. 1931년 만주 침략 이후 1937년 중일전쟁을 통해 아시아에서 시작된 일본의 침략전쟁은 당국과 민중의 기대와 달리 전선이 급속히 확대되고 장기전으로 접어들었다. 이에 일본 당국은 전세의 변화에 따라 동원된 노무자를 다른 작업장으로 전환배치했다. 이같이 전환배치는 일본 당국의 정책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그 궤적을 공적 기록에서 찾을 수 있다.<sup>30)</sup>

큰 틀에서 전환배치의 법적 근거는 국가총동원법과 국민징용령이다. 1938년 5월부터 일본과 조선 등지에 적용된 국가총동원법은 '인적·물적자원의 통제 운용'을 규정했으므로 큰 틀에서 전환배치의 법적 근거라고 할 수 있다. 국가총동원법에 근거해 제정되어 1939년 7월 15일부터 적용된 국민징용령은 인적동원을 위한 통제법령이다.<sup>31)</sup> 국민징용령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특정 작업장에 징용된 인력이 당국의 필요에 따라 전환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때 당국은 징용변경서를 교부해 수속을 밟는데, 특정 기업이 자의적으로 전출 수속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sup>32)</sup>

구체적으로는 1941년과 1943년의 각의결정 및 국민징용령 제1차 개정(1940년 10월 20일자)에 명시된 현원징용에 관한 규정이 해당된다. 먼저 각의 결정을 보면, 1941년 6월, 독소개전(獨蘇開戰)이 일어나고, 일본이 태평양전쟁을 목전에 둔 시기에 1941년도 노무동원 계획이 전면적으로 수정되었다. 8월 29일 각의 결정 「노무긴급대책요강」은 이러한 분위기를 잘 반영한다. 노무긴급대책요강의 큰 틀은, '근로보국정신의 양양(昂揚), 노무의 재배치 및 직업전환, 중요산업요원 충족을 위한 국민등록제 확충과 국민징용제 개정, 근로 조직 정비, 노무배치 조정을 위한 법령 정비(중업자이동방지령과 청소년고입제한령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령을 제정), 근로봉사의 제도화' 등이다. 이 가운데 '노무 재배치 및 직업전환'의 규정은 이후 제국 일본의 각 지역에서 실시된 '전환배치'의 근거이기도 하다. 1943년 1월 20일자 각의결정 「생산증강근로대책긴급요강」을 구체화한 1943년도 국민동원계획에는 노무공급원의 확충과 적정배치를 기하기 위한 여러 조치가 반영되어 있는데, 대표 사례가 '배치전환의 강제'이다.<sup>33)</sup>

또한 총 26개 조항 가운데 15개 조항이 제·개정된 국민징용령 1차 개정 가운데 대표적인 조항은

30) 전환배치란 단순히 작업장을 옮기는 행위가 아니라 국가권력에 의한 공식적인 조치이므로 이 글에서는 역사성을 고려해 전환배치로 표기한다. 다만 작업장을 옮기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전출과 전근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31) 국민징용령은 총 4회 개정을 거쳤다. 1940년 10월 16일 제1차 개정(칙령 제674호)과 1941년 12월 15일 제2차 개정(칙령 제1129호), 1943년 9월 1일 제3차 개정(칙령 제600호), 1944년 2월 12일(칙령 제89호) 제4차 개정

32) 國民總力朝鮮聯盟, 『國民徵用の解説』, 1944.10, 36쪽

33) 생산증강근로대책긴급요강은 제2항 국민근로의 중점적 배치 강화절차 및 제1절에 전환배치 강화와 관련한 방침을 명시했다. 각의결정 원문은 [http://www.ndl.go.jp/horei\\_jp/kakugi/kakugi\\_main.htm](http://www.ndl.go.jp/horei_jp/kakugi/kakugi_main.htm) 참조

"군사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전항(前項)의 규정에 구애받지 않고 명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요신 고자 이외의 자를 징용할 수 있음"(제3조, 추가 조항)과 "후생대신 전후의 규정에 의한 청구 또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피징용자를 사용하는 관아 또는 관리공장, 피징용자가 종사하는 총동원업무, 직업 또는 장소, 또는 징용의 기간을 변경할 수 있음"(제13조)등이다. 제13조는 이후 '현원징용', 또는 '현인원징용'이라 불리는 징용의 근거이다. 이러한 인력통제 및 운용에 관한 일본의 법적 근거에 의해 인력의 전환배치가 가능했다.

전환배치는 특정 지역의 특성이 아니라 총동원전쟁수행과정에서 인력과 물자수급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의 일환이다. 그러므로 제국 일본의 전체 영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직종도 주요 국책·군수산업인 광산과 탄광, 제철회사 등 광범위했다. 이 가운데 일본지역 광산의 주요한 전환배치 사례는 1943년 3월에 홋카이도 소재 광산에서 홋카이도 관내 광산 및 탄광과 도치키, 아키타, 에히메, 나라(奈良)현으로, 시즈오카(靜岡)현 소재 광산에서 이바라키, 야마가타(山形)현으로, 효고(兵庫)현 소재 광산에서 이바라키현으로, 도치키현에서 이바라키현으로 전환배치 사례이다.<sup>34)</sup>

1945년 일본 패전에 임박해 사도광산의 광부들을 군긴급공작대라는 이름 또는 전국광산특별정신대라는 이름으로 후쿠시마현의 나카지마(中島)비행기회사 지하공장 건설공사장이나 사이타마현(埼玉縣)의 나카지마비행기·히타치(日立)항공기회사, 군 지하시설공사장 등으로 전환배치한 사례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보고서 제3장에서 언급하고자 한다.

현재 밝혀진 가장 대표적인 조선인의 전환배치 사례는 남사할린의 조선인 탄광부 전환배치이다. 1944년 8월 11일 각의결정 「화태(樺太) 및 구시로(釧路) 탄광근로자, 자재 등의 급속전환에 관한 건」을 근거로 실시했다. 전환배치의 대상 지역은 남사할린에 국한하지 않았다. 홋카이도 구시로 탄전 소속 조선인 노무자들을 일본 본토의 규슈지역으로 전환배치시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sup>35)</sup>

구시로 탄전이 1944년 8월에 전환배치가 이루어졌다면, 이전 시기에 실시된 대표적인 사례는 광산에서 이루어진 전환배치이다. 지역으로는 홋카이도와 도치키, 시즈오카, 이바라키, 에히메현 등 모든 광산이 해당된다. 주로 홋카이도 광산 소속 노무자들을 도치키와 에히메, 나라현으로 전환배치했고, 시즈오카와 이바라키현 광산 소속 노무자들도 야마가타현 등지로 전환배치했다. 소수이지만 도치키현 관내 광산 노무자들을 이바라키현으로, 오이타현 아사히(旭)금산에서 미에현(三重縣) 기슈(紀州)광산으로 전출하기도 했다. 이 가운데 대규모로 조선인 전출이 이루어진 지역은 홋카이도이다.

34) 일본 지역 주요 광산의 전환배치에 대해서는 정혜경, 「전시체제기 일본 본토 조선인 노무자의 '전환배치' - 광산 명부를 중심으로」(『한일민족문제연구』17, 2009), 남사할린 탄광의 전환배치에 대해서는 정혜경, 「1944년에 일본본토에서 '전환배치'된 사할린(樺太)의 조선인 광부」(『한일민족문제연구』14, 2008) 참조

35) "휴·페지, 보갱(생산보류) 탄광은 사할린 14개소, 구시로(釧路) 8개소. 전환대상자는 사할린 9,000명(반도노무자 3,000명), 구시로 6,000명(반도노무자 3,000명). 전환지역 : 사할린 → 후쿠시마, 이바라키, 규슈(이상 조선인 포함), 홋카이도(일본인)/ 구시로 → 규슈(조선인 포함), 후쿠시마, 이바라키(이상 일본인). 전환 배치지역에 대해서는 변동이 가능함." 長澤秀 編, 『樺太廳警察部文書 戰前朝鮮人關係警察資料集Ⅳ』, 綠蔭書房, 2006, 256~259쪽

[표 12] 홋카이도의 금속광산별 노동자 현황과 조선인 재적 비율(단위 : 명/%)

종별		재적노동자수		조선인수(1941.5.말)				조선인수		
사업장이름		1936년	1938년	일본인	조선인	합계	비율	1942.6.말	1943.5.말	1944.6.말
日本 광업	大盛광산	-	-	338	205	543	37.8		휴산	
	徳星광산	278	302	266	78	344	22.7		휴산	
	北隆광산	320	381	325	42	367	11.4		휴산	
	豊羽광산	-	-	742	449	1,194	37.7	665	583	수몰
	恵庭광산	-	-	42	96	140	70.0		휴산	
	大金광산	258	235	389	76	465	16.3		휴산	
	大江광산								160	
中外광업 八雲광산		145	121	104	47	151	31.1	73	84	80
千歳광업 千歳광산		516	465	532	165	697	23.7		휴산	
鐵興社 稻倉石광산		172	179	265	180	445	40.0	163	186	
田中광업 轟광석		565	528	269	13	282	4.6		휴산	
田中광업 張碓광산									17	
小鉾岸 小鉾岸광산		47	75	97	53	150	35.3			
三菱 광업	手稻광산	282	647	776	413	1,189	34.8	349	411	
	新下川광산									398
靜狩金山 靜狩광산		538	861	896	415	1,311	31.7		휴산	
本後藤 新日東광산		102	110	110	20	130	15.4	17	16	
住友	鴻之舞광산	1,244	1,271	2,591	815	3,406	23.9	1,384	휴산/26	100
	國富광산								11	
일본 제철 광업	上喜茂別광산							5		50
	俱知安광산							41	202	
	徳舜瞥광산								89	
野村광업 이도무카광산								35	215	
북해도유항 幌別광산								3	7	
일본수은 幌加內평화광산								50		
제국 광업 개발	玉川광산								27	
	十勝광산								8	
	天塩광산								7	
石崎 錢龜澤광산									4	
山部석면광산									55	
扶桑石綿布部광산									2	
藤田組常呂광산									53	
富本糠平광산									39	
八田광업소 八田광산									7	
三井광산 珊瑚광산								30	휴산	

자료 : 朝鮮人強制連行實態調査報告書編輯委員會 札幌學院大學北海道委託調査報告書編輯室, 『北海道と朝鮮人労働者 - 朝鮮人強制連行實態調査報告書』, 1999, 138, 164~179, 298쪽

홋카이도의 금광산 현황을 보면, 1927년 현재 금은광산 27개소(湯之澤광산, 戸井광산, 姫山광산, 國富광산, 轟광산, 美利河광산, 星野千走광산, 湯之澤광산, 歌棄광산, 蘭越광산, 喜多광산, 鴻



之舞광업소, 雄武威광산, 昭和광산, 北之王광산, 沼之上광산, 白龍광산, 北隆광산, 少牛광산, 日東광산, 八田광산, 珊瑚광산, 根室광산, 靜狩광산, 俱知安광무소, 喜茂別광산, 鉛川광산), 유향 7개소(鹿部광산, 惠山광산, 赤井川광산, 岩雄登광산, 登別광산, 幌別광산, 寶沼광산), 기타 1개소(砂白金광업), 석유 8개소(石狩광산, 望來광산, 北海道제유소, 厚真광산, 振老광산, 増幌광산, 雉內광산, 幌延광산)이다. 이들 금광산은 이후 변천을 거쳤는데, 전시체제기에 조선인 광부를 가동한 주요 금속광산의 노무자 가동현황을 보면, [표 12]와 같다.

일본인과 조선인을 비교할 수 있는 1941년 통계를 보면, 가장 많은 조선인 노무자가 일을 하던 광산이자 일본인 노동자를 포함해 가장 많은 재적인원수를 가진 광산은 스미토모 고노마이(鴻之舞)광산이다. [표 1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41년 조선인 가동 작업장은 15개소이고, 1942년 11개소, 1943년 22개소, 1944년 4개소이다. 1942년 6월 말은 가동 작업장이 줄어들었으나 고노마이광업소 소속 조선인은 1,384명으로 최대 수치를 보였고, 1943년 5월 말은 가장 많은 작업장 수치를 보였으나 홋카이도 관내 전체 가동 조선인수는 격감했다.<sup>36)</sup> 이는 전환배치 조치와 관련이 있다.

상공성은 전국 주요금광산대표자들에게 1942년 11월 30일 상공성이 발표한 「금광업조정령」에 의한 금광산의 보·휴·폐광과 '설비 및 노동력의 배치전환 등'에 관한 내시(內示)를 거쳐 12월 26일 정식으로 보·휴·폐광을 명령했다. 이어서 1943년 1월 각의결정 '금광업정비에 관한 건'에 의해 전국 금속광산에 내려진 '금광산정리에 따른 종업자배치전환취급요령'(이하 취급요령)에 의해 배치전환계획에 착수하게 되었다. 4월 1일자 「금광업정비령」 실시에 따라 홋카이도 내 30개 금광산이 일제히 폐산식을 했다. 이어서 보갱광산 2개소와 기타 2개소를 제외한 모든 금광산은 휴산 조치의 대상이 되었다.

취급요령은 1. 종업자의 이산방지, 2. 종업자의 배치전환, 3. 급여 관계, 4. 응소입영 중 종업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조치, 5. 직업원호 등 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sup>37)</sup> 이를 통해 금광산 종업자 전환배치 정책의 원칙과 구체적인 실천 방향을 알 수 있다.

당국의 금광업정비방침은 '특정중요광물의 급속증산에 대처하고 동, 구리, 아연, 수은, 철, 망간 등 중요광물의 생산을 확보하기 위해 <중략> 금광업의 정리를 단행'한 정책이었다. 조선인 노무자의 배치전환에 대해서는 취급요령에서 '기간 만료가 가까운 자는 가능한 한 기간을 연장하여 전환 취직을 지도'하고 '협화회를 통해 협력하도록' 했다. 또한 '소화 16년도 노무동원실시계획에 의한 조선인 노무자의 내지이입요령실시세목'에 정해져 있는 사업장 이동에 관해 조선총독부와 협의가 '필요하지 않은 사안'으로 규정했다. 협의 없이 이동 배치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고노마이광업소 관련 문서를 근거로 한 모리야 요시히코(守屋敬彦)의 연구에 의하면, 이로 인

36) 홋카이도 금광산 소속 조선인 수는 1942년 11월에 4,000명을 넘어섰고, 전환배치가 단행되기 직전인 1943년 3월말 현재 조선인수는 8,377명으로 최대를 기록했다. 朝鮮人強制連行實態調査報告書編輯委員會・札幌學院大學北海道委託調査報告書編輯室, 『北海道と朝鮮人労働者 - 朝鮮人強制連行實態調査報告書』, 1999, 139쪽

37) 守屋敬彦 編, 『戰時外國人強制連行關係史料集 - 朝鮮人2, 下』, 明石書店, 1991, 1931~1964쪽

해 고노마이광업소에서 일을 하던 조선인 1,168명(가족구성세대 116호)과 가족 359명 등 총 1,527명이 홋카이도 폰베쓰(奔別)탄광과 아키타현 소재 하나오카(花岡), 후루카와(古河)광업소, 에히메현 벳시(別子)광산, 가나야후치(金屋淵)광업소(奈良현 소재)로 전출했다. 그 외 일시귀선 중 미복귀자 10명은 해고조치를, 질병요양중인 112명 가운데 일부는 귀선(歸鮮)조치했다.<sup>38)</sup> 이 숫자는 명부에 기재된 1,186명과 차이를 보인다. 그 이유는 홋카이도 이나우시(伊奈牛, 일명 北見광산)광산 17명을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sup>39)</sup>

시즈오카현 소재 가와즈광산의 연혁을 간략히 살펴보면, 17세기경에 가와즈광산 렌다이지(蓮台寺)광의 채굴을 시작했으나 본격적인 광업은 1910년대에 시작했다. 1914년에 구하라(久原)광업주식회사가 매수했는데, 1929년에는 명칭을 일본광업주식회사로 변경하고, 일본광업(주) 가와즈광업소를 설립했다. 렌다이지광에서는 1940년부터 조선인 노무자를 강제동원했으며 1943년 「금광산정비령」에 의해 채굴을 중지했다. 가와즈광업소에 입산한 조선인들은 경기도 여주, 충북 청주, 경남 진양, 진주 출신이다. 일본 내무성 자료에 의하면, 가와즈광업소에서는 1940년 4월 20일 노무감독 경질을 요구하는 조선인 노동자 파업이 일어나기도 했다. 일본광업(주)은 렌다이지광 외에 고마쓰노(小松野)광 등 6개광(須崎광, 白浜광, 大峰광, 大松광)을 소유하고 있었다.<sup>40)</sup>

일본 본토에서 실시된 조선인 광산 노무자의 전환배치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3] 일본 본토 광산의 조선인 노무자 전환배치 1,430명 현황(단위 : 명/%)

전환배치 이전		전환배치 이후			직종	관련 자료	계열
지역	작업장	지역	작업장	인원수 <sup>41)</sup>			
홋카이도	스미토모滿之舞광업소	도치기	古河(足尾)	371	광산	주식회사住友本邦日本광업소鴻之舞광산 생산 명부(소위 조선인정용자등에 관한 명부, 조선인노동자에 관한 조사결과 수록), 昭和18년 3월 금광산 후배산조치에 의한 전환 배치에 따른 각종수당지급일람표, 이주노무자來山가족명부, 노동재해조우기록, 스미토모 고노마이광산伊奈牛광산八十士광산으로 강제연행자 명부, 고노마이광업소에서 전환배치 후 사망한 자, 1942年度 半島人逃亡關係綴18, 임금대장, 各種貯金關係	불일치
		아키타	同和광업(주)花岡광업소	389	광산	花岡광업소 생산명부(조선인노동자에 관한 조사결과), 昭和18년 3월 금광산 후배산조치에 의한 전환 배치에 따른 각종수당지급일람표, 이주노무자來山가족명부, 노동재해조우기록, 同和광업 주식회사 花岡광업소(제일조선인연맹 秋田현 花岡지부 작성), 스미토모	불일치

38) 守屋敬彦 編, 『戰時外國人強制連行關係史料集 - 朝鮮人2, 下』, 1284쪽. 그러나 다른 연구에는 이나우시를 포함해 1,184명이 전출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北海道と朝鮮人勞働者 - 朝鮮人強制連行實態調査報告書』, 308쪽

39) 그러나 1,168명과 이나우시광산 전광자(17명)를 합한 숫자는 1,185명으로 1,186명과 1명의 차이를 보인다. 발신전보 381번(1943년 4월 17일자)에서 고노마이 광산의 上山이 노동과장에게 보낸 보고에서는 1,168명의 전출이 완료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4월 17일에 하나오카행 최후부대가 출발한 이후, 현지탈출자가 이후에 검거되어 하나오카로 보내졌음을 볼 때, 1,168명 이후에 추가자가 1명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발신전보 592번과 593번에 의하면, 옥천영택은 전광이 결정된 이후 4월에 도주했다가 5월 20일에 하코다테경찰서에 검거되었다. 守屋敬彦 編, 『戰時外國人強制連行關係史料集 - 朝鮮人2, 下』, 1525쪽. 그러나 하나오카로 전출된 조선인노무자 명부(住友鴻之舞광산伊奈牛광산八十士광산으로 강제연행자 명부, 제2호표-花岡광업소)에 의하면, 옥천영택은 1943년 4월에 하나오카광업소 전출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다.

40) 静岡縣朝鮮人歴史研究會, 『朝鮮人強制連行の傷跡 - 静岡縣編 - いやされ過去』, 1995, 27~28, 112, 125쪽

전환배치 이전		전환배치 이후			직종	관련 자료	계열
지역	작업장	지역	작업장	인원수 <sup>41)</sup>			
						고노마이광산伊奈半光山八十士광산으로 강제연행자 명부, 고노마이광업소에서 전환배치 후 사망한 자, 임금대장, 各種貯金關係	
		에히메	別子(住友)	244	광산	昭和18년 3월 금광산 휴폐산조치에 의한 전환 배치에 따른 각종수당지급일람표, 이주노무자來山가족명부, 노동재해조우기록, 스미토모 고노마이광산, 伊奈半光山, 八十士광산으로 강제연행자 명부, 고노마이광업소에서 전환배치 후 사망한 자, 1942年度 半島人逃亡關係綴18, 임금대장, 各種貯金關係	동일
		나라	金屋淵(三井 금속 광업주식회사)	50	광산	昭和18년 3월 금광산 휴폐산조치에 의한 전환 배치에 따른 각종수당지급일람표, 이주노무자來山가족명부, 노동재해조우기록, 스미토모 고노마이광산伊奈半光山八十士광산으로 강제연행자 명부, 고노마이광업소에서 전환배치 후 사망한 자, 1942年度 半島人逃亡關係綴18, 임금대장, 各種貯金關係	불일치
		홋카이도	奔別(住友)	115	탄광	昭和18년 3월 금광산 휴폐산조치에 의한 전환 배치에 따른 각종수당지급일람표, 이주노무자來山가족명부, 노동재해조우기록, 스미토모 고노마이광산伊奈半光山八十士광산으로 강제연행자 명부, 임금대장, 各種貯金關係	동일
시즈 오카	일본광업 河津광산	이바라키	日立 (일본광업)	75	광산	일본광업주식회사 河津광산 생산 명부(조선인노동자에 관한 조사결과 수록), 히타치광산 명부 3종(소위 조선인 징용자등에 관한 명부 수록) 노동재해조우기록	동일
		도치키	日光, 木戸ヶ澤 (일본광업)	77(67, 10)	광산	일본광업주식회사 河津광산 생산 명부, 木戸ヶ澤광산 생산명부(조선인노동자에 관한 조사결과 수록), 일본광업주식회사 日光광산 생산명부, 木戸ヶ澤 생산 명부(소위 조선인 징용자등에 관한 명부 수록)	동일
		야마가타	吉野 (일본광업)	4	광산	일본광업주식회사 河津광산 생산 명부(조선인노동자에 관한 조사결과 수록)	동일
시즈 오카	일본광업 峰之澤광산	이시카와	尾小屋 (일본광업)	54	광산	일본광업주식회사 河津광산 생산 명부, 峰之澤광산 생산 명부(조선인노동자에 관한 조사결과 수록)	동일
시즈 오카	일본광업 峰之澤광산	시즈오카	久根 (古河광업)	29	광산	일본광업주식회사 峰之澤광산 생산 명부(조선인노동자에 관한 조사결과 수록)	불일치
효고	일본광업 旭日광산	이바라키	日立 (일본광업)	20	광산	히타치광산 명부 2종(소위 조선인 징용자등에 관한 명부 수록)	동일
도치키	일본광업 日光광산	이바라키	日立 (일본광업)	2	광산	히타치광산 명부 2종(소위 조선인 징용자등에 관한 명부 수록)	동일

현재 국내에 소장한 인적동원명부 가운데 조선인 전환배치와 관련한 명부기록은 [표 13]에 소개한 바와 같이 다양하다. 이들 문서철은 일본 정부가 수합 과정에서, 그리고 한국 정부에 제공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범한 태생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 자료는 국가기록원(이관 당시는 정부기록보존소)에서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추가되었다. 그러므로 현재 국가기록원이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 관련 현황(작업장 및 인원수, 피해내용)은 검증이 필요한 정보이다. 이러한 오류와 문제점은 현실적으로 국가기록원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으므로 향후 연구자와 이용자들이 교정과 보완을 위한 실증적인 작업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sup>42)</sup>

기업별 전환배치 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일본광업주식회사 소속 조선인 노무자의 전환배치 실태 : 일본광업주식회사 소속 조선인 노무자의 전환배치 실태를 입증하는 관련 명부는 총 4종, 9건을 분석해본 결과, 일본광업주식

41) 관련 명부 및 강제동원위원회 조사결과와 교차 분석을 통해 확인한 인원수

42) 위원회가 발견한 오류와 이에 대한 교정내용은 2006년에 국가기록원에 공식 통보했고, 주요 내용은 학술지를 통해 공개했다. 鄭惠瓊, 『日帝強占下強制動員被害真相糾明委員會調査を通してみる勞務動員』, 『季刊 戦責追究研究』 55, 2007. 아울러 논문(『조반(常磐)탄전 명부자료를 통해 본 조선인 노무자의 사망자 실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59, 2009)을 통해 추가로 확인한 사항을 공개했다.

회사 소속 조선인 노무자들을 시즈오카현 소재 가와즈(河津)광산에서 이바라기의 히타치, 도치키의 닛코(日光)광산, 야마가타의 요시노(吉野)광산으로 전환배치했고, 효고현의 아사히(旭日)광산과 도치키의 닛코광산에서 이바라키현의 히타치로, 시즈오카현 소재 미네노사와(峰之澤)광산에서 이시카와(石川)현 소재 오고야(尾小屋)광산으로, 미네노사와(峰之澤)광산에서 구네(久根)광산으로 각각 전환배치했다.

- 스미토모 소속 고노마이 광업소 조선인 노무자의 전환배치 : [표 13]의 관련 명부는 총 13건의 자료에 수록되어 있는데, 6종은 전환배치와 직접 관련된 명부이고, 1건은 전출 이전의 근무 현황을, 1건은 전출 전후의 근무 현황을 모두 파악할 수 있는 명부, 2건은 전출 이후의 근무 상황을 알 수 있는 명부, 3건은 전환배치 과정 및 만기 시점에서 수당과 저금관계, 후생연금 탈퇴수당 관련 명부이다.

5건의 명부를 통해 살펴본 고노마이광업소 소속 조선인 노무자 가운데 전환배치된 조선인은 1,169명(奔別탄광 114명, 金屋淵광산 50명, 別子광산 244명, 足尾광산 371명, 花岡광산 390명)이고, 전출에서 제외된 조선인은 1,416명(입산직전 탈출로 인한 미입산자 14명 제외)이다. 이들에 관한 기록은 대부분 여러 자료에 중복 기재되어 있다. 1943년 3월말 현재 고노마이광업소가 가동한 조선인노무자는 광산감독국 서류에 1,205명이고, 질병휴업중인 노무자를 포함한 숫자가 1,302명 이므로<sup>43)</sup>, 가동가능자의 대부분을 전근시킨 셈이다.



[그림 8] 고노마이광업소 소속 조선인 광부들의 모습(在日韓人歴史資料館, 『在日韓人歴史資料館圖錄』, 2008, 50쪽)

43) 守屋敬彦 編, 戰時外國人強制連行關係史料集 - 朝鮮人2, 下』, 1283쪽

고노마이광업소는 홋카이도 오호츠크해 연안 왓카나이(稚内)시와 아바시리(網走)시의 중간지점에 있는 몬베쓰(紋別)시로부터 내륙으로 약 30km안에 들어간 산중에 자리했다. 이 지역은 사방이 고도 300~600미터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11월부터 4월까지 눈에 묻혀 있으며, 현재도 곰이 서식하는 곳이다. 오호츠크해 연안에서는 1897년부터 사금을 발견해 골드러쉬가 시작되었으며 고노마이광업소는 1917년 스미토모가 경영권을 얻은 이후 1973년 폐산 때까지 조업했다.<sup>44)</sup> 최대 2,727명의 조선인 동원 기록을 남겼다.

당시 일본 3대 재벌의 하나인 스미토모 그룹은 전시체제기에 120개 기업에 투자했고, 자본금이 100억 엔을 넘을 정도로 큰 기업이었다. 일본은 물론이고, 한반도와 사할린 등 제국 일본 영역에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었다. 1945년 10월 연합군총사령부(GHQ)가 본사의 해산을 공식화했으나 재건해 현재 스미토모상사, 미쓰이·스미토모은행, 스미토모금속공업 등 20여 핵심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고노마이광업소도 1945년 11월 1일 부활했다.

일본 전시체제기 고노마이광업소의 주요 연표를 보면 다음과 같다.<sup>45)</sup>

1938.	이 해 고노마이광산 산금량은 2,339kg으로 동양 최대를 기록. 숙련종업원 263명이 군대에 징집되어 노무자 부족 현상이 심각하고 생산성이 저하됨
1939.1.12.	상공성 광산국장이 증산장려안 매일 4천톤 처리를 강요
1939.3.	광산감독국 지시에 따라 각 집단주거지에 총후생활쇄신반을 구성
1939.4.	청년광원양성소 개설(중견 광원의 양성 목적)
1939.4.14.	북해도청 고시 제386호에 따라 고노마이 순사주재소 설치
1939.5.27.	몬베쓰(紋別)경방단에서 독립한 고노마이광산 경방단 조직
1939.8.	제4차 제련확장공사완성으로 신공장 완공, 제2마광장(磨鑛場)과 제3청화장 설비 증강, 원산 제련소는 2천톤 처리공장으로서 확대됨
1939.9.	'반도인노무원취급요령'을 작성하고, 조선인 노무자 채용 계획을 확정
1939.9.19.	아사히초(旭町)지구에 고노마이화장장 설치 허가를 받음
1939.10.7.	조선인 302명이 노무자로 입산
1939.10.27.	조선인 노무자 160명이 사무소에 몰려갔으나 경찰관이 제지
1939.12.5.	조선인 208명이 단결해 조직적인 저항투쟁을 일으킴
1939.12.	하쿠류(白竜)강 광구 매수
1940.3.	3개월간 근속한 조선인은 고용형태와 임금형태를 일본인과 동일한 정용(定傭) 노무원으로 하기로 함
1940.10.	고노마이와 문베츠 간 약 28km에 달하는 궤도(輕便철도) 건설 공사 착공
1940.12.5.	(주)스미토모 본사는 '북일본광업소'를 폐지하고 '고노마이광산'을 '광업소'로 승격해 본사에 직속

44) 스미토모 광업소 소속으로는 고노마이 본산 외에 몬베쓰 시내의 야소시(八十士)광산, 엔가루초(遠軽町)의 이나우시(伊奈牛)광산이 지산으로 있었고, 138명이 동원되었다. 守屋敬彦『戰時外國人強制連行關係資料集Ⅲ 朝鮮人2 下』, 1261~1262쪽

45) 金村友幸 편, 『鴻之舞の歴史(年表) - 鑛山と生活』, 자비출판물(北見市 東陵町 57-28, 몬베쓰시립도서관 소장), 연도미상, 19~26쪽

1940.	광부를 조달했던 이케다구미(池田組) 해산. 가족수당 지급. 이 해 연간 금 2,478kg, 은 46,225kg 생산
1941.3.	5호갱에서 갱내 화재 발생
1941.6.	주휴(週休)제를 폐지하고 월 2일 휴일제도로 결정. 갱외작업에 여자근로보국대원을 투입. 갱내작업의 청부제 폐지
1942.2.	제2제련소(俱知安제련소) 완성하고 1일 3천톤 처리
1942.3.	광알선 방식으로 조선인 노무자를 동원하기 시작
1942.5.13.	기업정비령 공포
1942.6.	조선인 종업원이 1,646명에 달하고, 7개의 협화료에서 집단생활을 강요당함. 지자키구미(地崎組) 고노마이광산공사장으로 조선인 연 397명을 연행(현재 270명)
1942.9.22.	조선인 2,589명을 강제동원
1942.12.26.	금광업정비령에 의한 고노마이 휴산 보갱의 정식 명령을 접수
1942.	종업원 4,552명(조선인 1,498명 포함), 지역 인구는 14,602명. 고노마이소학교 31학급, 1,593명 아동
1943.1.30.	스미토모본사 이사회에서 고노마이 휴산방침 결정
1943.4.1.	금광업정비령에 따라 휴산보갱광산이 됨. 노무자 646명을 잔류하고 나머지는 전환배치 실시
1943.4.7.	간부들이 산신사에서 휴산봉고제 집행. 배전(配轉) 제1진(조선인)이 하나오카광산과 아시오광산으로 출발
1943.4.18.	배전 제2진(일본인)이 벳시광산 등으로 출발
1943.9.10.	(주)스미토모본사 고노마이광산소를 '광산'으로 규모 축소
1944.2.1.	(주)스미토모본사는 직할 광산의 경영을 스미토모광업(주)에 위탁하고 광업부문을 일원화
1945.11.1.	'고노마이광산'에서 다시 '고노마이광업소'로 부활
1946.1.21.	스미토모광업(주)가 세이카(井華)광업(주)로 사명 변경
1946.4.	연합군총사령부에 1일 400톤 처리제련소 복구신청서 제출

위 연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일본 당국은 1937년 8월 「산금법」을 공포하고 산금5개년계획을 결정하는 등 광물의 증산을 독려했으나 중일전쟁의 장기화로 일본인 광산노동자가 병사로 징집되어 조업에 지장을 초래하자 조선인을 동원하기 시작했다.

고노마이광업소의 광물은 금, 은, 동이다. 이 가운데에서도 금의 매장량은 일본 제3위를 기록할 만큼 주력 광물이었다. 1937년에 시작한 중일전쟁의 장기화로 광산노동자가 차례로 징집되어 조업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자, 스미토모는 1939년부터 일본 정부의 '노무동원계획'에 근거해 조선인 노무자를 동원하기 시작하였다. 고노마이광업소도 1939년 이후 매년 꾸준히 조선에서 노무자를 동원했으며 1942년 6월 말에는 동원 총수가 2,000명을 넘었다. 1939년 10월 7일 광산에 들어온 제1진부터 제23진까지 (1942년 9월 22일 입산) 동원한 조선인 총수는 2,563명이다.<sup>46)</sup> 이들은 오타루(小樽)에 입항한 후 철도·버스·트럭·도보로 다음 날 광산에 도착해 노무자 숙소인 협화료(協和

46) 정혜경 외, 『강제동원을 말한다-명부편(1)』, 도서출판 선인, 2011, 300쪽

寮)에 입소했다.

광산노무자와 거주 가족이 증가하자 광산도 전성기를 맞아 1942년경에는 인구 13,000명에 이르는 기도 하였다. 그러나 1943년 전쟁 격화에 의한 산업통제의 일환으로 금이 군수물자의 우선순위에 서 밀려나면서 당국은 1943년 3월 전국 470개 금광산의 휴·폐산을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고노마이광업소의 노무자들을 다른 탄·광산으로 전환 배치했다.

1939년~1945년까지 본산과 지산을 합해 고노마이광업소에 동원한 조선인 총 2,727명 가운데 95%는 광산 경험이 전혀 없는 농민 출신이었다. 1939년 10월 7일자로 동원한 302명을 전원 갱내에 투입하는 등 갱내 노무자 구성에서 조선인 비율은 점차 높아져 1940년 1월(일본인 1,337명, 조선인 302명), 1941년 12월(일본인 1,180명, 조선인 826명), 1942년 6월(일본인 991명, 조선인 1,456명) 추세를 보였다.<sup>47)</sup> 광산 도착 후 신체검사를 실시해 갑과 을종으로 나눈 후, 심장의 이상이 있거나 치료를 요하는 등 을종에 해당하는 노무자는 갱외에 투입하고, 그 외는 갱내노동에 투입했다. 을종에 해당되었다 하더라도 3개월마다 실시되는 신체검사서 갑종이 나오면 갱내로 투입했다.<sup>48)</sup>

강제동원 현장에서 노동재해 발생의 원인은 무리한 조업, 설비 불안정, 교육 미비, 관리 부족 등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 빠른 시간 내 많은 산출물을 요구한 노무정책은 모든 직종과 현장에서 공통적이기 때문이다. 광산도 탄광과 동일하게 낙반과 화재, 갱내 광차사고 등이 발생했다. 탄광과 차이점은 착암과 선광, 제련, 정련 과정에서 도구와 기구, 화기 사용도가 높으므로 재해의 원인과 종류가 다양한 편이라는 점이다.

1939년 10월부터 1943년 3월 휴산 직전까지 강제로 동원된 조선인의 재해사망자 비율은 일본인의 약 두 배에 이르렀다. 이같이 높은 재해율의 원인은 기술·직업·보안교육의 불충분, 언어 차이에 의한 의사소통 부족, 위험 작업장에 다수 투입 등으로 볼 수 있다.<sup>49)</sup>

고노마이광업소가 작성한 「반도노무원통리요강(半島勞務員統理要綱)」에 의하면, 노무자들은 교육훈련(기초훈련, 기술훈련)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교육훈련의 핵심은 '점차 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군대식 훈육방법을 채용한' 기초훈련이었다.<sup>50)</sup> 그러나 이러한 원칙이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광산 측은 조선인들을 광산에 도착한 후 2~3일간 간단한 교육(보안, 위생 관련)을 받고 곧바로 갱내에 투입했다.

47) 守屋敬彦, 「住友鴻之舞鑛山への強制連行朝鮮人の勞働災害」, 『朝鮮人強制連行論文集成』, 明石書店, 1993, 62~63쪽

48) 守屋敬彦, 「朝鮮人強制勞務動員實態調査報告書」, 強制動員真相究明Net-work, 2012, 13~14쪽

49) 守屋敬彦, 「解題」, 『戰時外國人強制連行關係資料集Ⅲ 朝鮮人2 下』, 2103~2104쪽. 고노마이광업소 조선인의 노동재해 실태에 대해서는 정혜경, 「일제말기 홋카이도(北海道) 스미토모(住友) 고노마이(鴻之舞) 광업소 조선인 노무자 노동재해 관련 기록물 연구」, 『한일민족문제연구』30, 2016 참조

50) 守屋敬彦 編, 『戰時外國人強制連行關係資料集Ⅲ 朝鮮人2 下』, 1468쪽

“3일간 갱내 견학한 후에 갱내 잡역부로 일했고, 나중에 지주부(支柱夫)가 되었다. - 朴炳來(1921년 10월생, 1942년 8월 15일 고노마이광업소 입산)”<sup>51)</sup>

「반도노무원통리요강」에 규정된 지적 교육도 일본어 교육에 치중되어 광산노동에 필요한 기술 교육과는 거리가 있었다. 고노마이광업소 동원 피해자에 대한 구술조사결과에 의하면, ‘일본어를 전혀 모르는 상태로 일을 시작했으므로 통역이 있었는데, 100명 단위로 작업을 지휘하는 단장이 일본어를 사용했으므로 노무자들도 일본어 작업 용어는 익혔다(南稷熙 회상)’고 한다.<sup>52)</sup>

또한 기초훈련은 정신교육, 지적교육, 체육 등 세 종류로 단체 훈련 방식으로 3개월간 실시되었는데, 3개월이 지난 뒤에도 노무관리 차원에서 계속되었다. 이 수준의 교육도 갱내노동과 병행했으므로 교육시간은 일과를 시작하기 이전인 오전 5시부터 6시까지였다.<sup>53)</sup>

고노마이광업소에서 재해를 당한 조선인들의 사고 내용을 보면, 최소한의 안전시설을 갖추지 못해 발생한 사고, 주로 천반(天磐)과 측벽의 위험장소를 발견하지 못해 발생한 붕괴사고, 작업순서를 지키지 못해 당하는 사고, 화약류의 위험성을 미처 알지 못해서 당하는 사고 등이다. 착암기 등 작업기구의 취급방법을 습득하지 못했거나 일본인 동료의 위험 신호를 알아듣지 못해 발생한 사고 등 평상시라면 일어날 수 없는 원인으로 사고를 당해 사망하거나 중경상을 입는 사례가 다반사였다. 갱외노동도 위험성은 마찬가지였다.

“갱 밖에서 일이, 산을 파서 구멍을 파고 광석을 떨어트려 제련소로 운반하는 일이었는데, 산을 아래에서 파들어 가니까 산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다. 나중에는 구멍을 지탱하는 나무가 갑자기 무너졌다. 거기에서 2인 1조로 일하고 있었는데, 깊숙이 들어가서 파다가 죽은 사람이 있었다. 처음에는 철조망을 치지 않았는데, 그곳에서 3명이 죽으니까 철조망을 쳤다. - 孫冠植(1918년 9월생, 1941년 9월 동원)”<sup>54)</sup>

또한 국가의 금(金)증산운동에 의해 급격한 기업 확장을 하는 과정에서 갱목 등이 부족하기도 하고 보갱과 보안체제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도 사고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게다가 숙련 노동자들이 전쟁터로 차출된 점도 큰 영향을 미쳤다.<sup>55)</sup>

현재 확인된 고노마이광업소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본산과 지산인 야소시광산을 포함해 총 47명이다. 47명의 사망 시기를 보면, 1939년 1명, 1940년 9명, 1941년 10명, 1942년 16명, 1943년 10명, 1945년 1명(야소시 광산)으로 1940년~1943년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1943년 4월 전환배치 조

51) 守屋敬彦, 「朝鮮人強制勞務動員實態調査報告書」, 13쪽

52) 守屋敬彦, 「朝鮮人強制勞務動員實態調査報告書」, 13쪽

53) 守屋敬彦 編, 『戰時外國人強制連行關係資料集Ⅲ 朝鮮人2 下』, 1468쪽

54) 守屋敬彦, 「朝鮮人強制勞務動員實態調査報告書」, 13쪽

55) 守屋敬彦, 「住友鴻之舞鑛山への強制連行朝鮮人の勞働災害」, 65~66쪽



치를 통해 고노마이광업소 조선인 노무자들이 일본 본토로 전근되었기 때문이다.

47명 가운데 30명이 재해로 인한 사망자로 확인된다. 재해사망자 30명을 같은 시기 조선인 노무자 2,589명 대비 재해사망률은 1.2%이다. 광산감독국 관내 사망통계와 비교해보면, 후쿠오카 0.5%, 조반 0.8%에 비해 높고, 삿포로 2.1%에 비해 낮다. 재해사망자 30명이 아닌 사망자 47명 전체를 대입하면 일본 광산감독국 관내 탄광 사망률과 차이는 더 커진다. 금속광산은 비금속광산에 비해 정질암반이어서 유독가스 발생률이 적고 보안교육과 기술교육을 충분히 한다면 노동재해 발생률을 줄일 수 있다. 그런데도 탄광지대보다 재해발생률이 높았다는 것은 보안과 기술교육을 등한시한 결과이다.<sup>56)</sup>

전환배치된 1,169명의 고노마이광업소 실제 입산자 현황을 보면, 1939년 302명, 1940년 433명, 1941년 784명, 1942년 1,054명으로 시기가 지남에 따라 급증한다. 입산자 대비 전출자는 1941년 9월 8일 입산자가 가장 큰 변화를 보이고, 이를 계기로 40~90%에 이를 정도로 비중이 높다. 특히 1940년 입산자의 만기해고자 비율이 높은 데 비해 이후 시기에는 전근자의 비율이 높아짐과 동시에 만기해고자의 모습은 찾기 어려워졌다. 만기해고자 대신 질병송환자나 현지사망자, 불체용송환자, 탈출자, 일시귀선 이후 광산으로 돌아오지 않은 자들이 늘어났다. 아울러 전환배치의 양상도 변화하여 여러 작업장으로 분산 전출하지 않고, 단일한 작업장으로 전출했다.<sup>57)</sup>

전환배치 후 노무자들의 행로를 살펴보자. 전출 이후 행적을 알 수 있는 노무자는 401명(주로 하나오카, 이나우시 광산 전출자)이다. 이 가운데 86명은 탈출(21.44%), 17명은 일시귀선(4.24%), 징계해고와 의원해고가 각각 1명씩, 사망 5명(1.25%), 불량송환 2명(0.5%), 질병송환 17명(4.38%), 그 외 266명은 만기귀선(66.33%)이다. 만기귀선을 하지 못한 비율은 33.67%에 달한다.

특히 탈출비율은 높은 편이다. 탈출은 입산 직전에 시도해 일부는 성공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입산 이후 1개월 이후에 시도했고, 3일 이내에 검거되는 것이 다반사였다. 3~4개월 동안 검거를 피한 경우도 있었으나 검거 장소는 홋카이도를 벗어나지 못했다. 「1942年度 半島人逃亡關係綴 18」 및 모리야가 소개한 고노마이광업소 자료 가운데 일부(「도망자 수색원서」와 「발견보고 명부」 「발신전보」)에서도 검거 기간은 3일 이내이고, 검거장소는 기업과 사업소 근처임을 알 수 있다.

3일을 넘어가면 탈출에 완전히 성공했다고 볼 수 있지만 밀고 등으로 인해 몇 달 뒤에 홋카이도 관내에서 검거되는 경우도 상당수 있었다.<sup>58)</sup> 검거 기간이 신속하고 검거율이 높은 이유는 「피징용자에 대한 조직적인 도망자 수색 시스템」과 홋카이도 관내의 인구밀도가 낮기 때문이다. 해당 기업은 물론이고 경찰과 직업소개소 등 ‘촘촘한 도망자 색출 시스템’이 가동하고 있으므로 그 손아귀를 벗어나기

56) 守屋敬彦, 「住友鴻之舞鑛山への強制連行朝鮮人の労働災害」, 67~68쪽

57) 이 외에도 『北海道と朝鮮人労働者 - 朝鮮人強制連行實態調査報告書』, 175쪽에는 1943년 5월에 고노마이광업소 소속 조선인노무자 76명이 스미토모 아카비라(赤平) 탄광으로 轉鉱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명부상으로는 확인할 수 없다.

58) 守屋敬彦, 「기업자료 중 각종 명부류의 기술내용에서 알 수 있는 조선인 강제연행자에 관한 사실」, 『2009 네트워크 관계자 초청 워크숍 자료집』(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2009, 4). 이 논문은 약간의 수정을 거쳐 『한일민족문제연구』16 (한일민족문제학회, 2009.6월)에 수록되었다.

란 쉽지 않았다. 그런데도 탈출에 대한 열망은 대단해서 심지어 가족의 도일이 결정된 이후에도 탈출하거나, 노무자를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한 대장이나 반장, 조장이 탈출한 사례도 있다. 탈출 시기는 고노마이광업소 입산 직후가 많다는 점이 특징이고, 집단 탈출의 경우에는 동향인이 대부분이다.

특히 전환배치 후에도 탈출 시도는 그치지 않았다. 이미 전출이 이루어지기 전에 탈출이나 일시귀선 이후 미복귀 등으로 노동력 손실을 입은 상태에서 실시된 전환배치였는데, 이후에도 21% 이상이 탈출했음은 당시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더구나 401명의 대부분이 하나오카광산이라는 점, 이 광산의 노무관리가 매우 엄격하고 심했다는 점, 작업 중 탈출이 어려운 조건이었음을 감안할 때, 탈출률은 높은 편이다. 탈출 사례 가운데 삼지점술(경북 선산 출신)은 전출되기 이전인 1942년 8월 15일에 작업장을 탈출했다가 체포되어 1943년 4월에 하나오카 광산으로 전출되었으나 이후에 다시 탈출에 성공한 특이한 경험의 주인공이다.

그렇다면 조선인들은 왜 이렇게 탈출을 시도했는가. 그리고 회사 측은 경찰과 직업소개소 등 촘촘한 색출 시스템을 가동해 잡아들였는가. 이 점이 바로 강제동원 부정론자들이 주장하는 점과 차이점이다. 2019년 현재 일부 경제학자들은 ‘조선인 강제동원은 없었다’ ‘조선인은 자유로운 취업을 했고, 돈을 벌었다’는 주장을 출판물과 개인방송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그런데 강제동원 부정론자들이 주장하는 ‘자유로운 상태의 조선인들’은 이렇게 늘 탈출을 시도했고, 회사와 일본 공안당국은 탈출자들을 잡아들이려 노력했다. 고노마이광업소에서도 사도광산에서도 하시마광산에서도 어디에서도 있었다. 잡아들인 탈출시도자들에게는 린치와 폭행을 가했다. 서류에는 ‘도주’라고 기재했다. ‘퇴사’가 아니었다. 상식적으로 볼 때, 자유로운 상태에서는 있을 수 없는 현상이다. 바로 인신적 구속, 강제적 상태에 놓여 있음을 의미하는 사례이다.<sup>59)</sup>

전환배치 조선인 사망자 비율 1.25%는 일본 전 지역 조선인 노무자의 사망비율 0.9%(1939.10~1942.10월 기준)와 비교해 볼 때, 높은 편에 속한다. 물론 개별적인 탄전과 비교해보면, 고노마이광업소 조선인 노무자 사망률 1.7%(私傷病자를 제외하면 1.1%)보다는 낮은 편이지만 후쿠오카 관내 조선인 사망비율 0.6%(1944.1 기준)에 비해서도 높은 편이다.<sup>60)</sup>

전환배치는 특정 지역의 특성이 아니라 총동원전쟁 수행과정에서 인력과 물자수급을 원활히 하려는 정책의 일환이다. 그러므로 제국 일본의 전체 영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직종도 주요 국책군수산업인 광산과 탄광, 제철회사 등 광범위했다. 전시체제가 노무자 전환배치는 국가권력이 필요 및 편의에 따라 작업장의 인력 배치를 강제로 전환하는 행위로서 인적동원의 강제성을 입증하는 또 하나의 사례이다. 그러한 점에서 1943년 조선인 광부를 대상으로 한 전환배치의 의미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고노마이광업소 문서는 1973년 폐산 후 사무소 창고에 방치되어 있었는데, 1978년 모리야교수가 발견해 2톤 트럭 5대 분량의 자료를 몬베쓰(紋別)시립향토자료관에 이관했다. 현재 자료 열람

59) 『반일종족주의』에서 부정하는 강제동원에 대한 구체적인 반론은 정혜경 외, 『반대를 논하다 - 반일종족주의의 역사부정을 넘어』(도서출판 선인, 2019) 참조

60) 守屋敬彦, 「朝鮮人強制連行死亡者の遺骨・遺族扶助料」『季刊戦争責任研究』55, 2007, 4쪽

은 불가능하다. 2019년 9월 29일 연구단은 현지조사 기간 중 시립박물관과 도서관을 방문해 자료 열람을 시도했으나 자료의 행방은 알 수 없었다.



[그림 9] 시립박물관에 있는 광업소  
현판(2019.9.28. 촬영)



[그림 10] 모토야마(元山)제련소



[그림 11] 조선인을 포함한 무연고  
유골을 모신 사리암 내부. 하단에  
유골이 있다.



[그림 12] '사리암'이라는 표석 뒤에 보이는 붉은 색  
화장장 굴뚝



### Ⅲ. 미쓰비시광업(주) 사도광산의 조선인 강제동원

#### 1. 미쓰비시(三菱) - 전쟁으로 성장한 일본 최대 재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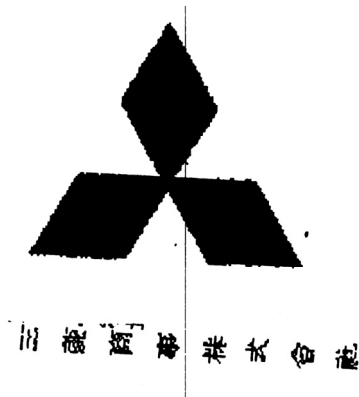
미쓰비시는 미쓰이, 스미토모와 함께 근대 일본 3대 재벌이다. 1835년 시코쿠(四國) 도사(土佐) 번[현재 일본 고치高知현]에서 출생한 하급 무사 이와사키 야타로(岩崎彌太郎)가 1873년 미쓰비시(三菱)상사를 설립하면서 탄생했다. 에도(江戸) 막부 말기 관변상인(政商)으로 출발한 이와사키는 1870년 쓰쿠모(九十九)의 감독으로 중앙 상업계에 뛰어들었다. 쓰쿠모상회는 도사번 출신의 사카모토 료마(坂本龍馬, 1836~1867)<sup>61)</sup>가 암살당한 후 도사번 차원에서 오사카에 설립한 상점이다. 또 한 10월 9일 이와사키 야타로는 도사카이세이상사(土佐開成)를 창설하고 해운 사업에 진출한 후 10월 18일 도사카이세이상사를 쓰쿠모상회로 회사 이름을 변경했다. 1871년 폐번치현을 통해 일본의 모든 번이 폐지되자 주인을 잃은 쓰쿠모상회를 개인 소유로 바꾼 후 도사번 소유였던 선박 세 척을 사들여 1873년에 미쓰비시상사를 설립하고 해운과 무역 중심으로 사업을 벌였다.

한미한 지방 출신의 이와사키 야타로가 일본 최대의 상업 중심지역인 오사카에 미쓰비시상사를 설립하게 된 배경은 일반적 상행위와 거리가 있었다. 막부 시절에 자신의 출신 지역인 도사번이 설립한 번 소유의 쓰쿠모상회를, 막부 체제가 사라지고 주인을 잃은 혼란한 틈을 타 차지한 셈이기 때문이다.

설립 직후부터 미쓰비시는 일본 국내 세이난(西南)전쟁<sup>62)</sup>은 물론, 일본의 대외 영토 확장과 침략 전쟁에 힘입어 성장해나갔다. 1874년 일본이 타이완(臺灣)을 침략할 당시 무기와 병사들을 수송했고, 1875년 조선 강화도 침공 당시에도 병사를 수송했다. 특히 세이난전쟁 때에는 정부 측 군대와

61) 도사번 출신의 하급 무사였으나 일본이 개국하는 등 복잡한 국제정세 아래 놓인 어려운 시기에 일본 막부시대를 종식시키고 근대 일본의 토대를 만들었다고 평가받는 인물.

62) 1877년 현재의 구마모토 현·미야자키 현·오이타 현·가고시마 현에서 사이고 다카모리(西郷隆盛, 1828~1877)등 메이지유신의 주역이 주도해 일으킨 무사들의 무력 반란. 메이지 초기에 일어난 무사 반란 중 최대 규모였으며, 일본 역사상 마지막 내전



[그림 13] 이와사키 집안의 가문(家紋)인 「산가이비시(三階菱)」와 토좌번 土佐山内(도사야마우치)집안의 가문 「미쓰카시와(三ツ柏)」에서 유래. 99상회가 선기호(船旗号)로 채용한 삼각 히시(菱, 자포니카 꽃잎)의 마크가 현재 쓰리다이아(三菱마크)의 원형.

군수품 수송을 독점했고, 전쟁 후 남은 군수품 처분까지 독점해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 일본 정부가 세이난 전쟁 당시 지불한 전비 4,150만엔 중 1,500만엔을 미쓰비시가 차지했다고 할 정도였다.

미쓰비시상사는 1874년에 본사를 오사카에서 도쿄로 옮기면서 회사 이름을 우편기선미쓰비시회사로 바꾸고 해운업을 주력사업으로 설정했다. 그 후 설립자가 사망하자 회사 이름을 미쓰비시사로 바꾼 후 1881년 나가사키의 다카시마탄광과 1884년에 임대한 나가사키조선소를 중심으로 사업을 확장해나갔다. 1885년 제119 국립은행을 인수해 은행 업무에 뛰어들었고, 1887년에는 도쿄창고(후에 미쓰비시 창고로 변경)를 설립했으며, 같은 해에 정부 소유 나가사키조선소를 불하받은 후 조선업을 확충하고 다카시마와 나마즈타(鯨田) 등 규슈(九州)지역의 탄광을 경영하기 시작했다.

다. 1890년대에는 사도와 이쿠노(生野) 광산 경영권을 정부로부터 양도받았다.

1893년, 일본 상법 시행에 따라 미쓰비시사를 미쓰비시합자회사로 개편한 후, 이 회사를 지주회사로 삼아 조선업, 광업, 철도, 무역 등 여러 분야로 확장해나갔다. 1900년대에 들어서는 사업을 더욱 확장해 1911년에는 조선의 황해도 황주군 검이포에서 검이포 철산을 운영하기 시작했고, 1910년대에는 비바이(美唄)와 오유바리(大夕張) 등 홋카이도지역의 대표적 탄산에서 탄광 경영에 나섰다. 이러한 사업 확장에 힘입어 미쓰비시조선, 미쓰비시제지, 미쓰비시상사, 미쓰비시광업, 미쓰비시은행, 미쓰비시전기 등을 차례로 설립하면서 1930년에 산하 회사 120개사, 자본금 9억 엔의 재벌로 성장하고 일본 3대 재벌이 되었다. 또한 일본을 비롯한 각 지역에 계열사나 자본을 투자해 설립한 합자회사도 여럿이었다. 그 후 여러 차례의 통폐합을 거쳤다. 1945년 11월 조사결과에 의하면, 미쓰비시 재벌 산하 회사는 총 75개사이고, 일본 전국 기업과 비교한 총자본비율은 5.7%에 달했다.<sup>63)</sup>

#### ○ 미쓰비시의 간단한 연혁

1870년 이와사키 야타로(岩崎彌太郎), 도사번 소유의 99상회(오사카 소재) 감독으로 임명  
10월 9일 이와사키 야타로(岩崎彌太郎), 도사카이세이(土佐開成)상사를 창설하고 해운 사업에 진출  
10월 18일 도사카이세이상사, 쓰쿠모(九十九)상회로 사명 변경. \*개인 소유로 전환

63) 持株會社整理委員會, 『日本財閥とその解體』, 1941, 111~112쪽

1871년	쓰쿠모상회, 신구한(新宮藩)에게서 조차권을 얻어 만자이(萬歳)·音河 두 탄광을 채굴 작업(미쓰비시, 탄광 경영의 시작)
1872년	쓰쿠모상회, 미트카와(三ッ川)상회로 사명 변경
1873년	미트카와상회, 미쓰비시상회로 사명 변경
1873년	미쓰비시 상사 설립
1874년	미쓰비시상사, 근거지를 도쿄로 이전. 미쓰비시상사, 미쓰비시증기선회사로 사명 변경
1875년	‘미쓰비시기선회사 규칙’ 제정. 미쓰비시기선회사, 우편기선미쓰비시회사로 사명 변경
1881년	나가사키의 다카시마(高島)탄광 획득
1884년	정부 소유 나가사키조선소 임대
1885년	설립자 사망, 제2대 사장으로 이와사키 야타로의 동생인 이와사키 야노스케(岩崎彌之助) 취임, 회사 이름을 미쓰비시사(三菱社)로 변경, 제119 국립은행을 인수
1885년	우편기선미쓰비시회사, 해운 사업을 폐쇄(사업은 신설된 일본우선회사로 이동)
1886년	우편기선미쓰비시회사, 미쓰비시사로 사명 변경
1887년	도쿄창고(후에 미쓰비시 창고로 변경) 설립, 정부 소유 나가사키조선소를 불하받음
1893년	상법 시행에 따라 미쓰비시사를 미쓰비시합자회사로 개편, 3대 사장 취임
1916년	4대 사장 취임
1917년	미쓰비시조선(주)(현재 미쓰비시중공업의 전신), 미쓰비시 제지(주), 일본광학(光学)공업(주), 미쓰비시제철(주) 설립
1918년	미쓰비시상사(주), 미쓰비시광업, 에도가와(江戸川)발롱공업소 설립
1919년	(주)미쓰비시은행 설립
1920년	미쓰비시내연기계제조(주) 설립
1921년	미쓰비시전기(주) 설립
1927년	미쓰비시신탱(주) 설립
1928년	미쓰비시항공기(주) 설립
1931년	미쓰비시석유(주) 설립
1933년	신흥인견(新興人絹)(주) 설립
1934년	미쓰비시중공업(주), 일본타르공업(주) 설립. 미쓰비시조선(주), 미쓰비시중공업(주)으로 사명 변경
1935년	화공기(化工機)제작(주) 설립. 미쓰비시제철(주) 해산. 일본알루미늄(주) 설립
1937년	미쓰비시 지소(地所) 설립, 4대 사장인 고야타(小彌太)가 미쓰비시합자회사를 (주)미쓰비시사(三菱社)로 개편
1940년	주식 공개, 본사 발행주의 절반 정도를 일반 투자자에게 배당
1942년	미쓰비시제강(製鋼)(주) 설립
1943년	(주)미쓰비시사를 미쓰비시 본사로 상호 변경
1946년	12월 28일 지주회사정리위원회령에 의해 미쓰비시상사는 지주회사로 지정되어 정리대상이 됨
1947년	7월 3일, 연합국총사령부(GHQ)는 일본 정부에 각서를 내리고 지주회사에 대한 해체를 지시
1954년	미쓰비시상사, 재합동. 미쓰비시의 부활

미쓰비시 소속 기업은 일찍부터 조선인을 고용했다. 이미 1917년 미쓰비시 조선소(효고현 소재), 1918년 후쿠오카현 소재 미쓰비시 소속 탄광에 조선인 취업 기록이 있으며, 1910년대 말 홋카

이도의 비바이탄광과 나가사키의 다카시마, 후쿠오카의 가미야마다(上山田)탄광에도 조선인 기록이 있다.<sup>64)</sup>

미쓰비시는 정부로부터 불하받은 나가사키조선소에서 1890년대 군함 건조를 시작으로 잠수함이나 어뢰 등 무기를 생산했다. 1928년에는 미쓰비시항공기를 설립하고 일본 군용기의 주요 생산 기업으로 자리 잡았다. 1934년에는 조선과 항공기 부문을 합한 미쓰비시중공업(주)을 설립했다. 이같이 일본 각지에 군수공장을 두고, 나가사키에서 군함, 나고야에서 군용기, 도쿄에서 전차를 제조했다.

1930년대에는 일본은 물론, 조선과 중국, 타이완, 남사할린 등지에 사업체를 확장해나갔다. 한반도는 1911년 검이포 철산을 시작으로 1930년대에 한반도 전역의 광산 개발에 나섰다. 1910년에 개광한 검이포 철산은 1911년 미쓰비시(합자)가 양도받아 경영하다가 1918년에 미쓰비시제철(주)에 양도한 후 1935년에 미쓰비시광업(주) 소속으로 바뀌었다. 1910년대에 미쓰비시가 한반도에서 운영한 사업체는 검이포 철산 외에도 1913년에 미쓰비시(합자)가 인수한 미쓰비시 은룽 철산(황해도 재령군)과 남양 철산(황해도 재령군), 월전리 금광(전북 무주군, 충북 영동군)이 대표적이다. 이 가운데 월전리 금광은 대산지(大山祇) 신사가 설치된 26개 광산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대산지 신사는 일본의 광산 수호신으로써 일본과 남사할린, 한반도의 주요 광산 지역에 설치했다.<sup>65)</sup>

남사할린에는 1920년대에 남사할린탄광철도(주) 등을 설립하고 석탄 채굴에 들어갔고, 중국 동북지역과 타이완에도 각각 미쓰비시 기기(機器)공장과 조선(船渠) 공장을 설립했다.<sup>66)</sup>

미쓰비시가 여러 지역에 운영한 노동동원 작업장 가운데 다수는 탄광·광산이었다. 사할린이 100%(4개소), 한반도가 77.19%(88개소)로 집중되어 있고, 일본지역이 38.1%(53개소)이며, 태평양 지역도 11.8%(2개소)에 이르렀다. 그러므로 일본지역을 포함한 제국 일본 영역 전체로 확장해서 보면, 가장 많은 탄광·광산을 운영한 기업은 미쓰비시이다.

## 2. 미쓰비시광업(주)의 탄광·광산 운영 현황

미쓰비시의 탄광업 경영은 1871년 5월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1890년 12월 미쓰비시탄광사무소를 설치한 후 1918년 미쓰비시광업(주)을 설립했다. 미쓰비시광업(주)이 운영한 광업소와 사업소는 규슈사업소 등 16개소이고, 본점·지점과 출장소는 20개소이다.<sup>67)</sup>

64) 정혜경, 『일제시대 재일조선인민족운동연구』, 국학자료원, 2000, 53쪽; 竹内康人, 『調査・朝鮮人強制労働2 - 財閥・鑛山編』, 社會評論社, 2014, 17쪽

65) 西尾典子, 「資料紹介-全國鑛山と大山祇神社」, 『全國鑛山と大山祇神社(第一輯)』(国幣大社大山祇神社々務所, 1940), 九州大学記録資料館産業經濟資料部門, 2013 영인, 213~216쪽

66) 미쓰비시재벌 약사에 대해서는 지주회사정리위원회, 『日本財閥とその解體』, 1941, 11~15쪽, 105~117쪽, 235쪽 참조

67) 三菱鑛業セメント株式會社總務部社史編纂室 編, 『三菱鑛業社史』, 1976, 210쪽



미쓰비시광업(주)은 미쓰비시 재벌에서 소재생산의 중심 기업이었다. 석탄을 비롯해 금·은·동·납·아연·주석·유화철의 유력 메이커였다. 또한 유력한 출자자이자 기술제공자로서 관련 사업에 진출하기도 했다. 예를 들면 미쓰비시석유를 설립할 때 자본금의 10%를 출자했고, 석탄화학에서는 일본하성공업의 전신인 일본타르공업을 설립할 당시에 자본금의 48.8%를 출자했다. 미쓰비시석탄유화공업(주)(이후 제국연료공업에 통합)은 미쓰비시광업(주)이 20만주를 출자해 설립한 회사였다. 정금속업 분야에서도 미쓰비시광업(주)은 1937년에 일본알루미늄공업(주)의 주식 20만주 가운데 2만 4천주를 취득한 후 지속적으로 투자를 늘려나갔다. 조선에서도 연철생산을 개시했고, 전쟁 말기에는 금속가공업에도 진출하는 등 일관되게 경영의 다각화를 전개했다.<sup>68)</sup>

미쓰비시광업(주)의 주요 자산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4〉 미쓰비시광업 주요 자산

		1937년 9월	1941년 9월	1942년 9월	1943년 9월	1944년 9월
광구(천엔)		26,974	26,080	33,000	18,515	16,500
채광면적(백만평)		204	255	253	263	237
시광(試鑛)면적(백만평)		303	708	720	714	673
사광구(沙鑛區)(백만평)		11	20	21	23	1
주요갱도(천엔)		-	-	-	8,393	7,782
설비장치(천엔)		25,869	51,725	80,617	53,583	46,874
내역	동력	5,315	6,461	12,925	-	-
	운반	6,239	8,053	14,921	-	-
	선탄(選炭)	2,002	2,446	3,924	-	-
	선광(選鑛)	2,557	9,850	13,103	-	-
	제련	3,195	16,176	21,471	-	-
	공장	448	1,849	2,513	-	-
	유산	1,774	332	824	-	-
기타		4,339	6,558	19,936	-	-
고정자산 계		75,218	120,425	158,946	179,076	178,512
개량공사		9,536	50,611	26,785	24,865	38,469

자료 : 浜淵久志, 「太平洋戦争期における三菱財閥の再編過程(1)」, 『北海道大學 經濟學研究』31, 1981, 125쪽

미쓰비시의 탄광업 경영은 미쓰비시광업(주)를 중심으로 여러 자회사에서도 이루어졌다. 탄광산과 관련한 일본 정부의 조치(일자 앞에 \* 표시) 및 주요 현황, 미쓰비시 탄광업 경영 관련 주요 연표를 보면 다음과 같다. 1918년 이후는 미쓰비시광업(주) 해당 내용이다.<sup>69)</sup>

68) 浜淵久志, 「太平洋戦争期における三菱財閥の再編過程(1)」, 『北海道大學 經濟學研究』31, 1981, 110쪽

69) 三菱鑛業セメント株式會社總務部社史編纂室 編, 『三菱鑛業社史』, 1976, 85~98쪽

1871년	5월 쓰쿠모상회, 신구한(新宮藩)에게서 조차권을 얻어 만자이(萬歳)·呑河 두 탄광을 채굴 작업(미쓰비시, 탄광 경영의 시작)
1873년	12월 22일 미쓰비시상회, 요시오카(吉岡)광산을 매수(買收)(미쓰비시, 광산 경영을 시작)
1874년	이 해에 옷뿌(尾太), 八光 광산과 大平 광산의 차구(借区) 허가
1880년	4월 다카시마탄갱(高島炭坑)을 경영하는 고토 쇼지로(後藤象二郎)에게 자금을 대어
1881년	3월 31일 다카시마탄갱 매수 4월 1일 다카시마탄갱 사무소 설치
1883년	*일본 전국 석탄 생산량 100만톤 돌파
1884년	6월呑河, 기슈(紀州)탄광의 채굴 작업 중지 8월 후타고지마(二子島), 나카노시마(中ノ島)의 두 석탄 광구를 불하받음 9월 이오지마(伊王島), 오키노시마(沖ノ島)의 두 석탄 광구를 매수
1885년	*12월 일본 정부, 공부성(工部省)을 폐지하고 광산 행정은 농상무성(農商務省)으로 이관
1886년	*1월 6일 농상무성 소관 미이케, 사도, 이쿠노 세 광산을 대장성(大蔵省)으로 이관 5월 25일 요시오카광산 및 주변 광산을 통합해서 요시오카광산부를 설치 12월 오사리자와(尾去澤)광산을 경영하는 광업회사에자금을 대어하고 경영에 참가
1887년	2월 18일 다카시마광산 외국인기사 스트다드가 물러나고 난부 규고(南部球吾)가 다카시마탄광 광산사(鉱山師)로 취임 10월 24일 오사리자와광산 및 오쿠조(大葛)·호소지(細地) 광산 매수 이 해 다다(多田)광산, 마키미네(槇峯)광산 및 사와타리(猿渡)광산 매수
1888년	3월 오모다니(面谷)광산 매수 6월 '다카시마탄광문제' 발생 7월 고마키(小眞木)광산 외 여러 광산을 매수하고 오사리자와광산과 함께 경영 11월 나가사키에 관사(管事)를 설치하여 탄광과 조선소를 통괄 이 해 구로모리(黒森)광산 매수 이 해 다카시마탄광에 기발선풍기 설치(일본의 탄광에서 기계 통기를 시작)
1889년	*2월 1일 대일본제국헌법 공포 3월 호아시 요시카타(帆足義方)가 개발한 탄광을 매수 3월 10일 나카야마(山中), 植木 두 석탄광구를 매수. 앞의 탄광과 함께 통합해서 경영 *4월 1일 일본 정부, 관영 사도·이쿠노광산과 이쿠노 부속 오사카제련소, 사도 부속 油戶탄광을 궁내성(宮内省) 御料局으로 이관 4월 나마즈타(鯰田)탄광 매수 이 해 아시아(芦屋)에 신뉴나마즈타(新入鯰田)탄갱출장소 설치(12월에 아시야미쓰비시탄 갱출장소로 개칭) 11월 18일 홋카이도탄광철도회사 설립
1890년	2월 고가야마(古賀山)탄광 매수 7월 나마즈타탄광에서 갱외 운반에 엔드레스 로프(증기식)를 설치(일본 탄광에서 처음으로 엔드레스 로프 도입) 8월 하시마탄광 매수 9월 16일 우스이(碓井)석탄 광구 매수(1892년부터 우스이탄광으로 채굴) *9월 26일 일본 정부, 광업조례 공포 12월 노가타(直方)에 미쓰비시탄갱사무소를 설치(규슈의 각 탄광을 통괄)

1891년	11월 25일 미쓰비시탄광사무소와 아시아미쓰비시탄광출장소를 와카마쓰(若松)로 이전 *일본 전국 석탄 생산량 300만톤 돌파
1894년	9월 8일 시모야마다(下山田)석탄 광구 매수
1895년	3월 22일 가미야마다(上山田)석탄 광구 매수 12월 6일 호쥔(方城)석탄 광구 매수
1896년	2월 25일 아라카와(荒川)광산 및 히사이치(日三市) 등 9개 광산을 매수 9월 21일 사도(佐渡)·이쿠노(生野) 광산 및 오사카제련소, 아부라토(油戸)탄광을 불하받음 *일본 전국 석탄 생산량 500만톤 돌파
1897년	4월 다카시마탄광 하시마갱에서 광부 파업 발생 5월 다카시마탄광에서 광부 쟁의 발생 7월 다카시마탄광에서 나아(納屋)제도 폐지 *10월 1일 일본 정부, 금본위제 실시(화폐법 시행)
1898년	2월 오사리자와광산에서 수력발전소를 건설 8월 사도광산 광부에 대해 安米공급제도를 개혁 9월 8일 쓰쿠호(筑豊)코크스제조합자회사의 코크스제조소(뒤에 마카야마(牧山)코크스제조소)를 매수
1899년	6월 오사카제련소전기분동(分銅)공장 완성(전기동(電氣銅) 월산 150톤, 御料局시대의 4배) 7월 사도광산에 도광장(搗鉢場, 품질이 낮은 광석을 분쇄해서 수은으로 금을 추출하는 시설)을 증설. 청화정련법(靑化精鍊法) 등을 채택해 증산을 도모
1900년	3월 사도광산에서 지역 광부를 중심으로 파업 발생 4월 사도광산, 광부 수부인(受負人)제도 개혁 10월 26일 오치(相知)탄광 매수 10월 이쿠노광산에서 수력발전소 건설
1901년	오치(相知)탄광에서 장벽식(長壁式) 채탄법 실시
1902년	다카시마탄광 하시마갱에서 화력발전소(직류 10kW) 설치
1903년	6월 23일 다카라(宝)광산 매수 7월 요시오카광산에 수력발전소 건설 *일본 전국 석탄 생산량 1,000만톤을 돌파
1904년	요시오카광산에서 갱내 시설의 전기화를 실시
1905년	광업법과 광업저당법 공포
1906년	3월 28일 다카시마탄광에서 가스폭발 사고로 307명 사망 *3월 31일 일본 정부, 철도국유화법 공포
1907년	6월 12일 가네야마광산을 매수 7월 이쿠노광산에서 광부 파업 발생 다카시마광산 하시마갱에서 전력을 갱내 시설로 이용하기 시작
1908년	12월 사도광산에서 갱내 조명용 휴대 아틸렌등을 고안하고 특허를 받음
1910년	9월 가네다(金田)탄광 매수
1911년	2월 15일 도기(富來)광산 매수 4월 18일 요시타니(芳谷)광산 매수 6월 5일 조선 검이포(황해도 송림)철광산 매수

	10월 12일 다카토리(高取)광산 매수 12월 오유바리(大夕張)탄광주식회사에 자금을 대여하고 생산되는 석탄의 독점판매권을 취득
1913년	3월 12일 아시베쓰(芦別)석탄광구 매수 4월 이쿠노광산에 제련소 완성 신뉴(新入)탄광에 전기권상기 설치 *일본 전국 석탄 생산량 2,000만톤 돌파
1914년	4월 22일 비바이(美唄)탄광에 자금을 대여하고 향후 8년간 생산되는 석탄의 독점판매권을 취득 6월 9일 오키야마(奥山)광산 매수 *7월 28일 제1차세계대전 발발(일본은 8월 23일에 참전)
1915년	12월 15일 호조탄광에서 가스폭발사고로 671명 사망 4월 다쿠시(多久)광업주식회사에 자금을 대여하고 생산되는 석탄의 독점판매권을 취득 4월 29일 비바이탄광 매수 8월 12일 쓰나토리(綱取)광산 매수 8월 23일 겐이포광산을 겐이토제철소로 개칭 9월 29일 비바이철도주식회사 설립
1916년	1월 24일 오유바리탄광 매수 12월 28일 사사우라(佐々浦)석탄광구 매수 12월 다카시마탄광 하시마갱에 철근콘크리드로 7층 아파트 완성
1917년	*9월 12일 일본 정부, 금 수출 금지
1918년	4월 10일 자본금 5천만엔으로 미쓰비시광업(주)을 설립. 발기인: 이와사키 야노스케(岩崎彌之助) *8월 도야마의 쌀폭동이 확대되면서 전국에 파급
1919년	홋카이도석탄철도주식회사 설립 *일본 전국 석탄 생산량 3,000만톤 돌파
1921년	7월 비바이광업소 비바이입갱(立坑)(깊이 170미터)의 굴착 완료
1923년	9월 간토지진 발생
1924년	홋카이도(北海道)석탄철도주식회사의 경영에 참가 비바이광업소에서 갱내 운반에 축전지식 기관차를 사용
1925년	*일본 정부, 농상무성을 폐지하고 농림성(農林省), 상공성(商工省) 설치
1926년	3월 22일 미쓰비시합자, 조선 김제군 사금광구 계약 6월 26일 석유 및 해외의 광업조사사업을 미쓰비시합자로부터 계승 10월 오사리자와광산에서 일본광부조합의 지도로 노동쟁의 발생
1927년	2월 15일 조선무연탄회사 설립 *3월 금융공황 발생 3월 24일 오사리자와탄광에서 노동자 파업 발생
1928년	5월 10일 조선 경성사무소 설치 10월 이즈시(出石)광산 매수 12월 5일 남사할린의 미나미카라후토(南樺太)·나이호로(内幌)석탄 광구 647만평 취득
1929년	4월 23일 조선 우익광산(평강군 소재) 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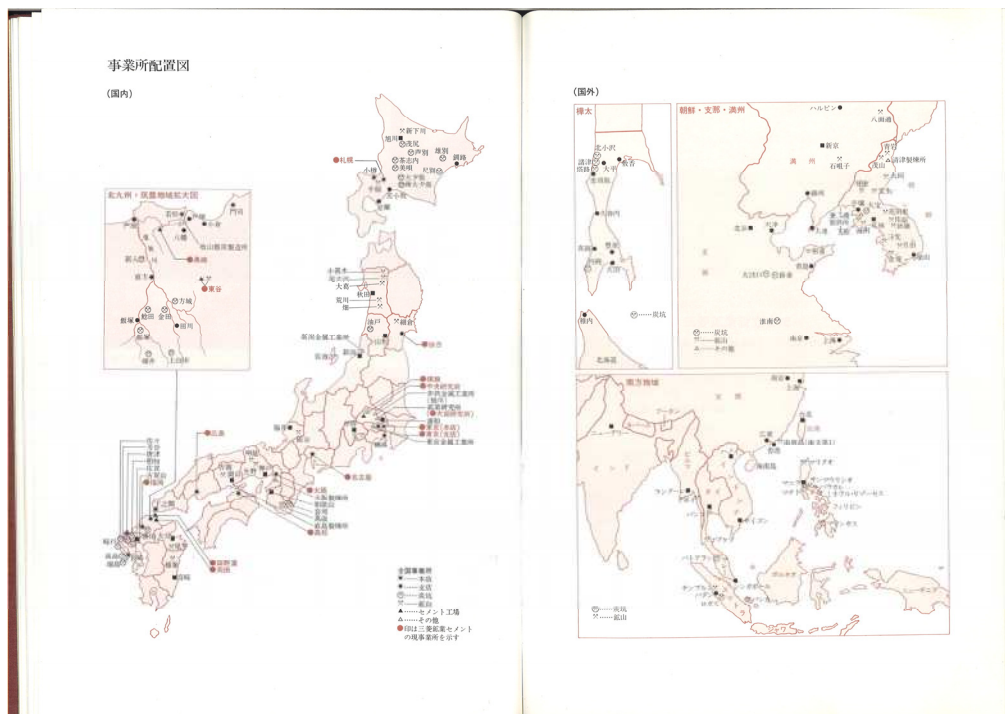
1930년	5월 아사카와(淺川)광산 매수
	6월 1일 도쿄지점 설치
	8월 1일 나이호로철도주식회사를 설립
	8월 나카지마(中島)광업 전주식을 매수하여 사명을 이즈카(飯塚)광업주식회사로 변경
	8월 이즈카탄광의 나야제도를 폐지
	11월 남사할린의 미나미카라후토 · 나이호로 석탄, 채굴작업을 착수
	1월 1일 조선 김제광업소를 설치(사금채취사업을 개시)
	*1월 11일 일본 정부, 금 수출 해금 실시
	9월 비바이광업소의 나야제도 폐지
	이 해에 사키토(崎戸)탄광에 KK식부유선광기 설치
1931년	3월 11일 요시오카광산 채굴 중지
	*4월 1일 일본 정부, 중요산업통제법 공포
	*9월 18일 만주사변 발발
	10월 1일 조선 해주광산을 무상으로 양도받음
	*12월 13일 일본 정부, 금 수출 재금지 실시(쇼와공황이 정점에 달하다)
1932년	12월 24일 나이호로철도, 나이호로탄광철도주식회사로 사명 변경
	이 해에 다카시마광업소에서 철제 탄차 사용
	*1월 28일 상해사변 발발
	2월 미나미카라후토 · 나이호로 탄광 광업권과 설비 일체를 나이호로석탄철도에 양도
	4월 조선 청암광산 매수
	4월 다카토리(高取)광산 채굴 중지
1933년	9월 조선 화전리광산을 매수
	12월 28일 조선 보생광산 매수
	2월 1일 조선 경성출장원사무소 설치(조선의 광산 조사, 광산 매입, 광물 판매 등 모든 업무 담당)
	2월 조선 천우광산 매입
	2월 쓰쿠호광업소 나마즈타탄광에 갱내 벨트콘베어 설치
	6월 17일 가라쓰(唐津)광업소 오치(相知)탄광의 채굴 중지
	7월 조선광업개발주식회사 설립
	8월 15일 조선광업소 설치(경성출장원사무소를 폐지하고, 조선의 광업과 모든 관련 업무를 담당)
	8월 19일 비바이광업소 아사베쓰탄광의 채굴을 중지
	8월 조선 삼광광업 매수
1934년	11월 조선 월전광산 매수
	이 해에 미나미카라후토 · 도로(塔路)석탄 광구의 개발을 개시
	3월 호소쿠라(細倉)광산 매수
	*5월 15일 일본 정부, 석탄의 생산, 판매업에 중요산업통제법 적용
	5월 20일 요시타니탄광 채굴 종료를 위해 가라쓰광업소 폐지
1935년	6월 29일 조선 철령광산 매수
	1월 1일 나이호로탄광철도, 미나미카라후토탄광철도주식회사로 사명을 변경
	2월 미나미카라후토 · 도로 탄광을 미나미카라후토탄광철도에 양도

	3월 31일 미쓰비시제철(주) 해산
	4월 1일 미쓰비시제철(주)의 업무 일체를 계승하고 미쓰비시제철 검이포사무소를 존치
	8월 오비라(尾平)광산 매수
	9월 조선무연탄주식회사를 중심으로 조선 내 주요무연탄탄광 합동계획에 참가하고 대보탄광에 현물 출자
	12월 20일 데이네(手稻)광산 매수
1936년	4월 15일 이즈카광업의 업무 일체를 계승하고 이즈카광업소를 독립시켜 채굴 작업
	11월 20일 오사리자와광산에서 제방 붕괴사고로 362명 사망
	12월 조선 감덕광산 매수
1937년	*7월 7일 중일전쟁 발발
	7월 12일 쇼와탄광 매수
	*8월 11일 일본 정부, 금산법 공포
	8월 18일 미쓰비시합자와 미쓰비시석탄유화공업주식회사를 설립
	9월 20일 미나미카라후토·모로쓰(諸津)·기타오자와(北小澤) 탄광을 미나미카라후토 철도에 양도
	9월 주식회사 일본알루미늄제조소 경영에 참가
1938년	*4월 1일 일본 정부, 국가총동원법 공포
	4월 4일 구시로(釧路)부두창고주식회사 설립
1939년	3월 1일 청진제련소 설치
	4월 조선 대동광산 매수
	*9월 1일 제2차 세계대전 발발
	12월 6일 일본제철주식회사·닛테츠(日鐵)광업주식회사와 공동출자로 무산철광개발주식회사 설립
1940년	2월 5일 만주채금주식회사와 공동출자로 쇼토쿠(昭徳)광업주식회사 설립
	*4월 8일 일본 정부, 석유배급통제법 공포
	5월 미쓰비시광업직원건강보험조합 설립
	9월 1일 쓰나토리의 채굴 작업 중지
	9월 17일 오사리자와광업소 아라카와광산의 채굴 작업 중지
	9월 18일 규슈석탄기선을 병합하고 이 회사의 사키토광업소를 독립시켜 채굴 작업
	*일본 전국 석탄 생산량 5,631만톤(일본 역사상 최고)
1941년	3월 18일 비바이광업소에서 가스·탄진 폭발사고로 177명 사망
	*12월 8일 태평양전쟁 발발
1942년	2월 1일 도쿄금속공업소 설치
	4월 1일 미쓰비시광업건강보험조합 설립
	8월 31일 미쓰비시중공업에서 분리 독립한 미쓰비시제강주식회사 설립
	9월 신시모카와(新下川)광산 매수
1943년	*4월 상무성, 금광업정비에 관한 방침 발표(산금(産金)주의에서 산동(産銅)주의로 전환)
	*9월 1일 상무성, 탄광통합 실시 요강 발표
	*10월 31일 일본 정부, 군수산업법 공포
1944년	1월 20일 니가타금속공업소 설치
	4월 25일 소속 탄광과 광산이 군수회사법에 의해 군수회사로 지정됨

1945년	5월 15일 구라테(鞍手)탄광 매수
	5월 16일 비바이광업소에서 가스 폭발사고로 109명 사망
	5월 30일 석탄 판매업무를 일본석탄에 양도하는 방침을 결정
	8월 15일 군수대신의 지령으로 남사할린의 미나미카라후토·도로 탄광은 조업 중지
	9월 25일 미쓰비시석탄유화공업은 우베유화공업, 가라후토인조석유 두 회사와 함께 제국연류공업으로 합병
	4월 1일 미쓰비시제강으로부터 비철금속공업소를 양수
	6월 1일 조선에 하성광업소, 경성사무소를 설치하고 조선광업소를 폐지
	7월 31일 공습으로 다카시마광업소 발전소와 기타 시설이 파괴되면서 4개월간 채탄 중지
	8월 10일 공습으로 호소쿠라광업소 시설 파괴
	8월 15일 청진제련소 등 조선 소재 각 광산은 조업을 중단하고 철수 개시, 군수회사 지령 해제

미쓰비시광업(주)이 운영한 탄광과 광산 현황을 보면 아래 그림과 같다. 광산 42개소, 탄광 38개소 등 총 80개의 사업소와 광업소를 설치했고, 이 사업소와 광업소 산하에는 여러 개의 광산을 운영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의 현장은 조선인을 동원한 곳이다.



[그림 14] 三菱鑛業セメント株式會社總務部社史編纂室 編, 『三菱鑛業社史』, 1976

미쓰비시광업사사는 앞부분에 소속 광산의 모습을 여러 장의 화보로 담았다. 이 가운데 조선인이 동원된 주요 탄광산의 사진을 보면 다음과 같다.



三菱石炭鉱業南大分縣地図

往時の主要事業所



釜山炭坑(明治21年ごろ)



福島炭坑(明治35年)



新田炭坑第一坑(明治38年)



新入炭坑第一坑(明治40年代)



方城炭坑(明治40年代)



上山田炭坑(大正2年)



崎戸炭坑(大正15年ごろ)





美明原坑盤状と選原機、標品場(大正12年ごろ)



大夕張原坑(昭和7年ごろ)



尾古沢鉱山(明治30年)



生野鉱山(大正初期)



佐渡鉱山(大正時代)



福重鉱山(大正15年ごろ)



鎌倉鉱山(昭和5年ごろ)



鹿島製煉所(昭和7年)

### 3. 명부를 통해 본 사도(佐渡)광산 조선인 강제동원

조선인 강제동원 관련 명부는 진상규명과 실태 파악에 중요한 자료이다. 그러나 기재 내용이 제한적이어서 기록학(Archival Science)적 분석과 관련 자료와 교차 분석을 해야 활용할 수 있다.<sup>70)</sup> 이 글에서는 먼저 기록학적 미시적 분석을 통해 명부자료의 구성을 파악하고, 이를 관련 자료(일정시피징용징병자명부, 왜정시피징용자명부, 위원회 피해조사 명부 등)와 교차 분석을 통해 강제동원의 실태를 규명하고자 한다.

#### 1) 사도광산 조선인 광부 명부의 미시적 분석 - 명부의 구성과 내용

그간 학계는 사도광산과 관련해 일본 정부와 기업이 생산한 명부는 발굴하지 못했다. 그러나 연구단이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도광산 관련 조선인 명부 2종을 확보했다. 하나는 사도시 사도박물관이 1980년초에 수집한 총 4개소의 료(寮, 노무자 숙소)와 1개소의 사택에 거주한 조선인 명단(일부, 조선인 연초 배급명부)이고, 다른 하나는 조선총독부가 작성한 ‘지정연령자연명부’이다. 명단 전체를 공개한 적이 없고, 기존 연구에 활용한 적도 없다. 명부 2종은 사토 타이치(佐藤泰治)와 일제강제동원&평화연구회 허광무 연구위원의 도움으로 입수할 수 있었다.

명부 2종 가운데 조선인 연초 배급명부 사본은 해독이 가능해 명부자료로 활용 가능하지만, 조선총독부 작성 지정연령자 연명부는 사본의 상태가 불량해 해독이 불가능하므로 활용은 할 수 없다. 보고서에도 분석 대상은 조선인 연초 배급명부로 한정하고 조선총독부 작성 지정연령자 연명부는 간략한 소개로 그치고자 한다.

2종의 명부 입수 경위는 다음과 같다. 연구 진행과정에서 문헌자료를 분석하던 중 平和教育研究委員会 編, 『新潟縣における韓国・朝鮮人の足跡をたどる』(平和教育研究委員会資料シリーズ 第2集, 平和教育研究委員会, 2010, 6쪽)에서 명부와 관련한 내용을 발견했다. “조선인들은 시모야마노가미마치(下山之神町)의 야마노가미(山之神)사택, 신고로마치(新五郎町)의 제1상애료, 스와쵸(諏訪町)의 제3상애료, 지스케마치(治助町)의 제4상애료에서 생활했다. 이들 기숙사 가까운 곳에 있던 전당포

70) 명부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필요한 전제는 명부에 담긴 정보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도록 자리매김을 해주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첫째 요소는 생산배경과 과정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일이다. 누가, 무엇 때문에 생산했는가, 어떤 과정을 통해 생산되었는가 하는 기록물에 관한 기본정보를 정확히 파악하는 일이다. 두 번째는 명부에 담긴 정보의 배경과 토대를 밝히는 일이다. 관련 주제에 관한 법령과 행정조직 등 제도사의 뒷받침이다. 제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실태는 그저 현상(現象)이자, ‘낮선 나라’일 뿐이다. 세 번째는 명부 주인공을 박제된 상태에서 역사로 끌어올리는 일이다. 명부에 이름이 등재된 주인공(당사자와 가족)의 문헌기록이나 구술기록을 수집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명부와 관련한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관련자의 자료를 연구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네 번째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기존 연구 및 다른 자료와 비교하는 검증단계이다. 정혜경, 「국내 소장 전시체제기 조선인 인적동원 관련 명부자료의 활용방안」, 『일본 제국과 조선인 노무자 공출』, 도서출판 선인, 2011, 380쪽

점 담배가게의 구가(舊家)가 소각하기 직전의 자료 가운데에서 조선인 노동자의 명부가 발견되어 1943년 및 1945년에 기숙사에 있었던 약 460명의 조선인 이름과 생년월일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이 명부에 의하면, 등록시 연령의 대부분은 30대의 젊은이였다.” 이 문장을 근거로 해당 항목의 집필자(吉宅文壽)에게 문의한 결과, 명부 존재는 알지 못한다는 답변과 함께 명부에 대해 알 수 있는 지역 연구자(佐藤泰治 등)의 연락처를 알려 주었다.(2019년 6월 20일) 허광무 박사를 통해 사토 선생으로부터 명부의 존재에 대해 확인한 후, 2종의 명부 관련 자료를 제공받았다.(2019년 6월 24일)



[그림 15] 아사히신문 1991년 11월 14일자 기사

## □ 조선인 연초 배급명부

조선인 연초배급명부의 발굴 시기는 1980년으로 추정한다. 1991년 11월 14일자 아사히(朝日)신문 기사에 ‘10년전 쯤’ 발견했다고 언급했기 때문이다. 기사에 따르면, 1991년 11월 보도 당시, 현

지 연구자들은 명부의 일부를 공개하고, 한국 현지조사도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후 한국 현지조사 성과는 발표된 적이 없다. 명부의 수록 내용이 이름과 생년월일에 불과했으므로 현지 조사의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조선인 연초배급명부는 회사 측에서 광부들에게 담배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생산한 명부이다. 강제동원 현장에서 당국은 노무자들에게 밥은 주지 않아도 담배는 빠지지 않고 주었다. 어린아이들도 지급 대상이었다. 구술기록에 의하면, 니혼제철(주) 야하타(八幡)제철소에 끌려간 열네 살 소년(천구)은 하루에 담배를 여섯 개비씩 받았다고 했다. 소년은 담배를 피우지 않았으므로 모았다가 연합군 포로에게 몰래 주기도 했다. 천구는 어느 날 담배를 주다가 감독관에게 딱 걸렸다고 한다. 현장을 목격한 감독관은 “입 다물어! 입 꼭 물어! 너 스파이야? 너 지금 미국 놈하고 무슨 이야기 한 거야! 나쁜 간첩 놈아!”하며 악을 썼다. 짹짹 빌어서 간신히 뱀 몇 대 맞고 끝났다. 그런 일이 있은 후에는 담배를 피우는 척 불을 붙이다 슬쩍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주었다고 회상했다.<sup>71)</sup> 평소애 모은 담배를 들고 조선인이 사는 마을에 가지고 나가 먹을 것과 바꾸었다는 구술도 흔히 들을 수 있다.

조선인 연초배급명부는 사토 타이지가 제공한 엑셀 파일(이하 사토 제공 파일)과 사본 5장이다. 총 수록 조선인은 463명이다. 사토 제공 파일에는 총 242명의 이름과 생년월일(서력, 연호), 이동 관련 정보, 작성 일자 등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3명은 일본인이다. 조선인 239명 가운데 3명은 이름 외 인적 정보가 전혀 없다. 작성자는 작성의 원칙 등 알려두기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재했다.

佐渡鉱山名簿一覽表								
整理 番号	番号	寮番号	氏名	生年月日		移動		
				西暦換算	原文:元号表記	移動理由	年次	報告日
A	B	C	D	E	F	G	H	I
1	4	第三	新本舜奎	19020302	45, 3, 2M			
2	5	第三	新本魯貞	19151102	4, 11, 2T			
3	6	第三	新井詩鉉	19220202	11, 2, 2T			
4	7	第三	明本尋炳	19070701	40, 7, 1M	帰国		
5	8	第三	青木福来	19220506	11, 5, 6T			
6	9	第三	安山萬玉	19120303	45, 3, 3M			
7	12	第三	岩本命比	19110301	44, 3, 1M			
8	13	第三	岩本成龍	19200720	9, 7, 20T			
9	17	第三	岡本奉玉	19090301	42, 3, 1M			
10	18	第三	金井栄柱	19200620	9, 6, 20T			
11	20	第三	金子泰栄	19120715	1, 7, 15T			
12	21	第三	金澤鐘喆	19191202	8, 12, 2T			
13	22	第三	金澤秀燦	19140115	3, 1, 15T			
14	23	第三	金城載局	19180929	7, 9, 29T			
15	24	第三	金城寿業	19070301	40, 3, 1M			
16	25	第三	金城宣弘	19210502	10, 5, 2T			
17	26	第三	金城萬甲	19220505	11, 5, 5T			
18	27	第三	金田昌熙	19220802	11, 8, 2T			
19	28	第三	金原行洙	19140221	3, 2, 21T			
20	29	第三	金原振浩	19100506	43, 5, 6M	軍緊急工作隊	19450620	

[그림 16] 사토 타이지 제공 엑셀 파일의 일부

71) 정혜경, 『아시아태평양전쟁에 동원된 조선의 아이들』, 섬앤섬, 2019, 82쪽

나머지 1장(상애료 1-B)은 107명의 이름만 있는 자료인데, 43명은 앞의 4장 명단과 중복되고 나머지 74명은 중복자가 아니다. 상애료 1-B의 기재순서는 상애료 1-A와 일치하지 않는다.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활용에 제한적인 자료이므로 전체 현황을 파악하는 정도로 활용할 수 있다.



[그림 19] 상애료 1-B

72) 자료 제공자는 118명이 기재되어 있다고 했으나(6월 24일 허광무 박사에게 보낸 이메일), 기재 중 삭제한 1명(石川鍾太)가 있으므로 실제 기재된 인원은 117명이다.

73) 일부 1945년 6월 작성 명부도 있으나 3건에 불과하고 3월 31일자 연도를 알 수 없으므로 1944년을 기준으로 연령 분포를 살펴보았다.



463명 가운데 10명이 해방 이전에 귀국했고, 7명이 일시귀선과정을 통해 탈출한 기록이 있다. 탈출자의 경우에는 사토 입력 명부에 ‘일시귀국 및 도주(一時帰国及び逃走)’로 명시되어 있다. 발생 시기는 기재되어 있지 않아 파악할 수 없다.

‘일시귀선(또는 일시 귀국)’이란, 일본의 전시체제가 이전부터 당국이 조선인의 도일을 규제하는 방법으로 사용한 제도이다. ‘일시귀선증명서’는 1929년 8월 내무성 경보국장이 각 부현에 내린 통첩 ‘조선인노동자 증명에 관한 건’을 통해 실시한 이후 1944년 12월 22일 각의결정(조선 및 대만 동포에 대한 처우개선에 관한 건)이 내려지기까지 사용했다.<sup>74)</sup> 이 통첩에서는 특히 일시귀선증명서제도에 관해 5개 항목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조선에 돌아가기 앞서 고용주 아래에서 동일 지역에 종사할 것을 선서하는 증명하부원(證明下付願)을 고용주 연서로 취업지 소재 관할 경찰서에 제출할 것’, ‘귀래(歸來)기한은 증명서 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귀래 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발행지 경찰서에 반납할 것’ 등이다. 복잡한 서류 수속과 1개월이라는 기간 등을 통해 조선인의 재도일을 제약하는 수단으로 활용했다.

일시귀선증명서제도는 1930년 7월 약간의 보완을 거친 이후 1930년대 전 시기 동안 조선인 도일을 통제하는 제도로써 역할을 담당했다.<sup>75)</sup> 1938년 7월 내무성과 조선총독부간 체결한 ‘내선협정’에서 내무성은 조선총독부의 의견을 반영해 일시귀선증명서 발급을 ‘공장 및 광산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에 국한하지 않고 기타 노동자, 일반고용인 중에서 재도일하여 취직처가 확실한 자, 유식직업에 종사하는 자, 그리고 자영업자 중에서 희망자에 대해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sup>76)</sup>

이것이 일시귀선이란 복귀(歸來)를 전제로 한 귀향이며, 완전한 귀향이 아니라 일시방문이다. 조선인의 도일을 억제하려는 의도로 만들었지만 전시체제기에는 오히려 귀래(歸來)를 위한 제도로 기능했다. 그러므로 해당 작업장은 일시귀선대상자들의 본적지 경찰서를 통해 일정한 검증절차를 거치고, 작업장 소재지 경찰서장 명의의 일시귀선증명서를 발급했다. 일시귀선 사유는 가족의 사망이나 질병 악화, 본인의 결혼, 가족동반 등이고, 만기 후 재계약자의 경우에도 가족동반이나 휴가 및 위안 개념으로 허용했다. 일시귀선증명서는 유효기간, 발행일시, 인적사항(이름, 생년월일, 본적지, 행선지), 고용주, 귀선 용무 등이 기재되어 있고 관인이 찍힌 사진을 붙여서 본인 확인을 하도록 했다. 유효기간은 4주 정도이므로 귀래 기한도 이를 넘지 못했다. 그러므로 당국은 근무 기간 2년 이내의 노무자가 일시귀선을 요청하면, 관할 경찰서(또는 해당 기업)가 본적지 경찰서에 조회를 거쳐 기업이 허락할 정도로 철저하게 관리했다. 이렇게 철저하게 관리하는 제도였음에도 사도광산에서 7명의 ‘일시귀선 도중 탈출자’가 발생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탈출자를 본적지 경찰서가 파악하지 못

74) 각의결정에서 ‘내지도항제한제도의 폐지’가 명시됨으로써 일시귀선제도 자체가 사라지게 된 것이다.

75) 内務省警保局, 「特高警察通報」(정혜경, 「일제하 재일한국인 민족운동의 연구 - 大阪지방을 중심으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9, 34쪽 재인용)

76) 조선총독부는 유효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2개월로 할 것을 요청했으나 내무성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内務省警保局, 「社會運動の狀況」, 1940년판, 963~966쪽(김광열, 「1940년대 일본의 도일한인 규제정책에 관한 연구」, 『한일민족문제연구』 10, 2006, 211~212쪽 재인용)

했거나 묵인했을 가능성이 있다. 두 가지 가능성 모두 일본의 전시체제 시스템이 이완된 사례이다.

10명의 귀국자는 1943년 금광업 조정령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 유족을 대상으로 하는 현지조사 과정(2019년 6월 26일 논산군 논산읍)에서 1943년 귀국자를 확인할 수 있었다. 1943년 금광업조정령으로 인한 광산의 휴산 조치로 금 채굴을 중단하고 구리 채굴로 전환할 때, 인력 조정 과정에서 귀선시킨 것으로 보인다.

## □ 조선총독부 작성 지정연령자 연명부

총 4장의 사본에 100명의 이름과 생년월일, 본적지, 거주 장소, 처리, 통(通)번호 등 총 6개 항목이 기재되어 있다. 작성 시기와 작성 부서는 알 수 없다. 표지가 없는 것으로 볼 때 자료 중 일부의 사본인 것으로 보인다. ‘조선총독부’ ‘지정연령자연명부’가 명시된 양식에 수기(手記)로 기재했다. 사본의 상태가 불량해 이름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본적지가 함남 갑산과 경북(영덕, 봉화, 청송, 의성, 영일군)이라는 점과 1901~1923년 출생자임을 알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사도광산 동원 조선인의 출신지역을 충남과 충북으로 파악했으나 이 명부를 통해 조선의 다양한 지역에서 동원했음을 알 수 있다. 작성 시기를 알 수 없으므로 동원 당시 나이는 특정할 수 없다.

[그림 20] 조선총독부 작성 지정연령자연명부의 사본 중 일부

양식에 기재된 용어가 ‘지정연령자 연명부’라는 점을 볼 때 특정 나이를 대상으로 한 명부로 보인다. 조선에서 노무 동원과 관련해 당국은 총 4단계의 과정을 거쳤다.

○ 제1 단계 : 노동력 조사 및 등록

○ 제2 단계 : 요청. 노동력이 필요한 기업, 다음 해 필요한 인원수를 일본 후생성(厚生省, 남양 군도는 남양청南洋廳)에 신청 ⇒ 후생성(또는 남양청), 기업별로 인원을 할당하고 고용 허가

를 내줌 ⇒ 허가를 받은 기업(또는 남양청), 다시 조선총독부에 모집 허가를 신청 ⇒ 조선총독부, 신청을 받아 인원 조정 확정

- 제3 단계 : 조선총독부, 기업담당자와 함께 지정된 지역에서 할당된 인원수를 동원
- 제4 단계 : 조선총독부, 기업담당자와 함께 수송<sup>77)</sup>

4단계 가운데 1단계에서 다양한 종류와 이름의 동원대상자 명부를 생산했다. ‘각도 노동출가 및 전업자수 조사’ 등 작성 필요성에 따라 명칭은 다양했다. 또한 송출 과정에서도 명부를 작성했다. ‘남양행노동자명부’가 대표적이다. 도일 서류를 발부하고 수송하는데 필요한 명부였다. 그러한 점을 볼 때 이 명부는 이 단계 가운데 첫 번째 단계와 세 번째 단계에서 작성했을 것으로 보인다. 총 4장의 사본은 부록에 수록했다.

## 2) 사도광산 조선인 공탁금 관련 명부

일본 국립공문서관 쓰쿠바(筑波)분관에 「조선인의 재일자산조사보고철- 귀국 조선인에 대한 미불임금채무 등에 관한 조사결과」와 「경제협력 한국·105조선인에 대한 임금미불채무조」라는 제목의 자료가 있다. 인원수(1,140명)와 공탁금액(231,059.59엔)에 불과해 인적 정보는 확인할 수 없다.<sup>78)</sup>



[그림 21] 조선인의 재일자산조사보고철 표지

「조선인의 재일자산조사보고철 - 귀국 조선인에 대한 미불임금채무 등에 관한 조사결과」은 「조선인의 일자산조사보고서철」에 편철된 20건의 자료 가운데 하나이다. 「조선인의 재일자산조사보고서철」은 자료의 성격을 기준으로 크게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전반부의 총 405쪽(표지 포함 407쪽)은 문서명이 전보안(電報案)으로 되어 있는데 홋카이도를 비롯한 36개 도도부현별로 조사하여 노동성 기준국 급여과장 앞으로 보낸 「귀국 조선인에 대한 미불임금채무 등에 관한 조사 결과」이고, 나머지 279쪽 분량은 1945년 패전 후 조선인의 미불임금채무 등에 대한 조사와 공탁에 관한 연합국군최고사령부(GHQ/SCAP)와 법무성·대장성·노동성·대일본산업보국회(大日本産業報國會) 및 각 도도부현 간에 주고받은 공문서이다.

사도광산의 미불금 기록이 있는 자료는 전보안에 수록된 「

77) 허광무 외, 『일제강제동원 Q&A(1)』, 도서출판 선인, 2015, 53~5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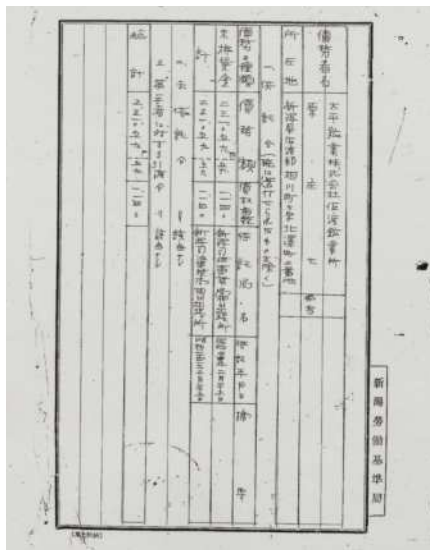
78) 이 자료에 대해서는 정혜경, 「일제말기 조선인노무자 공탁금 자료, 세 가지」(『강제동원을 말한다 - 일제강점기 조선인 피징용 노무자 미수금 문제』, 도서출판 선인, 201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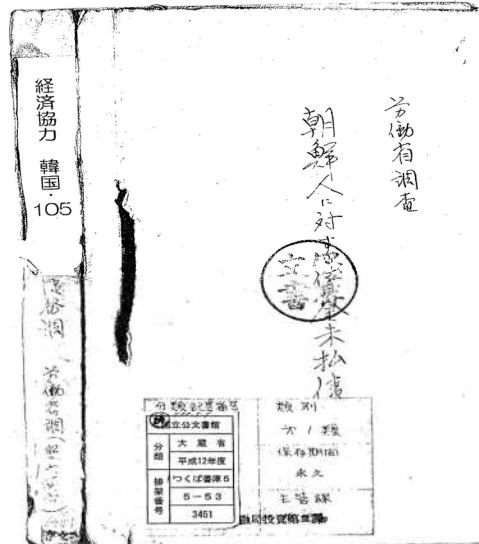
귀국 조선인에 대한 미불임금채무 등에 관한 조사결과」이다. 수록 정보는 다음과 같다.

문서철	기업명	作業所명	현	군	정/촌	번지	공탁/ 채종류	공탁/ 채무액	공탁/ 채무자수	공탁/ 공탁국명	공탁 연월일	공탁(계)/ 금액	공탁(계)/ 인원
자산철 095	太平鑛業 <sup>9)</sup>	佐渡鑛業所	新潟縣	佐渡郡	相川町	大字北澤町 2번지	미불임금	231,059.59	1,140	新潟사법사무국 相川출장소	1949.2.25	251,059.59	1,140

「경제협력 한국·105-조선인에 대한 임금미불채무조」는 대장성 국제금융국이 작성한 문서철이다. 일본 국립공문서관 쓰쿠바 분관 소장 자료이다.



[그림 22] 사도광산 해당 부분



[그림 23] 경제협력 한국·105-조선인에 대한  
임금미불채무조 표지

사도광산과 관련한 공탁기록은 한 줄에 불과하다. 1,140명의 미불임금을 공탁했음을 알 수 있다.

기업명	채권자수	사업장	도부현	공탁처	채권자수	채무종류	수록면
大平鑛業	1522		岩手	盛岡供託局花巻出張所	212	保管中の有価証券/賃金他未払金	79
		尾去沢	秋田	秋田司法事務局大館出張所	170	公傷死亡者弔慰金/公傷死亡者香典/退職慰勞金/ 賃金補給金/厚生年金脱退手当金/貯金	85
		佐渡鑛業所	新潟	新潟司法事務局相川出張所	1140	未払賃金	131

神奈川	富士電機製造 (株)	近藤多喜子	53	25,227	72	26.12.20 横浜建設局
〃	味の素 川崎工場	浦島金	10	1923	80	27.1.4 横浜万代ビル
〃	日本通運(横浜支店)	郵便部金	14	240	00	28.2.18
〃	新日本鐵道	浦島金	25	12,881	51	横浜建設局
〃	馬淵建設(株)	松科	7	5,857	94	28.6.1 (建設省)
	計		634	67,691	03	横浜地方裁判所
新潟	大井物産(新潟支店)	末武信金	1140	231,059	57	26.2.25 新潟建設局 (新潟県)
〃	新潟電機(株)新潟支店	新潟電機 新潟支店	22	339	43	28.2.12 新潟建設局
〃	日本通運(新潟支店)	新潟通運 新潟支店	28	986	09	28.2.20
〃	〃	新潟通運 新潟支店	23	90	86	〃
〃	〃	新潟通運 新潟支店	94	2,579	96	〃
〃	〃	新潟通運 新潟支店	27	170	81	〃

[그림 24] 사도광산 해당 부분

두 건의 공탁기록은 두 가지를 의미한다. 하나는 최소한 1,140명의 조선인이 강제동원되었다는 점이다. 또 다른 하나는 이들의 급여와 저축, 각종 보험금을 본인에게 지불하지 않고 공탁했다는 점이다. 더구나 공탁기록에는 개인별 정보가 없어서 개별성도 확인할 수 없다.

### 3) 위원회 피해조사 명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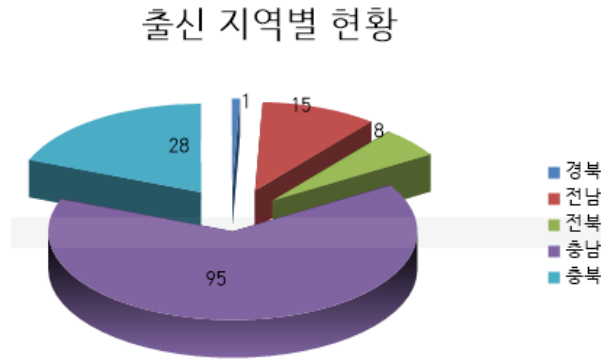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판정한 218,639건 가운데, 연구팀이 사도광산 동원 피해자로 추정된 규모는 148명(여성 1명 포함)이다. 이 명단은 2015년 위원회가 일본의 사도광산 세계유산과 관련해 보도자료 작성(작성자: 정혜경)을 위해 추출한 명단으로 보도자료에 첨부했던 공개 자료이다. 이름과 접수번호, 중복동원(전근) 내용만 담은 명부이다. 동원지역은 피해의결서의 동원지역과 일치하지 않는다. 피해판결 당시에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미상의 작업장'이나 '니가타현 소재 불상의 광산'으로 판정한 내용 가운데, 작업장 주소를 확인하거나 동행자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추출했기 때문이다. 또한 위원회가 '사도광산' 피해자로 결정했으나 해당 유족이 홋카이도 등 다른 지역으로 기억하는 경우도 있었다.

수록 내용 가운데 전근 내용은 연구 성과에서 언급한 지역과 동일 지역(사이타마, 후쿠시마현)을 찾을 수 있다. 148명을 대상으로 일제시기징병징용자명부를 통해 동일 인물(36명)을 추출해 국내 현지조사 및 전화조사를 실시했다.

이 명부를 통해 피해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피해유형, 본적지(군 단위), 동원기간, 동원시 연령을 파악해야 한다. 본 보고서에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제공 받은 자료 가운데 개인정보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한에서 활용했다. 그러나 제공 받은 자료 가운데 누락되거나

불확실한 내용(피해유형, 생년월일 등)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다. 생년월일 기록이 있다면 동원 시기의 연령도 확인할 수 있으나 생년월일 기록을 제공 받지 못해 분석에 포함하지 못했다.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출신 지역 : 148건 가운데 본적지를 파악할 수 없는 1건을 제외한 147명의 출신 지역 현황은 다음과 같다.



[그림 25] 출신 지역(본적지) 현황

147명의 출신 지역은 충남과 충북, 전남과 전북, 경북 등 5개도이며 이 가운데 다수는 충남이다. 군 단위로 살펴보면, 공주(4명), 논산(55명), 대덕(1명), 청양(12명), 부여(7명), 서천(1명), 연기군(5명) 등 7개 군이다.

충북은 청원군(23명)과 청주군(5명)에 집중되어 있고, 전남은 진도군이 다수이지만 장흥과 완도, 담양, 나주군 등 분포지역이 충북에 비해 넓은 편이다. 전북은 완주와 익산·정읍군에, 경북은 울진군에서 동원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총독부 지정연령자연명부의 경북 지역 등재자(영덕, 봉화, 청송, 의성, 영일군)와 일치하지 않는다.

- 동원 기간 : 148명 가운데 145명의 동원 기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의 동원 시기는 1938년 4월부터 1945년 4월까지 매우 광범위하다. 시기별로 보면, 1938년 7명, 1939년 12명, 1940년 21명, 1941년 32명, 1942년 25명, 1943년 22명, 1944년 22명, 1945년 4명이다. 1939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1944년까지 골고루 분포되어 있고 1941년이 가장 많다.

자료상으로 확인이 가능한 142명의 강제동원 종료 시기를 보면, 1941년부터 1946년 1월까지 분포되어 있다. 이 가운데 다수는 1945년 8월 이후이지만 26명은 이전에 귀환했다. 종료 시점에서 주목할 부분은 금광산조정령에 의해 사도광산의 인원 감축이 이루어진 시기에도 귀환자는 많지 않았다는 점이다. 현지 사망자 1명을 포함해 3명이 1943년에 귀환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를 통해 사도광산의 인원 감축 후에도 많은 광부들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

고 다른 작업장으로 전근되었다고 판단된다.

- 관련 자료 현황 : 148명 가운데 110명(피해조사 당시에는 파악하지 못했으나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파악한 명부에 등재된 37명 포함)이 관련 자료를 보유하거나 관련 명부에 이름이 등재되어 있었다. 이 가운데 25건은 2건 이상의 자료를 가진 피해자들이었다.

연구단은 위원회 피해조사과정에서 파악하지 못한 피해 건수를 연구단의 추가 조사를 통해 37건 추출할 수 있었다. 구체 내용을 살펴보면, 위원회 피해조사 명부 수록자 가운데 조선인 연초배급명부에 등재된 동일인을 22명 확인했다. 일정시피징병징용자명부와 조선인 연초배급명부 일치자도 6명 확인했다. 일정시피징병징용자명부에서 36명을, 왜정시피징용자명부에서는 5명을 확인했다. 총 63명 가운데 중복 확인자를 제외하면 총 37명이 추가한 수치이다. 연구단이 추가한 내용은 부록에 수록한 명부에 별도의 색으로 표시하고 범례에도 기재했다. 일정시피징병징용자명부와 왜정시피징용자명부의 모집단이 많음에도 확인율이 높지 않은 이유는 이들 명부가 사도광산에 동원된 피해자의 출신 지역 전체를 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명부 모두 북한지역 출신자를 담고 있지 않으며, 일정시피징병징용자명부는 전북 지역이 누락되어 있다.

일정시 피징용징병자 명부	왜정시 피징용자 명부
수록인원 : 228,724	수록인원 : 285,771
- 작성배경 : 제2차 한일회담 준비를 위해 전국 단위로 조사하고 도별로 취합해 제출한 명부로써 1953년 1월 내무부가 최종 취합 합본	- 작성배경 : 제4차 한일회담에 대비하여 1957~1958년에 걸쳐 노동청이 전국 단위로 신고를 받아 도별로 취합한 명부
- 내용 : 성명, 생년월일, 주소(면리 단위), 동원기간, 동원지, 귀환 및 사망 여부 등 수록. 군인, 군속, 노무자 등 포함	- 내용 : 성명, 동원 당시 연령, 주소(면리 단위), 동원일, 귀환 및 사망 여부, 귀환일 등 수록. 군인, 군속, 노무자 등 포함
- 특징 : 현존하는 最古의 강제동원 명부로써 정부 수립과 6.25전쟁 등 혼란한 시기에 정부가 국가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한 사례 *13.6. 주일 한국대사관 신축 이전과정에서 발견된 명부 3종 중 하나	- 특징 : 위원회가 전국 시군구 공무원 약 2천여 명과 합동으로 '06.6.~'08.12.(총 2년6개월)에 걸쳐 전수조사를 실시. 211,342명에 대한 검증을 완료하여 118,520명을 피해자로 확인 '검증-왜정시피징용자명부'로 활용

또한 관련 자료 현황 분석 과정에서 피해조사 결과의 오류도 파악했다. 박재설(북구-170)은 귀환 후 사망자인데, 피해조사과정에서 현지 사망자(군무원)의 기록(피징용사망자연명부/해군군속자명부: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 구해군군인이력원표/군속선원명표)을 통해 피해자로 판단했다. 명백한 오류로 판단된다.

- 현지 사망과 후유증 상황 : 148명 가운데 9명이 현지에서 사망했고, 무려 73명이 후유증을 신

고했다. 충남 청양군 출신의 유성현은 동원된 후 3개월 만에 갯내 사고로 사망했다. 9명 가운데 7명은 유골을 봉환했다. 9명의 사망자는 148명 가운데 6%에 이른다. 사망자 6%의 비율은 당시 일본지역 탄광과 광산 노무자의 사망률과 비교해보면 매우 높은 비율이다. 제2장 제2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 전 지역 조선인 노무자 사망률은 0.9%(1939.10~1942.10 기준)이고, 후쿠오카 관내 조선인 노무자 사망률은 0.6%(1944년 1월 기준)이며, 고노마이 광업소 전근자들의 사망률은 1.7%이다. 그런데 사도광산 피해자의 사망률은 무려 6%이다.

이같이 사도광산 조선인 광부들의 사망률이 높은 것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자료만으로 사도광산 피해자의 사망률이 높았다고 확정할 수는 없다. 위원회 피해자 조사명부가 갖는 특성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지 사망자들은 피해신고인이 피해신고의 과정에서 입증 서류를 제출할 수 있었으므로 신고율이 높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사도광산의 사망자 비율에 대해서는 다양한 자료를 통한 연구가 필요하다.

후유증 가운데 다수는 진폐증이다. 73명 가운데 30명이 진폐증으로, 15명이 폐질환으로 신고했다. 이를 통해 45명이 진폐증을 앓았음을 알 수 있다. 반수 가까운 광부들이 진폐증의 고통을 경험한 것으로 보인다. 진폐증의 고통은 국내 현지 조사에서도 확인한 내용이다. 국내 현지조사 결과는 제5절에 기술했다.

- 기타 내용 : 148명 가운데 현지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한 광부는 16명이다. 이 가운데 1명을 제외한 15명이 조선에서 아내를 불러 가족을 꾸렸다. 1명에 해당하는 김배산은 현지에서 다른 조선인 광부인 백남형의 딸과 결혼했다.

148명 가운데 11명은 다른 지역으로 전근된 것으로 보인다. 전환배치된 지역은 후쿠시마(4명)와 사이타마현(2명)이 가장 많다. 1945년 8월 전국광산특별정신대로 전근된 사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국광산특별정신대 전근에 대해서는 제5절에서 언급했다.

## 4. 사도광산에 동원된 조선인 광부의 경험 세계

1916년 7월 경남 남해에서 태어난 천옥돌은 열여덟 살인 1934년 10월 고향에서 결혼했다. 남편의 나이는 서른셋이었는데, 젊었을 때부터 규슈 탄광을 비롯해 이곳저곳을 다니며 일을 하던 일반도일자였다. 결혼을 위해 일시귀국을 한 남편이 결혼한 이듬해 혼자 일본으로 가버리자 천옥돌은 1936년 6월 생후 5개월 된 아들을 업고 시모노세키를 거쳐 사도섬으로 왔다. 일본말을 전혀 할 줄 몰랐기에 물을 마시고 싶어도 마실 수 없었고, 배가 고파도 먹을 수 없는 고생을 하며 간신히 도착했다.

남편은 시누이 부부와 함께 사도섬에서 아이들을 상대로 얼음과자를 만들어 팔고 있었다. 설탕을

물에 녹여 눈을 조금 섞고 소금을 넣어 병에 얼린 것이었다. 천옥돌은 아이를 업고 손수레에 얼음과 자 100개를 싣고 하루 종일 행상을 했다.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는 생활이었다. 그래도 조선에서 사는 것 보다 경제적으로 나았으므로 1939년에 고향에 있는 여동생과 남동생을 불러들였고, 2년 후에는 어머니와 친척도 불렀다. 비록 전쟁시절이었지만 가족 친지가 모여 살았다. “전쟁 중에 육지에는 먹을 것이 없었지만 사도에서는 열심히만 일하면 먹는 것을 걱정할 필요는 없었어요.” 패색이 짙어지자 B-29가 사도 하늘까지 날아와 섬사람들은 겁에 질리기도 했으나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다.

천옥돌은 1936년 사도섬에 들어간 이후 2년간 고향에서 산 것을 제외하면, 한 발자국도 섬을 나간 적이 없었다. 해방 후에는 조선 엿을 팔거나 고무신 수리, 폐품 수집 등을 하며 여덟 명의 아이들을 키우고 살았다. 그녀에게 사도는 “일이 없어도 살기가 좋은” “마음이 편한 곳”이다.<sup>79)</sup>

이같이 천옥돌이 평생 사도섬을 고향 이상으로 여기며 살 수 있었던 것은 강제동원과 무관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강제동원을 경험하고, 살기 위해 탈출을 감행한 광부에게 사도에서 생활은 고통스러운 기억이었다.

1919년 12월 20일 충남 논산군에서 태어나 1940년 11월 사도에 동원되었던 임태호가 주인공이다. 1997년 9월 사망할 때까지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川崎市)에 살았던 임태호는 1997년 5월 사망하기 직전에 길지 않은 구술을 남겼다. 이 구술은 현재 유일한 사도광산 생존자의 구술 기록이다.

임태호는 1940년 11월 ‘모집’이라는 형태로 젊은 동료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일본 땅을 밟았다. 스무 살의 청년이었다. 좁은 배에는 조선인으로 넘쳐났다. 니가타현 사도섬에 도착하니 산속 오지의 산 정상에 함바(飯場, 노동자숙소)가 있었다. 아이카와(相川)라는 곳이었다. 갈 때는 ‘모집’이라고 해서 ‘자유 모집’이라고 생각했는데, 도착해서 ‘징용’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미쓰비시 사도광산 생활이 시작되었다. 함바에서 일하는 곳까지는 걸어서 1시간 반이나 걸렸는데, 평탄한 길이 아니라 오르내리는데 고생스러운 거친 길이었다. 더운 여름날에도 고생스러웠지만 추운 겨울에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었다. 눈이 무릎까지 쌓여 있었으므로 일하는 곳에 도착하면 다시 돌아가는 과정이 일하는 것 이상으로 힘들었다.

임태호가 하는 일은 지하에서 광석 채굴이었다. 지하에서 하는 작업은 죽음을 맞닥트리는 일이었으므로 하루하루가 공포 그 자체였다. 매일 같이 낙반 사고가 있어서 ‘오늘은 살아서 이 지하를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며 마음을 줄이고 살았다. 사망자에게 인간 대접이라는 것은 없었고, 아무런 조의(弔儀)도 없었다.

임태호는 운이 좋았는지 다행히 살아남았다. 그러나 그도 지하에서 작업 중에 하시고(발판)가 떨어져 큰 부상을 입고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졌다. 지하에서 밖으로 실려 나갈 때까지는 의식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의식을 잃었다. 정신이 든 곳은 병원이 아니라 함바의 이부자리였다. 허리를 강하게 맞아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병원에도 가지 못하고 열흘 정도 누운 채 지냈다. 간신히 일

79) 李朋彦, 『在日1世』, 2007(이봉언 지음, 윤상인 옮김, 『재일동포 1세, 기억의 저편』, 동아시아, 2009), 366~369쪽

어날 수 있게 되자 다시 일터로 돌아가야 했다. 병에 걸려도 이를 이상은 설 수 없는데, 열흘이나 일하지 않았으므로 더 이상 일하지 않는다는 것은 절대로 용납되지 않았다. 작업 중에 두 번째 부상을 입어 다시 손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이대로는 살아서 고향 땅을 밟는 것도 사랑하는 가족과 같이 지내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임태호는 탈출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히로시마(広島)로 탈출에 성공했다. 이후 이곳저곳을 다니며 일을 구하다가 가와사키에 정착해서 조국의 해방 소식을 듣고 너무나 감격한 나머지 말보다 눈물이 먼저 나왔다.

임태호에게 조국의 해방은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받은 모욕적인 경험으로부터 해방이기도 했다. 그는 “전후 반세기 이상이 지났으나 오늘날에도 여전히 일본 정부로부터 진심 어린 말 한마디를 들은 적이 없다. 죽은 동료들도 지금은 모두 성불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나와 같은 경우에 있었던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살아 있는 동안에 성의 있는 진정한 사죄를 받기를 원한다”는 말로 구술을 마쳤다.<sup>80)</sup>

임태호는 ‘자유 모집’으로 알고 갔는데, 현지에서 ‘징용’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했으나 근거는 밝히지 않았다. 임태호가 동원된 1940년 11월에 입산한 조선인 광부들은 모두 ‘할당모집’이라는 경로로 동원되었다. 임태호의 구술은 ‘자유로운 상태의 노동자’로 알고 갔으나 ‘강제적 상태의 노동자’라는 의미였을 것이다. 법적인 경로는 할당모집이었으나 피해자들이 체감하는 강제동원은 ‘징용’이었음을 알 수 있다.

사도광산은 직할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임태호는 두 번이나 부상을 입은 와중에도 병원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다. 여러 차례 부상은 임태호에게 탈출의 계기가 되었다. 임태호가 사도광산을 탈출한 시기는 밝히지 않았다. 사도광산은 섬이라는 구조로 인해 탈출이 쉽지 않은 곳이었다. 뒤에서 상세히 기술했으나, 조선인의 탈출은 현지 어부나 주민들의 도움 없이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또한 조선인 연초배급명부에 의하면, 주로 탈출은 일시귀선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임태호는 일시귀선과정과 다른 방법으로 탈출했다. 현지민의 도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임태호가 사도광산을 빠져 나와 정착한 가와사키시는 임태호 외에도 여러 명의 사도광산 경험자들이 정착한 곳이었다. 야마구치탄전의 조선인들도 가와사키시에 정착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가와사카시에 있던 니혼(日本)강관(주)에서 다양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1927년 경북 출신의 김도례는 1945년 4월 4일 가와사키공습을 경험했다. 도쿄에서 살다가 야마나시현(山梨縣)에서 생활하던 김도례 가족이 당시 가와사키에 있었던 이유는 부모님이 니혼강관의 하청작업을 하던 사카모토구미(坂本組)의 합숙소를 운영했기 때문이다.<sup>81)</sup>

생존자를 발굴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생존자의 구술은 출판물로, 유족은 현지조사과정에서 생산한 구술기록을 활용해야 한다. 그러나 출간된 생존자의 구술은 1편에 불과하고 매우 소략해

80) 朝鮮人強制連行真相調査團, 『朝鮮人強制連行の記録- 關東編』, 柏書房, 2002, 301~302쪽

81) 가와타 후미코 지음, 안해룡·김해경 옮김, 『몇 번을 지더라도 나는 녹슬지 않아』, 바다출판사, 2016, 58~59쪽

구술기록의 분석을 통한 피해실태 파악에는 한계가 있다. 연구단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유족조사도 실시하였다. 피해자 김종원과 홍동철 유족에 대해서는 면담조사를, 강신도 유족에 대해서는 관련자 조사를 실시했고, 박병순·박남주·박승만·양주석·이석운 피해자의 유족에 대해서는 전화조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김종원의 직업능력신고수첩과 보험료영수장 등 중요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었고, 귀선 시기와 진폐증에 대한 소중한 구술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유족을 통한 조사는 매우 제한적일 수 밖에 없었다.<sup>82)</sup>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관련 신문기사와 명부자료, 공안당국의 자료, 기존 연구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아시아태평양전쟁기 사도광산 조선인 강제동원을 규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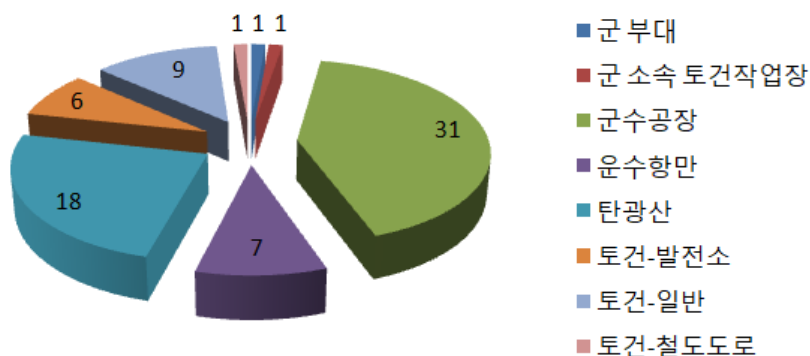
## 5. 아시아태평양전쟁기 사도광산 조선인 동원과정과 노동실태

### - 광산에서 지하공사장까지

#### 1) 니가타현의 조선인 노무동원 작업장 현황

사도광산은 니가타현의 조선인 노무동원 작업장 74개소 가운데 하나였다. 총 51개 기업이 72개 작업장을 운영했는데, 이 가운데 25개 기업이 지금도 일본에서 영업 활동을 하는 현존기업이다. 74개소의 직종별 분포 현황을 보면 그림과 같다.

니가타현의 조선인 노무동원 작업장 직종별 분포



[그림 27] 니가타현 조선인 노무동원 작업장 분포

82) 상세한 내용은 부록2) 현지조사자료에 수록



군부대에서 병사들의 막사를 짓는 노역장도 있고, 군 소속 토건작업장도 있으나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직종은 군수공장이다. 31개 군수공장은 대부분 철공과 석유, 화학, 전기, 비료 등을 생산하는 공장이다.

또한 규모는 7개소에 불과하지만 운수항만의 중요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니가타는 당시 항로가 만주로 연결되어 있어서 군수물자 수송에 중요한 지역이었다. 니가타항은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일본의 개국과 함께 주목받은 항구였다. 일본의 개국 당시 수호통상조약에서 개항을 논의한 5개 항구 가운데 하나였고, 1858년에 개항했다. 당시 당국이 니가타항을 주목한 이유는 일본해 연안에서 중앙에 위치해 있고, 시나노가와(信濃川)와 아가노가와(阿賀野川) 수운을 통해 내륙 각지를 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메이지 초기에는 수출입 화물이 두절되기도 했으나 메이지와 다이쇼(大正) 연간에 확장을 통해 일만(日滿)항로의 거점 항으로 자리 잡았다.<sup>83)</sup> 전시체제기에는 중국 전선으로 보내는 군수물자가 니가타항을 통해 나가고, 만주의 곡식이 니가타항을 통해 일본으로 들어왔다. 구체적인 작업장 목록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5] 니가타현의 조선인 노무동원 작업장 목록(직종순)<sup>84)</sup>

작업장 이름	기업(일본 패전 당시)	기업 변천(전후/최근)	구분
조선인 병사(兵士) ■ 鎧부대	해당 없음	해당 없음	군 부대
특설수상군대 니가타항新潟港	해당 없음	해당 없음	군 소속 토건작업장
가토加藤철공소	가토加藤철공소	불상	군수공장
村上(무라우치)제작소	東京(도쿄)航空(주)	불상	군수공장
蔵王(자오)공장	北越(호쿠에츠)電化工業	北越メタル(주)[HOKUETSU METAL Co., Ltd.]	군수공장
新潟(니가타)製油所	昭和(쇼와)석유(주)	昭和シェル石油(주)	군수공장
新潟(니가타)製油所 ■ ■ 分공장	昭和(쇼와)석유(주)	昭和シェル石油(주)	군수공장
鹿瀬(가노세)공장	昭和(쇼와)電工(주)	昭和電工(주)(Showa Denko K.K.)	군수공장
新潟(니가타)전기공업	新潟(니가타)전기공업(주)	불상	군수공장
直江津(나오에쓰)공장	信越(신에쓰)화학공업(주)	信越化學工業(주)(Shin-Etsu Chemical Co., Ltd.)	군수공장
新井(아라이)공장	日本(니혼)セルロイド化工(주)	불상	군수공장
新潟(니가타)제강소·전기제철소 니가타공장	日本(니혼)鋼管(주)	JFEエンジニアリング(주) (JFE Engineering Corporation)	군수공장
新潟(니가타)공장	日本(니혼)경금속(주)	日本輕金屬(주) (Nippon Light Metal Company, Ltd.)	군수공장
田口(다구치)공장	日本(니혼)무선(주)	日本無線(주)(Japan Radio Co., Ltd.)	군수공장
柏崎(가시와자키) 제유소	日本(니혼)석유(주)	JX日鉱日石エネルギー	군수공장
新潟(니가타) 제유소	日本(니혼)석유(주)	JX日鉱日石エネルギー	군수공장
日本(니혼)스테인레스	日本(니혼)스테인레스(주)	불상	군수공장
直江津(나오에쓰)공장	日本(니혼)曹達(소다쓰)(주)	日本曹達(주)(Nippon Soda Co., Ltd.)	군수공장
新發田(시바타)공장	日本(니혼)曹達(소다쓰)(주)	日本曹達(주)(Nippon Soda Co., Ltd.)	군수공장

83) 상세한 내용은 新潟市 編, 『新潟港あゆみ』(朱鷺新書, 2011) 참조

84) ■은 일본 자료에서 기재한 그대로임

작업장 이름	기업(일본 패전 당시)	기업 변천(전후/최근)	구분
二本木(니혼기)공장	日本(니혼)曹達(소다쓰)(주)	日本曹達(주)(Nippon Soda Co., Ltd.)	군수공장
青海(오우미)공장	電氣(덴키)화학공업(주)	電氣化学工業(주) (DENKI KAGAKU KOGYO KABUSHIKI KAISHA)	군수공장
直江津(나오에쓰)공장	帝國(데이코쿠)특수제강(주)	불상	군수공장
柏崎(가시와자키)공장	(주)新潟(니가타)철공소	新潟造船(주) NiigataShipbuilding&Repair, Inc. (造船부분승계)	군수공장
新潟(니가타)三條分공장	(주)新潟(니가타)철공소	新潟造船(주) NiigataShipbuilding&Repair, Inc. (造船부분승계)	군수공장
大山(오야마)공장	(주)新潟(니가타)철공소	新潟造船(주) NiigataShipbuilding&Repair, Inc. (造船부분승계)	군수공장
新潟(니가타)공장	(주)新潟(니가타)철공소	新潟造船(주) NiigataShipbuilding&Repair, Inc. (造船부분승계)	군수공장
新潟(니가타)공장 공작기계(工作機械)제2공장	(주)新潟(니가타)철공소	新潟造船(주) NiigataShipbuilding&Repair, Inc. (造船부분승계)	군수공장
新潟(니가타)철공소 入船町(이리후네초)공장	(주)新潟(니가타)철공소	新潟造船(주) NiigataShipbuilding&Repair, Inc. (造船부분승계)	군수공장
長岡(나가오카)공장	(주)新潟(니가타)철공소	新潟造船(주) NiigataShipbuilding&Repair, Inc. (造船부분승계)	군수공장
新潟(니가타)공장 柿崎(가키자키)分공장	(주)新潟(니가타)철공소	新潟造船(주) NiigataShipbuilding&Repair, Inc. (造船부분승계)	군수공장
長岡(나가오카)공장	(주)津上安宅(쓰가미야타카) 제작소	불상	군수공장
六日町(무이카마치)공장	中央(주오)전기공업(주)	中央電氣工業(주) (Chuo Denki Kogyo Co., Ltd.)	군수공장
田口(다구치)공장	中央(주오)전기공업(주)	中央電氣工業(주) (Chuo Denki Kogyo Co., Ltd.)	군수공장
上越(조에츠)통운	上越(조에츠)통운	불상	운수항만
新潟(니가타)해륙운송(주)	新潟(니가타)海陸運送(주)	(주)リンコーコーポレーション [Rinko Corporation]	운수항만
直江津(나오에쓰)	日本(니혼)국유철도	JRグループ	운수항만
新潟(니가타)항	日本(니혼)국유철도	JRグループ	운수항만
新潟(니가타)항 지점	日本(니혼)통운(주)	日本通運(주) (Nippon Express Co., Ltd.)	운수항만
長岡(나가오카)지점	日本(니혼)통운(주)	日本通運(주) (Nippon Express Co., Ltd.)	운수항만
直江津(나오에쓰)항만운송	直江津(나오에쓰)항만운송(주)	直江津海陸運送(주) (Naoetsu Kairiku Unso Co., Ltd.)	운수항만
廣谷(히로타니)광산	古河(후루카와)광업(주)	古河機械 금속(주) (Furukawa Co., Ltd.)	탄광산
南越(난에쓰)광산	東邦(도호)아연(주)	東邦亜鉛(주) (Toho Zinc Co., Ltd.)	탄광산
飯豊(이테)광산	日本(니혼)曹達(소다쓰)(주)	日本曹達(주) (Nippon Soda Co., Ltd.)	탄광산
白瀧(시라타키)광산	三協(산교)	協榮(교에이)산업 (주)	탄광산
三川(미카와)광산	日本(니혼)광업(주)	JX日鉱日石エネルギー (주)	탄광산
西川(니시카와)광산	日本(니혼)전기야금(주)	新日本電工 (주)	탄광산
小西(고니시)白崎(시라사키)광산	小西安兵衛(고니시아스호에) 상점	불상	탄광산
松代(마쓰시로) 탄광	불상	불상	탄광산

작업장 이름	기업(일본 패전 당시)	기업 변천(전후/최근)	구분
實川(지츠카와)광산	昭和(쇼와)광업(주)	昭和KDE(주) (Showa KDE Co., Ltd.)	탄광산
岩澤(이와사와)亞炭탄광	岩澤(이와사와)아탄	불상	탄광산
入廣瀬(이리히로세)광산	日鐵(닛테쓰)광업(주)	日鐵광업(주) [NittetsuMining Co., Ltd.]	탄광산
赤谷(아카타니)광산	日鐵(닛테쓰)광업(주)	日鐵광업(주) [NittetsuMining Co., Ltd.]	탄광산
田海(다미)광산	明星(메이세이)시멘트(주)	明星セメント(주)[MYOJYO CEMENT]	탄광산
佐渡(사도)광산	三菱(미쓰비시)광업(주)	太平광업(주)/三菱マテリアル(주) (Mitsubishi Materials Corporation)	탄광산
高千(다카치)광산	三菱(미쓰비시)광업(주)	太平광업(주)/三菱マテリアル(주) (Mitsubishi Materials Corporation)	탄광산
持倉(모치쿠라)광산	三井(미쓰이)광산(주)	三井金屬광업(주) (MITSUI Mining & SMELTING CO.,LTD)	탄광산
蒲葡(부도)광산	中外(주가이)광업(주)	朝日(아사히)광산(주)	탄광산
해군 제4연료창 채유부(採油部)	해군 제4연료창	해당 없음	탄광산
藪神(야부카미)발전(發電)공사	불상	불상	토건-발전소
시나노가와 信濃川발전 공사	도비시마구미	飛鳥組(도비시마구미)	토건-발전소
	니시모토구미	西本組(니시모토구미)	토건-발전소
	하자마구미	(주)間組(하자마구미)	토건-발전소
	가지마구미	(주)鹿島組(가지마구미)	토건-발전소
	니시마쓰구미	(주)西松組(니시마쓰구미)	토건-발전소
皇3736 공장 공사	高幸組(다카코구미)	불상	토건-일반
平塚(히라쓰카)비행기공장 이전공사	大倉(오쿠라)토목(주)	大成건설(주)[Taisei Corporation]	토건-일반
中野町(나카노정) 합바(飯場)	白石(시라이시)기초공사(주)	불상	토건-일반
白石基礎・中野町 합바(飯場)	白石(시라이시)기초공사(주)	불상	토건-일반
直江津(나오에쓰) 공사장	桑原組(구와바라구미)	불상	토건-일반
栗原組(구리하라구미) 공사장	栗原組(구리하라구미)	불상	토건-일반
安藤組(안도구미) 공사장	(주)安藤組(안도구미)	불상	토건-일반
鐵工組(뎃코구미) 공사장	鐵工組(뎃코구미)	불상	토건-일반
豊島組(도요시마구미) 공사장	豊島組(도요시마구미)	불상	토건-일반
大崎山(오사키야마) 터널공사	불상	불상	토건-철도도로

## 2) 에도 시대의 사도광산

사도광산은 니가타현 사도시 사도 섬에 위치한 광산이다. 지금은 금산으로 불리지만 금·은·구리를 산출했으므로 본 보고서에서는 사도광산으로 사용한다. 광석은 주로 ‘은흑(銀黒)’이라 불리는 석영 가운데 휘은광 및 자연 자연금의 미립자이다. 사금의 존재는 헤이안(平安, 794~1185년 간) 시대 말에 발견되었으나 세상에 알려진 것은 1601년 금광맥 채굴을 본격적으로 개시한 이후이다. 도쿠가와(徳川)막부는 에도 막부를 연 1603년에 사도광산의 일부를 직영으로 지정했다. 막부는 사도 광산을 에도시대 기간 동안 막부의 중요한 재원으로써 개발·관리했다. 일종의 막부 은행

이자 화폐공장인 셈이었다.



[그림 28] 선착장에서 바라본 사도섬  
전경(2019.5.13.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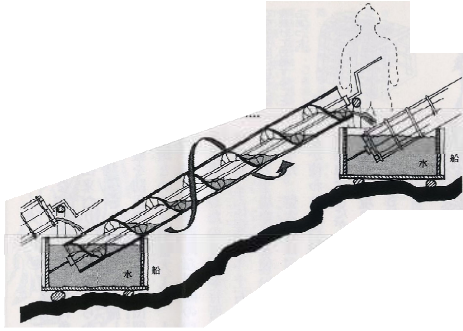
[그림 29] 남아있는 채굴장(2019.5.13.촬영)

막부는 사도광산을 직영 체제인 오지키야마(御直山)와 야마시(山師, 에도시대의 광산업자)제도를 운영했는데, 그 외 상인 등 청부업자가 자금을 들여 경영하고 막부에 일정액을 상납하는 지분야마(自分山)가 있었다. 직영 광산에서는 고반(小判, 금화의 일종)이라는 형태의 화폐를 주조해서 봉행소(奉行所)를 통해 에도로 날랐고, 야마시와 지분야마는 철심과 회취은을 상납했다. 막부는 화폐로 주조하기 위해 1612년에 은화주조소인 긴자(銀座, 은의 길드라는 의미)를 만들어 운영했다. 또한 은은 생실 등을 수입하는 대가로 청나라 등에 대량 수출했다.<sup>85)</sup>

작업의 전 과정은 채광 → 선광 → 제련 → 주조 → 주화 → 이송으로 나눌 수 있다. 각 공정은 전문직이 분담하는데 모든 공정은 수작업으로 이루어졌다. 18세기 중엽부터는 부정방지를 위해 광석을 고반으로 만들기까지 전 공정에 걸쳐 봉행소 역인이 입회해서 감정(鑑定)·계량(計量)·기장(記帳)·경비 등을 담당했다. 완성한 고반이나 은괴는 일단 봉행소 내부에 있는 창고(御金藏)에 보관했다가 일정한 양이 되면 엄중한 경비 아래 에도로 보냈다.

사도광산은 1615~1634년까지 번성해서 높은 출광고를 보였다. 이 시기에 1년 동안 금을 약 400kg, 은을 약 40톤 이상 채굴해 일본 최대 금광산이자 일본 유수의 은광산으로 평가받았다. 사도광산의 채광은 땅속에서 솟아오르는 물과 상대하는 싸움이었다. 스이조린(水上輪) 등 신형 배수 기구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1696년에는 물길을 뚫기 위해 미나미자와소스이(南澤疎水) 갱도를 뚫었다. 그러나 에도 중기부터 침수로 인해 산출량이 감소하자 채굴·선광·제련·주조의 전 공정을 개선했다. 에도시대를 통해 사도광산은 성쇠를 거듭하면서 경영 개선과 관리체제를 변화하며 조업을 이어나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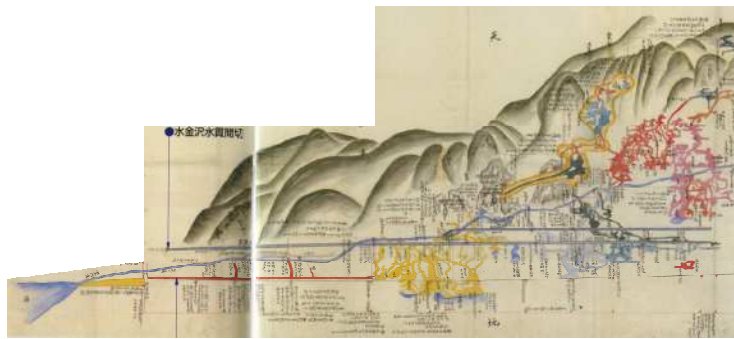
85) 五十嵐敬喜 外, 『佐渡金山を世界遺産に』, 株式会社ブックエンド, 2014, 10쪽



[그림 30] 스이지린의 모습



[그림 31] 스이지린 모형



[그림 32] 미나미자와소스이 강도

사도광산은 메이지 유신 이후 정부의 방침에 따른 관유화 조치로 1868년 공부성(工部省) 소유가 되었다. 일본 정부는 영국인 광산 기술자들을 초빙해 근대적 광산기술을 도입하고 생산액을 늘렸다. 1889년 궁내성 어료국(御料局) 소유로 전환되었다가 1896년 이쿠노(生野)광산과 함께 미쓰비시 합자 회사에 인수되었다. 1918년에는 미쓰비시광업(주)(현재 미쓰비시 머터리얼)이 관리권을 인수했다.<sup>86)</sup>

1931년 만주 침략을 거쳐 1937년 중일전쟁을 일으킨 다음 해인 1938년 일본 당국이 「중요광산물 증산법」을 공포하자 사도광산도 국책에 따라 대증산운동에 돌입했다. 현존하는 사도광산의 주요 건조물은 대부분 이 시기에 설립되었다. 1938년 채광부문에서는 대립수갱 전면에 세운 노(櫓, 야구라), 권양기와 콤프레샤 등으로 암반을 뚫어서 만든 권양실을 세웠다. 선광부문에서는 조쇄장(粗碎場), 저광사(貯鑛舎)를 세웠고, 기타자와(北澤)지구 50m 싱크나와 부유(浮遊)선광장을 세웠다.

이러한 시설 확충에서 특히 전국의 귀금속광산에서 주목받은 것은 부유선광장이었다. 부유선광이란 종래 청화법(靑化法) 등으로 회수가 곤란한 작은 금은 입자를 부유제를 사용해 떠오르게 해서 회수하는 방법이었다. 이전에는 구리의 제련과정에서 사용한 선광방법이었는데, 금은채취에

86) ㈹TEM研究所, 『佐島金山』, ㈹GOLDEN佐島, 2001, 2~3쪽



응용하는 연구를 사도광산에서 성공해 실용화를 이루었다. 일본 학계에서는 부유선광의 채택을 세계 최초의 혁신적 기술로 평가한다.

시설확충이나 기술혁신은 이루어졌으나 원료가 되는 광석의 고갈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갱 내에서 채취하는 광석인 금의 품위가 1933년에 1톤당 5.2g이었고, 1934년에 4.8g으로, 1935년에는 3.6g으로 급격히 떨어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도광산 측은 아이카와 해안에 분포하는 빈석(浜石)에 주목했다. 빈석은 금을 포함한 석영이 오랜 기간 풍화해 해안부에 퇴적한 것이다. 빈석에 포함된 금은 1톤당 평균 4g으로 품위가 높은 광석을 채굴할 때에는 주목하지 않았으나 1938년 이후에 주목해서 수습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빈석의 활용과 다양한 증산 정책을 통해 금의 생산량은 비약적으로 늘어나 1940년에는 연간 1,537kg을 생산했다. 이 시기 조선인 노동자의 활용 비중도 높아져 1,200여명의 조선인 광부를 동원했다.



[그림 33] 다카토 갱구의 내부(2019.5.13.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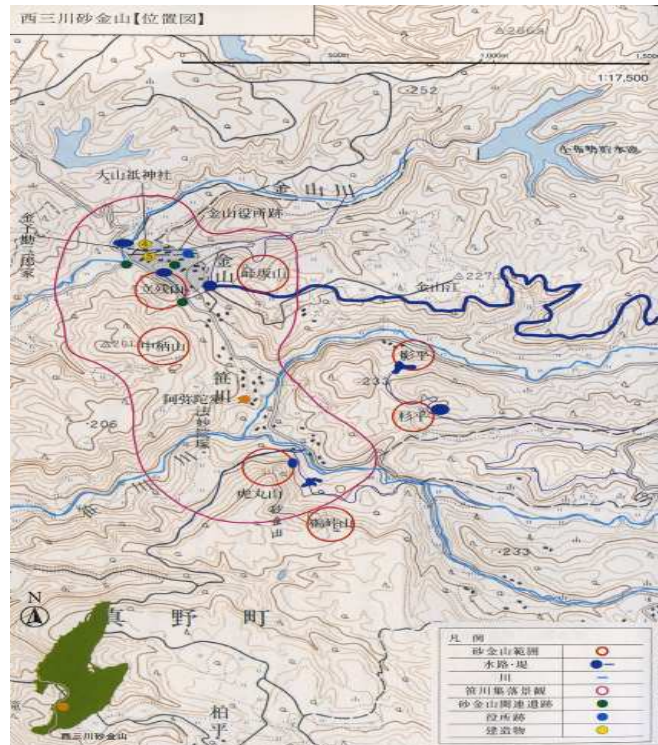


[그림 34] 도유갱 내부(2019.5.13. 촬영)



[그림 35] 기타자와지구의 선광장 전경(2019.5.13. 촬영)

그러나 전황이 악화하면서 연합군이 일본 본토와 조선의 해상을 봉쇄해 다른 지역에서 원료 공급이 제약을 받자 당국은 금은 대신 구리와 철, 납, 아연 등 전시 물자를 우선 생산하기로 결정하고 1943년 금광산정리령을 발동했다. 사도광산도 대규모 축소와 시설·설비 공출을 해야 했는데, 사도광산 내 도리고에갱(鳥越坑)이 구리를 산출하고 있었으므로 금산의 조업을 정지하고 동산(銅山)이라는 명목으로 휴산을 면했다.



[그림 36] 주요 광산 분포도

전후에 금 채굴은 재개되었으나 이전과 같은 활황기로 돌아갈 수 없었으므로 광석의 비중은 유리 원료인 규산광(珪酸鑛) 채굴에 집중했다. 이미 해면 아래 갯내 채광장은 수몰되어 1952년 광산의 대규모 축소를 단행했다. 1952년에 최대 규모를 자랑하던 다카토(高任) 지구(현재 공원으로 조성, 일반에게 공개)의 갯과 발전소 2개소도 폐쇄했다.<sup>87)</sup> 1989년 3월 31일 채굴을 중단하고 미쓰비시 머티리얼의 자회사인 (주) 골든 사도가 경영권을 인수했다. 개산 이후 폐광까지 388년에 걸쳐 채굴한 산금량은 78톤이고, 산은량은 2,330톤이다.<sup>88)</sup>

87) 佐渡市平和教育委員会世界遺産・文化振興課・新潟縣教育廳文化行政課 編, 『黄金の島を歩く』, 佐渡市教育委員会・新潟日報, 2008, 96~99쪽

88) (주)TEM研究所, 『佐島金山』, (주)GOLDEN佐島, 2001, 2~3쪽



[그림 37] 사도광산의 현존하는 근대화 유산 위치

(佐渡市平和教育委員会世界遺産・文化振興課・新潟縣教育廳文化行政課 編, 『黄金の島を歩く』, 100쪽)

일본 정부는 1967년 아이카와 광산 관계 유적을 '사도 금산 유적'으로 일본의 사적에 지정했다. 사도 금산 유적은 2007년 일본의 지질 100선에 선정되었고, 갯도의 총 연장 약 400km 가운데 300m 정도를 관광 노선으로 개발해 매년 봉행 축제와 금광축제 등을 열고 있다.

현재 일본은 '사도금은산 - 금을 중심으로 하는 사도광산의 유산군'이라는 주제로 2021년을 목표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정을 추진 중이다. 2010년 잠정목록 2번에 오르면서 시작한 세계유산



추진 운동은 현재 일본 내부의 추천후보 선정을 마친 상태이다. ‘사도금은산 - 금을 중심으로 하는 사도광산의 유산군’은 일본 문화심의회 세계문화유산부회에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연속 추천후보로 선정되었으나 2018년 일본 심의회에서 탈락함으로써 2020년 지정은 불가능해졌다. 그러나 2019년 다시 추천후보로 신청한 상태이며, 향후 일본의 후보로 선정이 된다면, 남은 일정은 이코모스(ICOMOS, International Council on Monuments and Sites,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의 현지 조사와 세계유산위원회 지정 결정이다.<sup>89)</sup>

니가타현과 사도시가 추진하는 ‘사도금은산 - 금을 중심으로 하는 사도광산의 유산군’ 세계유산 지정은 2015년 메이지근대산업유산 등재에 이어 조선인 강제동원과 관련한 역사적 사실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사도광산이 에도시대부터 시작되었지만 현재 유적의 대부분 메이지와 쇼와 시대에 설치한 시설물이기 때문이다. 에도시기 유적은 고반을 에도로 나르기 위해 오마항(大間港) 부근에 설치한 봉행소와 일부 갭에 불과하다. 근대화유적은 도유갱(道遊坑, 1899년 개광)과 수갱(1857년 완성), 기계공장(1899년 건설), 제련장(메이지 유적), 선광장(메이지 유적), 화력발전소(1907년 건설), 오마항(1886년 건설), 도광장(搗鑛場, 메이지시기 건설되었다가 1924년 화재로 소실된 후 1925년 신설), 화약고(1935년 건설), 조쇄장(粗碎場, 1938년 건설, 폐광 때까지 사용), 부유선광장(1938년 건설), 저광사(1938년 건설), 농축장치(1940년 완성) 등이다.



[그림 38] 기타자와 유적군 전경(2019.5.13. 촬영)

89) <https://www.sado-goldmine.jp/towards/>



[그림 39] 부유선광장



[그림 40] 기계공장



[그림 41] 밀차의 모습



[그림 42] 대형 수갱

### 3) 일본의 강제병합 후 사도섬의 재일조선인

니가타현과 사도시에 가면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추진을 위해 출간한 다양한 홍보책자를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책들이 칼라판 사진과 화보로 구성했고 금산임을 강조하기 위해 표지 테두리를 금으로 장식한 책도 있다. 수록 내용의 시기는 에도 시대부터 1989년 폐광 때 까지 388년을 다루고 있는데, 조선인 광부의 존재를 밝힌 책은 없다. 홍보 책자 외에 니가타현의 조선인 강제동원을 주제로 한 책(平和教育研究委員会 編, 『新潟縣における韓国・朝鮮人の足跡をたどる』平和教育研究委員会資料シリーズ 第2集, 平和教育研究委員会, 2010)에서만 찾을 수 있다. 2015년 하시마섬 등재 이후 일본 세계유산 등재과정에서 조선인 강제동원은 감추고 싶은 역사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사도섬에서 조선인 강제동원의 역사는 있었다. 그리고 일본이 아시아태평양전쟁을 일으키기 이전에도 조선인 광부의 존재는 있었다.

사도광산은 1869년 공부성 소관이 되었다가 그 후 농상무성으로 그리고 대장성으로 이관되어 1889년에 궁내성 어료국(御料局) 소관이 되었다. 어료국 소관이 된 그 해 1월, 어료국은 사도광산 학교를 설치했다. 광산학교 설치 목적은 광산 종업원 자제를 양성해 유능한 기술자를 육성하기 위

함이었다. 광산학교는 수업연한이 정과(正課) 1년 반에 예과가 3년이었는데, 정과에는 채광학과, 야금학과, 기계학과, 건축학과 등이 있었다. 1892년 4월 제1회 졸업생을 배출했는데, 졸업생 가운데에는 조선인 박창규(朴昌圭), 구연수(具然壽), 박치운(朴致雲)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은 일본어 통역을 대동하고 수업을 받으면서 근대 광산학을 배웠는데, 사도 광산 최초의 조선인이다.<sup>90)</sup>

사도광산학교에 조선인이 입학한 배경에는 조선 정부의 광산 관련한 정책이 있었다. 조선정부는 광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1885년부터 각 감영에서 개광에 착수했으며 1887년 5월에는 광무국을 설치해 6월에 영흥부사 이용익(李容翊)을 함남 광무감리로 임명하는 등 본격적인 채굴에 착수했다.<sup>91)</sup>

이들 3인은 이후에 일본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 박창규는 1905년 3월 러일전쟁 ‘일본 전승축하특파대사’의 수행원으로 일본을 방문했고 박치운은 1894년 일본군이 동학군 토벌할 당시 통역으로 일했다. 3인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인물은 구연수이다. 구연수는 1894년 9월 광무국주사를 거쳐 1895년 10월 명성황후 시해사건 당시 유체 소각에 관여해 일본으로 망명한 인물이다.<sup>92)</sup>

1896년 궁내성 어료국 소관의 사도광산은 미쓰비시합자로 불하된 후 미쓰비시는 인부청부인 제도(部屋頭, 또는 納屋頭 제도)를 통해 타국인(사도 섬 외부인)을 채용했고, 나야(納屋 제도)로 운영했다. 1890년 1월 기준으로 소속 종업원 1,946명 가운데 나야가시라(納屋頭)가 채용한 타국인은 950명이었다.<sup>93)</sup>

앞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나야(納屋)제도는 함바(飯場)제도와 함께 대표적인 일본 광산업계의 노무관리 제도다. 주로 석탄광산에서는 나야제도를, 금속광산에서는 함바제도를 적용했다. 이들 제도의 특징은 노무계에 속한 나야가시라가 광부의 모집과 생활 관리, 채굴 및 채탄 등의 작업 청부, 임금의 일괄 관리를 담당하는 직취 구조라는 점이다.

1910년대 작성해 1920년대에 일부 추가한 자료(1902~1929년간)에서 조선인 노동자를 21명 확인할 수 있다. 타국인의 출신지별 현황을 보면, 나가노현 172명, 니가타현 154명, 사도 62명, 이시카와현 34명, 군마현 33명, 도야마현 31명에 이어 조선인은 출신지별 현황에서 7위를 차지했다. 조선인의 본적지별 현황을 보면, 경남 8명, 충북·충남·전남·경북이 각각 2명씩이고, 전북 1명, 불명이 1명이다.<sup>94)</sup> 이같이 소수의 조선인 광부는 일본이 아시아태평양전쟁을 일으킨 후 늘어나기 시작했다.

90) 相川町史編纂委員會, 『佐渡相川の歴史 - 通史編, 近現代』, 1995, 233~241쪽

91) 이배용, 『한국근대광업침탈사연구』, 일조각, 1989, 15~19쪽

92) 広瀬貞三, 「佐渡鉱山と朝鮮人労働者(1939~1945)」, 『新潟国際情報大学情報文化学部紀要』[人文科学編]3, 2000, 2쪽

93) 麓三郎, 『増補版佐渡金銀山史話』, 三菱金属矿业, 1973, 472~475쪽

94) 広瀬貞三, 「佐渡鉱山と朝鮮人労働者(1939~1945)」, 4쪽

#### 4) 사도광산의 조선인 강제동원 실태 - 광산에서 군공사장까지

일본이 만주침략을 일으키고 1937년 중일전쟁으로 전선을 확대하면서 1939년 일본이 대량의 군수물자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대금결제용 금이 필요했다. 1931년 일본 정부의 금 매상 가격은 1돈당 7엔 25전이었으나 1938년 5월에는 14엔 44전이 되었다. 일본 정부는 1937년 「산금법」을 발효하고 1938년에 「중요광물증산법」과 「일본산금진흥주식회사법」을 공포하는 등 금정책을 체계화해 나갔다.

이 같은 당국의 국책적 요청에 따라 사도광산에서도 금증산체제를 강화했다. 사도광산은 저품위 조광(粗鑛)을 대량으로 처리하고 부유선광법을 채용해 금을 증산했다. 또한 1932년에는 니광청화(泥鑛靑化)정련장을 폐지하고 1938년에는 연간 산금 150kg을 목표로 현 기타자와지구에 부유선광장을 확장해 1개월에 7만톤을 처리하는 대선광장을 건설했다. 이러한 기술 개량과 사업 확대에 힘입어 1938년에는 누적 생산량 1000kg을 넘었고 1940년에는 메이지 이후 최고 기록인 1,537kg에 달했다. 이 산금량은 미쓰비시광업 산금량의 41.8%에 달하는 양이었다.<sup>95)</sup>

전시체제기에 들어서 사도광산은 사업을 확대했다. 그러나 1943년 4월 금광산조정령에 의해 구조조정을 피할 수 없었다. 이 조치로 일본 전국의 금광산은 폐지되었으나 사도광산은 구리를 채굴하는 광산으로 인정받아 명맥을 유지하게 되었다. 사도광산은 7만톤을 처리하는 대선광장의 약 반 정도를 떼어내 공출했다. 그 결과 생산량은 1943년 구리 867톤과 금 709kg이었고, 1944년에는 구리 890톤과 금 531kg이, 1945년에는 구리 180톤과 금 243kg으로 줄어들었다.<sup>96)</sup>

비록 금 채굴은 줄었지만 여전히 사도광산은 중요한 광산이었다. 1943년 8월 상공성차관(椎名悅三郎)은 사도광산을 방문해 ‘광산전사를 위문 격려’하며 증산을 강조했다.<sup>97)</sup> 이러한 ‘격려(?)’에 힘입어 사도광산은 중요광물증산증강주간에 목표를 돌파하는 성적을 거둔 대가로 도쿄광산감독국으로부터 표창을 받았고, 1943년 10월에는 상공 대신과 후생 대신으로부터 표창도 받았다. 물론 표창의 이면에는 당연히 광부에 대한 노동강화조치가 자리하고 있었다. 이 조치는 표창을 받은 후에 더욱 강화되어 수시로 증산주간을 설정하고 광부들을 독려했다.<sup>98)</sup> 일본 정부가 1944년 8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2개월간 아연과 철, 동, 구리, 석탄을 대상으로 중요광물필증증산기간을 설정하자 사도광산에서도 구리를 증산하도록 대상이 정해져서 광부들을 증산으로 몰아넣었다.<sup>99)</sup>

조선인 광부 외에 일본인 학생이나 근로보국대도 다수 동원했다. 사도광산에는 주로 아이카와 중학교와 고등여학교 학생들이 동원되었다. 이들은 공작장에서 철주물을 운반하거나 정리하고 돌이나 점토를 나르는 일을 했는데 위험하고도 중노동이었다고 한다.<sup>100)</sup>

95) 三菱鑛業セメント株式會社總務部社史編纂室 編, 『三菱鑛業社史』, 1976, 435쪽

96) 広瀬貞三, 「佐渡鉱山と朝鮮人労働者(1939~1945)」, 6쪽

97) 『新潟新聞』1943년 8월 26일자 ‘椎名次官, 佐渡鉱山視察’

98) 『新潟新聞』1943년 11월 17일자 ‘増産へ頑張る, 佐渡鉱山’; 12월 15일자 ‘佐渡鉱山の増産週間’

99) 『新潟新聞』1944년 11월 3일자 ‘悲報に揮ふつるはし’



## (1) 조선인 노무자의 동원과 노동실태

그렇다면 조선인 강제동원은 언제부터 실시했는가. 사도광산의 조선인 강제동원은 당국의 정책 실시보다 이른 시기에 시작되었다. 한반도에서 일본지역으로 노무자 송출은 1939년 7월 28일 일본 내무성·후생성차관이 내린 정책 통첩(조선인 노무자 내지 이주에 관한 건)에 의해 9월부터 실시했다. 1939년에 일본 당국이 할당한 조선인은 8만 5천명이었다. 그러나 사도광산은 이보다 앞선 1939년 2월부터 조선인 동원을 시작했다. 그 이유는 사도광산 측이 조선인을 청부제로 동원하고 활용했기 때문이다. 이같이 당국이 정책을 수립해 운영하기 전부터 사도광산에서는 강제동원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청부제는 직접 고용이 아닌 간접 고용 형태였다. 청부업자가 모집책을 통해 광부를 동원하고 임금에서 일부를 제한 후 광부에게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이후에 사도광산은 청부제와 직접 고용의 두 가지를 혼용했으나 초기에는 청부제에 의존했다.

김종원(충남 논산 현지조사 결과)은 1940년 10월 3일 직업능력신고수첩(職業能力申告手帳)을 발부받았다. 입산 시기로 보면 김종원은 ‘할당모집’의 형태로 동원된 경우이다. 직업능력신고수첩은 국민징용령(1939년 7월 8일 제정, 칙령 451호)에 근거해 국민징용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법령(국민직업능력신고령) 규정에 의해 발급한 수첩이다. 국민징용 후보자가 된 셈이다. 사도광산은 1944년 12월 18일 군수성 지정 관리공장으로 지정되어 전원이 협화회관에 모여서 현원징용영장을 받았으나 김종원은 1943년에 귀선했으므로 피징용자가 되지 않았다.

김종원의 유족이 소장한 보험증서인 보험료영수장(保險料領收帳)에는 ‘募集人拂込’이라는 도장이 찍혀있다. 보험료영수장은 1941년 8월부터 1943년 3월까지 납입한 증서이다. 계약자는 김종원이고 매달 7일에 1엔 20전씩 납입했다. 이를 통해 김종원의 임금 가운데 일부를 모집인이 관리하고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sup>101)</sup>.



[그림 43] 김종원의 직업능력신고수첩 내지



[그림 44] 보험료영수장 표지(2019.6.26. 촬영)

100) 広瀬貞三, 「佐渡鉱山と朝鮮人労働者(1939~1945)」, 8쪽

101) 유족에 의하면, 김종원은 이 외에도 여러 개의 통장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림 45] 김종원의 직업능력신고수첩 표지(2019.6.26.촬영)



[그림 46] 보험료영수장 내지

사도광산 측은 1939년 2월 할당모집 방법으로 충남 지역 출신자들을 제1진으로 동원했다. 제1진으로 입산한 조선인의 정확한 규모는 알 수 없다. 다만 노무과원이 “1촌락 당 20명의 모집을 할 당해 약 40명의 응모가 쇄도할 정도”라고 한 것으로 볼 때 수십 명 단위였던 것으로 보인다. 노무과원이 ‘쇄도’라고 표현할 정도로 조선인이 할당모집에 적극적으로 응모한 이유는 매년 계속된 한발(旱魃)과 그로 인한 이재민 발생이 원인이었다.<sup>102)</sup>

한발은 식민지시기 내내 조선 농민을 고향에서 떠나게 하는데 적지 않은 역할을 해왔다. 조선에서 대한발이라고 부르는 큰 가뭄이 일어난 시기는 1919년, 1924년, 1928년, 1929년, 1932년, 1935년, 1936년, 1938년, 1939년이다. 1924년의 중남부지방을 강타한 대한발로 독일노동자들은 급증했다. 이들 대가뭄은 중남부지방에 연속적으로 발생해 지속적으로 농토를 잠식하고 피해를 가중했다.<sup>103)</sup> 그러므로 1930년대 초반부터는 조선총독부 당국이 한발 대책에 고심하게 되었고, 1939년 초부터 한발구제사업의 일환으로 많은 이재민들을 남양군도와 만주, 남사할린으로 대거 송출하게 되었다.<sup>104)</sup>

또한 당시 노무과원은 조선인 동원의 이유로 “내지인 갱내노무자에게 구폐환자가 많아서 출광 성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내지의 젊은이들이 군대로 가야 하기 때문”이라고 들었다. 이를 근거로 일본인의 구폐 감염을 방지하고 징병으로 인한 인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두 가지 이유로 조선인을 동원했음을 알 수 있다.<sup>105)</sup>

광산 측은 1940년 2월부터 1942년 3월까지 총 6차에 걸쳐 1,005명의 조선인을 할당모집 방식으로 동원했다. 그렇다면 할당모집은 강제동원이 아닌가. 강제동원에 해당한다. 당국이 실시한 강제동원은 인적·물적·자금동원이고, 인적동원은 노무자와 군인·군무원·일본군위안부피해자가

102) 広瀬貞三, 『佐渡鉱山と朝鮮人労働者(1939~1945)』, 7쪽

103) 樋口雄一, 「植民地下朝鮮における自然災害と農民移動」, 『法學新報』109-1·2, 2002, 189쪽

104) 정혜경, 『일본 제국과 조선인 노무자 공출』, 도서출판 선인, 2011, 32쪽, 39쪽, 44쪽

105) 相川町史編纂委員會, 『佐渡相川の歴史 - 通史編, 近現代』, 1995, 680쪽

있다. 할당모집은 노무자의 동원 경로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므로 당연히 강제동원에 해당하는 피해유형이다.<sup>106)</sup>

또한 일본 정부는 1932년 강제노동을 금지한 국제노동기구(ILO)의 노동 협약 제29호를 비준했다. 이 노동협약은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런데도 1938년 국가총동원법이라는 법적 근거에 따라 총동원시스템을 마련하고 제국 일본의 모든 영역을 대상으로 인적·물적·자금을 총동원했다. 아시아태평양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일본은 스스로 비준한 국제노동기구의 노동 협약 29호를 위반한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사도광산에 동원된 조선인 문제를 인식해야 한다.<sup>107)</sup>

[표 16]에서 '도주'라는 항목을 볼 수 있다. 도주율은 매우 높은 편이다. 도주가 입산 전후 어느 과정에서 이루어졌는가 알 수 없다. 일반적으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탈출'은 부관연락선을 태워서 일본에 도착하기 전, 조선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졌다. 사도가 섬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입산 이후에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위 '도주' 사례를 입증하는 사례는 아니지만 1939년 2월 제1진이 입산할 당시에는 '시모노세키나 오사카에 도착한 후 도망한 자가 많았'다고 한다.<sup>108)</sup>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퇴사'가 아닌 '도주'라는 의미는 조선인 광부들이 마음대로 현장을 벗어날 수 없었음을 의미한다. 강제성을 입증하는 대표적 사례이다.<sup>109)</sup>

[표 16]에는 10명의 사망자가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같은 시기의 모든 사망사고를 포함한 자료라 보기 어렵다. 사망자를 누락한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대표 사례는 1942년 12월 20일 사망한 김주환 등 2명의 사례의 누락이다. 그런데 10명의 사망피해는 당시 일본지역 탄광과 광산 노무자의 사망률과 비교해보면 높은 비율이다. 제2장 제2절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 전 지역 조선인 노무자 사망률은 0.9%(1939.10~1942.10 기준)이고, 후쿠오카 관내 조선인 노무자 사망률은 0.6%(1944년 1월 기준)이기 때문이다. 물론 앞에서 분석한 위원회 피해조사 명부의 사망자 비율 6%에 비해서는 낮은 비율이다. 그러나 위원회 피해자 조사명부가 갖는 특성에서 나온 결과일 수 있으므로 다각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현지 사망자들은 피해신고인이 피해신고의 과정에서 입증 서류를 제출할 수 있었으므로 신고율이 높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도광산의 사망자 비율에 대해서는 다양한 자료를 통한 연구가 필요하다.

106) 강제동원의 성격과 노무동원의 경로에 대해서는 허광무 외, 『일제강제동원 Q&A(1)』(도서출판 선인, 2015) 참조

107) 국제노동기구 강제노동 협약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신희석, 「1930년 강제노동협약(ILO 제29호 협약) 강제근로에 관한 협약」(『한일민족문제연구』36, 2019) 참조

108) 相川町史編纂委員會, 『佐渡相川の歴史 - 通史編, 近現代』, 1995, 682쪽

109) 이 점에 대해서는 허광무 박사의 교시(2019년 7월 7일)가 있었다.

[표 16] 사도광산에 동원된 조선인 광부 현황(1943년 6월 기준)(단위 : 명/%)

내용/연월	1940년 2월	1940년 5월	1940년 12월	1941년 6월	1941년 10월	1942년 3월	합계(%)
할당 모집, 알선	할당모집	할당모집	할당모집	할당모집	할당모집	할당모집	
출신군	논산	논산, 부여, 공주	논산, 부여	논산, 부여, 연기	청양, 논산	청양	-
이입수	98	248	300	153	127	79	1,005명
고용기간(연)	3	3	3	2	2	2	-
사망	1	3	0	3	2	1	10(1.0)
도주	14	46	51	19	12	6	148(14.7)
공상 송환	2	0	1	2	1	0	6(0.6)
사증(私證) 송환	8	10	6	4	0	2	30(3.0)
불량 송환	6	12	3	3	1	0	25(2.5)
일시 귀국	2	29	31	5	5	0	72(7.2)
전출	1	31	74	24	0	0	130(12.9)
감원총수	34	131	166	60	21	9	421(41.9)
현재수	64	117	134	93	106	70	584(58.1)
계속이입수속	완료	완료	-	완료	-	-	-

자료 : 佐渡鑛業所, 『半島勞務管理ニ就テ』(1943년 6월), 『在日朝鮮人史研究』12, 1983, 92쪽

또한 [표 16]에 의하면, 1940년 2월부터 1942년 3월까지 총 6차에 걸친 동원은 모두 충남 지역 출신자들이다. 이후에도 동원은 계속되었으나 회차나 인원수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1944년 7월 조선노무협회가 알선한 관알선으로 십 수 명을 동원했음을 알 수 있다. 신문기사에 의하면, 1944년 7월 13일 입산식이 사도광산 협화회관에서 열렸고, 광산장의 훈시와 아이카와 경찰서장의 축사, 입산자 대표의 선서가 있었다고 한다.<sup>110)</sup> 조선인의 입산은 1945년 7월까지 이루어졌다. 이 시기 노무자는 ‘총수 1,200명’이었고, 여기에 가족을 합하여 적어도 1,300명 정도가 사도섬에서 생활했다고 한다.<sup>111)</sup>

그러나 1943년 4월 금광산조정령에 의해 구조조정으로 다수가 조선으로 돌아가거나 일부는 다른 광산으로 전근 조치된 것으로 보인다. 논산 현지조사를 실시했던 홍동철과 김종원, 강신도(김종원과 홍동철 유족을 통해 확인)는 모두 1943년에 집단 귀선했다. 본 장 제3절에서 기술한 위원회 피해자 명부에서 1943년 귀선자는 3명에 불과하므로 정확한 귀선 상황은 파악하기 어렵다.

지역사에서는 이 시기 동원된 조선인의 본적지가 충남이 80%이고 그 외 충북, 전북이 20%였다고 파악했다.<sup>112)</sup> 그러나 앞에서 소개한 조선총독부 지정연령자명부에 함남 갑산과 경북(영덕, 봉화, 청송, 의성, 영일군)이라는 본적지를 찾을 수 있고, 위원회 피해판정을 받은 이들(148명 가운데

110) 『新潟新聞』1944년 7월 16일자 ‘佐渡鑛山へ半島勞務者’

111) 相川町史編纂委員會, 『佐渡相川の歴史 - 通史編, 近現代』, 680쪽

112) 相川町史編纂委員會, 『佐渡相川の歴史 - 通史編, 近現代』, 680쪽



데 147명)의 출신 지역은 충남과 충북, 전남과 전북, 경북 등 5개도에 해당한다. 이를 통해 지역사 연구(히로세)에서 규명한 3개도를 포함해 충남과 충북, 전남과 전북, 경북, 함남 등 총 6개도에서 동원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본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확보하고 분석한 명부기록의 분석 결과를 통해 기존 연구 성과 내용 가운데 최소한 출신 지역에 관한 내용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

경북 지역은 많은 노무동원 피해자를 기록한 출신 지역이다. 특히 1939년과 1940년의 조선총독부가 산출한 할당모집허가 통계에서 경북은 1위를 기록했다.<sup>113)</sup> 그러므로 경북지역민이 사도광산으로 동원된 것은 특이한 사례로 보이지 않는다. 이에 비해 함남은 대규모 국외 노무동원 지역이 아니었다. 함남 지역 관내의 탄광산에 동원해야 할 조선인의 수도 부족한 형편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함남 갑산 출신의 조선인이 포함되었다는 것은 주목할만한 점이다.

1943년 6월 사도광산 측이 작성한 「반도노무관리에 대하여(半島勞務管理ニ就テ)」를 통해, 광산 측의 조선인 광부 관리에 대해 알 수 있다. 대부분의 강제동원 작업현장에서는 노동현장 교육을 거의 실시하지 않거나 간략히 하는 편이다. 동원한 인원을 신속히 현장에 투입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사도광산은 섬에 위치해 집단적으로 문제를 일으켰을 경우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고, 작업의 위험성이 높았으므로 다른 작업장에 비해서는 교육에 주력한 것으로 보인다. 광산 측은 조선인 광부들이 대다수 농민 출신이고, 광산은 '절대 복종'이 필요하므로 사전에 충분히 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파악했다. 광부 교육은 강습회와 보도학교를 통해 실시했다.

“이입시에는 보도학교(상중하 3학급으로 나누어 상급은 초등학교 4년 수료 이상의 일본어 이해력이 있는 자, 중급은 일본어를 조금 이해하는 자, 초급은 전연 일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를 설치해서 3개월간 일본어 교육에 중점을 두고 규율·훈련·예의·일본식 생활관습 등 일본인 생활에 필요한 지도에 노력하고, 기간 중 강습회를 개최해서 보안의식의 철저함을 기하는 외에 취업전 계원을 통해 다양한 조업상 주의를 주고 국민체조 등을 지도”했다고 한다.<sup>114)</sup>

즉 일본어와 일본인화 교육을 철저히 하고 다음으로 보안의식을 주지시킬 것을 목적으로 했다. 특히 일본어는 광부를 동원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했다. 광산은 탄광에 비해 작업 공정이 복잡했으므로 언어가 통하지 않으면 일을 부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

광산 직종에서 민족별 현황은 어떠했을까.

[표 17]에서 다수를 점하는 직종을 보면, 일본인은 잡부나 기타도 많지만 내 운전부나 공작부, 제광부가 다수이다. 주로 제련을 하거나 기계를 작동하는 일이다. 히로세는 일본인이 100%에 달하는 기타 직종을 선광장으로 추정했다.<sup>115)</sup> 이에 반해 조선인은 착암부와 운반부, 외 운반부 등 기술을 요구하지 않으면서도 위험한 일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113) 정혜경, 「총론: 일본 제국의 틀에서 본 조선인 노무자 송출」, 『일본 제국과 조선인 노무자 공출』, 45쪽

114) 佐渡鑛業所, 「半島勞務管理ニ就テ」(1943년 6월), 『在日朝鮮人史研究』12, 1983, 86쪽

115) 広瀬貞三, 「佐渡鉱山と朝鮮人労働者(1939~1945)」, 10쪽

[표 17] 민족별 직종 현황(1943년 6월 기준)(단위 : 명/%)

구분	일본인	조선인	합계(명)
착암부(鑿巖夫)	27(18.0)	123(82.0)	150
지주부(支柱夫)	39(41.1)	56(58.9)	95
운반부	80(21.4)	294(78.6)	374
내 운전부	19(70.4)	8(29.6)	27
외 운반부	17(25.8)	49(74.2)	66
공작부	23(88.5)	3(11.5)	26
정지부(整地夫)	46(68.7)	21(31.3)	67
제광부(製鑛夫)	85(81.7)	19(18.3)	104
잡부	52(82.5)	11(17.5)	63
기타	321(100)	0	321
합계	709(54.8)	584(45.2)	1,293

자료 : 佐渡鑛業所, 「半島勞務管理ニ就テ」(1943년 6월), 『在日朝鮮人史研究』12, 1983, 93쪽

광산일은 1일 3교대(1번은 아침 6시~오후 3시, 2번은 오후 2시 반~밤 11시, 3번은 밤 11시~다음날 아침 6시)였다. 그러나 1943년 8월 신문기사에서 기자가 직접 도리고에갱(鳥越坑, 1942년 10월 채굴을 시작한 갭)에서 채굴과정을 경험한 내용을 보면, 광부의 반수 가량은 잔업을 많이 해서 3교대가 아니라 12시간 2교대로 근무했다고 한다. 또한 “광업소 문에 ‘완승은 나날의 목포의 돌과에서, 증산은 불굴불요의 전의로부터, 근로와 무사고로 격파하자 미영을!’이라는 표어가 걸려 있고, 문의 남쪽에서 아이카와국민학교 아이들 수십 명이 나와 오전 6시 10분에 출근하는 광부들에게 ‘여러분 고맙습니다. 적 미영을 이기기 위해 오늘도 확실히 증산을 해주세요’라며 인사를 하는...”<sup>116)</sup> 모습은 당시 사도광산의 분위기를 잘 보여준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조선인 광부들은 갭으로 일하러 들어갔을 것이다.

이러한 노동시간은 패전에 임박해 더욱 늘어났다. 1944년 8월 1일부터 사도광산은 3할 증산을 목표로 ‘필승증산기간’을 두고 증산에 박차를 가했다. 이 시기에는 출근 시간이 앞당겨져서 오전 5시 반에 갭외종업원은 산의 대산지(大山祇)신사<sup>117)</sup> 앞에서, 갭내 종업원은 다카토(高任)신사에 모여 증산기원제를 올리고 일을 시작했다.<sup>118)</sup> 또한 1944년 12월 18일 사도광산은 군수성 지정 관리

116) 『新潟新聞』1943년 8월 22일자 ‘現地報告12’

117) 大山祇神社는 광산의 수호신이다. 1870년대부터 1930년대까지 총 68개소를 세웠고, 시기를 알 수 없는 신사가 7개소, 설립 중 미완 상태의 신사가 1개소이다. 최초로 세운 곳은 에히메현이고, 大山祇神社의 본사도 에히메현 今治市 大三島町에 있다. 1930년대에 가장 많은 수(26개소)의 신사를 세웠다. 일본 본토는 물론이고 조선에도 12개소를 세웠으며, 남사할린과 타이완에도 설치했다. 사도광산에 세운 신사는 격이 높아서 縣社에 해당한다. 기업별로는 미쓰비시가 11개소로 가장 많다.西尾典子, 「資料紹介-全國鑛山と大山祇神社」(『全國鑛山と大山祇神社(第一輯)』(国幣大社大山祇神社々務所、一九四〇年)), 『エネルギー史研究』28, 九州大学記録資料館産業經濟資料部門 編, 2013, 213~219쪽

공장(일명 군수공장)으로 지정되어 전원이 협화회관에 모여서 현원징용영장을 받았다. 할당모집으로 입산했던 관알선으로 입산했던 모두 피징용자가 된 것이다.



[그림 47] 대산지신사의 모습(2019.5.13.)

그렇다면 조선인의 임금은 어느 정도였을까. ‘갱내부의 경우에는 일본인 노무자와 같은 연령의 경험 등을 고려해 업무의 종류와 난이도에 따라 미리 사정(査定)한 청부단가를 기준으로 생산량에 따라 지급하고, 극소수의 갱외부는 정액을 지급’했다.<sup>119)</sup> 지급 방식은 월급으로 지급하고 이 외에 각종 상여금이 있었다. 조선인 1사람당 평균 월수입은 1943년 4월이 83엔 88전, 5월이 80엔 56전이다. 다만 평균 가동일은 명확하지 않다. 문제는 위에서 제시한 임금이 실수령액인가 하는 점이다.

조선인의 임금에는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하나는 농민 출신의 조선인들에게 기능을 요구하는 청부제도는 일본인에 비해 불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다. 또 다른 하나는 임금이 노동에 필요한 도구비용 등으로 공제되었으므로 실제 손에 들어온 임금액은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이다.<sup>120)</sup> 노무동원 상태에서 도구비용 외에도 동원과정에 들어간 비용이나 후생연금보험, 각종 연금보험을 공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한 관행은 사도광산에도 적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급여는 책정되어 있었으나 조선인은 현금을 소지하도록 하지 않고, 강제저축을 시켰다. 광산 측은 ‘저축심의 함양 방책’으로서 ‘저축액번부표(貯蓄額番付表)’를 작성하거나 저축장려금을 지급

118) 『新潟新聞』1944년 8월 4일자 ‘嚴に増産祈願’

119) 佐渡鑛業所, 「半島勞務管理ニ就テ」(1943년 6월), 『在日朝鮮人史研究』12, 1983, 89~90쪽

120) 広瀬貞三, 「佐渡鉱山と朝鮮人労働者(1939~1945)」, 11쪽

강제저축은 인플레이를 억제하고 전비를 충당하기 위한 목적과 함께 도주를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반적으로 사용한 방식이었고, '강제저축'은 당국이 사용한 용어이기도 했다. 경성일보 1940년 2월 8일자 기사에 의하면, 일본 대장성 대신이 취임 직후 '강제저축 범위를 확대하라'는 의향을 발표했다.



[그림 48] 1940년 2월 8일자 경성일보 기사

121) 『新潟新聞』1944년 9월 29일자 ‘飛躍的に上昇, 佐渡鑛山の貯蓄’



[그림 49] 각종 채권과 저금통장들(『재일한인역사자료관 도록 - 사진으로 보는 재일코리안 100년』, 67쪽)

그렇다면 조선인 광부들이 저축한 돈은 어디로 갔는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 공문서관에는 두 건의 공탁기록이 있다. 사도광산 조선인 1,140명의 공탁금액 231,059엔 59전이다. 이 기록은 두 가지를 의미한다. 하나는 최소한 1,140명의 조선인이 강제동원되었다는 점이다. 또 다른 하나는 이들의 급여와 저축, 각종 보험금을 지불하지 않고 공탁했다는 점이다. 더구나 공탁기록에는 개인별 정보가 없어서 개별성도 확인할 수 없다. 조선인 광부들이 저축통장에 돈이 쌓일 것을 기대하고 희망을 가졌던 노동의 대가는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다.

또한 중요한 점은 임금 수령 여부나 임금의 과다 여부는 강제성과 무관하다는 점이다. 전사회 제기 노동자들은 노동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일본 국가권력이 제정한 법에 따라 자본가와 계약 관계에 따라 노동조건을 확보하거나 노동자 권리를 주장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임금을 비롯한 모든 처우는 부리는 자들이 일방적으로 정했고, 지급 방식도 일방적으로 운영했다. 그런데도 2019년 현재 국내 강제동원 부정론자들은 임금을 받았다는 점을 강제성을 부정하는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당시 체제와 시대 상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주장이다.

그 외 강제저축을 넘어서 고향에 기부하도록 한 사례도 있다. 1940년 9월 충남 논산군 출신자 대표 유봉철(兪鳳喆)을 비롯한 94명은 군수 앞으로 56엔 60전을 세민구제금으로 송금했다.<sup>122)</sup>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광산 측은 조선인 광부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그러나 일본어와 일본 관습을 중시한 정신교육에 치우친 나머지 현장에 필요한 교육은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인들의 사고는 빈발했다고 한다. 현재 정확한 사상자 통계는 확인할 수 없으나 신문기

122) 広瀬貞三, 「佐渡鉱山と朝鮮人労働者(1939~1945)」, 16쪽

사에 의하면, 1935년경에 평균 1일 1인 정도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35년 7월부터 사도광산은 ‘낙토화운동’을 개시하고 전 종업원을 대상으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상시위원’제도를 만들었다. 이 제도를 만든 이후에는 1개월당 평균 3~5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사고의 문제가 심각했음을 알 수 있다.<sup>123)</sup>

그렇다면 조선인의 사고 상황은 어떠했는가. [표 16]에 의하면, 10명의 사망자 기록이 있다. 이 가운데 구체적인 사례는 1942년 12월 20일 갯내에서 사망한 김주환(金珠煥) 일행의 사고사이다. 김주환 등 갯부 2명이 갯 안에서 제자(梯子)를 가설하던 도중 암석면에서 돌이 떨어져 두개골 파열로 사망한 사고이다.<sup>124)</sup> 이 사고는 [표 16]에 수록된 사망자 10명에 포함되지 않았다.

광업소 측은 사망자에 대해 ‘근속 3개월 이상 광부’의 경우에 단체생명보험과 사도광산광부부조내규를 적용했으나 조선인에게 적용 여부는 알 수 없다. 히로세는 [표 16]의 공상 송환과 사중 송환자 총 36명에 포함되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작성 대상 시기와 사망 시기가 차이가 나므로 포함되었을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한다.<sup>125)</sup>

사고사 외에 광부들을 괴롭히는 것은 진폐증이였다. 국내 현지조사 대상자 3명(강신도, 김종원, 홍동철)은 모두 귀국 후 진폐증으로 고생을 하다가 오래 살지 못했고, 모두 후유장애를 신청해 한국 정부(위원회)의 위로금을 받았다.<sup>126)</sup>

자료에 의하면, 광산 측은 1904년에 23개 병상을 가진 광산병원을 설치하고 1934년에 개축해서 병상수를 32개로 확장했다. 병원 외에 경비(輕費)진료소도 설치했다. 1944년 2월에는 조선인 광부를 위한 요양소를 개설하기도 했다. 요양소 개설의 목적은 ‘질병질환의 조기 치료와 정신 훈련 실시’였다. 광산 측은 요양소에서 치료를 받은 결과 수십 명이 직장으로 복귀했다고 했다. 요양원 입소자들은 대부분 진폐증이였을 것으로 추정된다.<sup>127)</sup>

그러나 당국의 홍보와 달리 앞에서 소개한 임태호는 부상을 입었으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못했다. 임태호는 지하에서 작업 중에 큰 부상을 입고 의식을 잃었으나 정신을 차린 곳은 병원이 아니라 함바였다. 허리를 강하게 맞아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열흘 정도 누운 채 지냈으나 간신히 일어날 수 있게 되자 다시 일터로 돌아가야 했다. 병에 걸려도 이를 이상은 설 수 없는데, 열흘이나 일하지 않았으므로 더 이상 휴식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후에도 부상을 당했으나 마찬가지였다. 부상자의 방치는 임태호가 위험을 무릅쓰고 사도광산을 탈출한 가장 큰 원인이었다.<sup>128)</sup>

조선인 연초배급 명부나 위원회 피해자목록에 의하면, 사도광산 광부들은 다른 지역으로 전근

123) 『新瀉新聞』1935년 7월 9일자 ‘佐渡鑛山夫の事故減少’

124) 張明秀, 『新瀉県在日朝鮮人關係年表』, 122쪽.

125) 広瀬貞三, 『佐渡鉱山と朝鮮人労働者(1939~1945)』, 12쪽

126) 부록 2) 현지조사자료 중 국내현지조사보고서

127) 広瀬貞三, 『佐渡鉱山と朝鮮人労働者(1939~1945)』, 13쪽

128) 朝鮮人強制連行真相調査團, 『朝鮮人強制連行の記録- 關東編』, 柏書房, 2002, 302쪽

조치된 것으로 보인다. 히로세의 연구에 의하면, 일부 조선인 광부들은 인근 다카치(高千)광산으로 전근조치되기도 했다. 다카치광산은 아이카와정에서 북동 24km 떨어진 곳에 있는데, 1896년에 사도광산과 함께 미쓰비시합자사가 불하를 받은 금은동 광산이다. 1936년 12월 현재 종업원수는 247명이고, 1939년에 가장 많은 광부를 보유했다. 사도광산에서 다카치광산으로 전근 시기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히로세는 “노동자 부족을 채우기 위해 조선에서 남자 4,50명을 데려왔다. 이들은 폐산(1943년 12월)할 때 까지 기타다쓰시마(北立島塚, 현재 다카치항)의 상애료라 불리던 합숙소에서 생활했다”는 지역사 내용(相川町史編纂委員會, 『佐渡相川の歴史 - 通史編, 近現代』, 648~690쪽)을 토대로 사도광산의 광부 일부를 전근시킨 것으로 추정했다.<sup>129)</sup>

대규모 전근은 일본 패전에 임박해 단행되었다. 1945년 8월 제1차 정신대(전국광산특별정신대) 189명과 제2차 219명 등 총 408명을 각각 사이타마와 후쿠시마현으로 파견해 지하공장 건설에 동원했다. 사이타마로 간 제1차 정신대원들은 군의 지하시설도 조성했고, 히타치(日立)항공기(株) 히가시마쓰야마(東松山)공장 건설 공사장과 나카노지마(中島)비행기회사 요시미(吉見) 지하공장 공사장에도 동원되었다. 후쿠시마현으로 간 제2차 정신대원은 약 3만 3천 평방미터의 내탄지하공장 건설 공사(信夫山)에 동원되었다. 나카노지마비행기회사가 엔진을 월 300대 생산하기 위해 만든 공장이었다.

조선인 연초배급명부에 확인한 전근 광부는 총 5명(金海大吾, 金山丁鳳, 金原振浩, 文玉男, 李周榮)이다. 지역사(『佐渡相川の歴史 - 通史編, 近現代』)에서는 8월에 이동했다고 기술했으나 명부에 의하면, 전근일자는 1945년 6월 20일이고, 명칭은 ‘軍緊急工作隊’이며, 전근 지역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위원회 피해조사 명부에서 두 군데로 전근한 광부는 총 4명(김금동, 백순기, 김달환, 박인혁)을 확인할 수 있다. 전근 지역은 사이타마와 후쿠시마가 각각 2명씩이다. 이 가운데 전남 진도군 출신 박인혁은 1945년 4월에 후쿠시마현으로 전근 갔다고 신고했다.

또한 사도광산 조선인 광부들의 전근은 광산으로도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 피해조사 명부 148명 가운데, 전근을 신고한 이들은 총 8명이다. 이 가운데 2명(백순기, 김영기)은 ‘사이타마현 소재 닛치쓰(日窒)지치부광산’과 ‘효고현 미쓰비시(三菱)광업(株) 아케노베(明延)광산’이라고 명확히 광산 이름을 기억했다. 두 군데 모두 당시 운영했던 광산이었다. 또 다른 1명은 사할린의 탄광으로 기억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현재 연구나 지역사 기술에 포함하지 못한 전근의 사례는 많고, 전근 지역이나 직종도 다양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당국이 군사시설로 전근을 단행한 이유는 인원 조정과 함께 일본 전역에서 구축 중이던 지하공장의 인력 배분을 위한 조치였다. 일본은 1944년 11월 미군의 대대적인 공습을 맞아 1945년초부터 비행기공장 등 필수 군수공장의 지하화에 착수했다. 일본 당국은 1945년 2월 23일에 ‘공장긴급소

129) 広瀬貞三, 「佐渡鉱山と朝鮮人労働者(1939~1945)」, 9쪽

개요강'을 각의결정했다. 1944년까지 내린 각의결정의 골자는 군수공장 주변의 주택을 철거해 주택에 붙은 불이 공장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차단막을 치는 것이었으나 1945년에는 야산에 지하공장을 마련하거나 공습의 위험이 적다고 예상되는 조선으로 군수공장을 이전하는 방안이었다. 당국의 정책으로 항공기 등 주요 병기공장을 산속으로 이전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도쿄 등 관동지역과 중부지역도 있었지만 주로 관서에 집중되었다. 지금도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하공장은 나가노현 마쓰모토(松本)시 외곽의 미쓰비시중공업 항공기 공장, 교토부 다카쓰키(高槻)에 가와사키(川崎)항공기공장으로 조성했던 다치소(高槻의 다, 지하의 치, 창고의 소를 조합한 당시 암호), 도쿄의 아사카와(淺川)에 건설한 나카지마(中島)비행기 지하공장 등 적지 않다. 패전에 임박한 시기까지 일본 전역에 조성한 지하공장은 2천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이타마와 후쿠시마로 전근되었던 조선인 광부들은 8월 26일(후쿠시마조)과 8월 27~28일 양일간 모두 319명이 사도로 돌아왔다. 본래 파견자는 408명이었는데, 이 사이에 89명이 행방불명이 되었다. 사이타마와 후쿠시마 현지에서 행방불명이 되었는지, 사도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방불명인지는 알 수 없다.<sup>130)</sup>

## (2) 조선인 광부의 생활 실태

사도광산의 조선인들을 관리하는 주체는 세 가지였다. 첫째는 조선인을 직접 고용했던 미쓰비시광업이다. 두 번째는 일본금속연합회, 도쿄광산감독국, 대일본산업보국회, 도쿄지방광산부회 등 반관반민 기관이었다. 1940년에 일본금속연합회가 설립되어 광업용 자재와 노동력을 통제했고, 1941년 12월 중요산업단체령 발동 후에는 광산통제회가 설립해 역할을 이어갔다.<sup>131)</sup>

사도광산은 도쿄광산감독국의 직접 관리를 받았다. 세 번째는 특고경찰과 협화회가 있었다. 강제병합시기부터 일본에 도입하는 조선인의 관리를 경찰이 담당했다. 1911년 조사통계표(明治44年中内地在留朝鮮人ニ關スル件)를 작성한 주체도 경찰 조직을 운영하던 내무성(경보국)이었고, 이후 조선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보고서를 작성한 주체도 모두 경찰이었다. 재일조선인의 창씨개명을 담당한 부서도 구청이 아닌 경찰서였다. 당시 조선인을 대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찰이 남긴 기록은 특별고등경찰기록과 일반경찰기록이다. 경찰은 기능에 따라 일반경찰과 보통경찰·고등경찰과 특별고등경찰로 나누었다. 일반경찰과 보통경찰이 '형사, 보안, 교통, 소방, 위생 등'을 담당한다면 고등경찰과 특별고등경찰은 국가와 사회 전체의 안녕 질서에 관한 사항을 담당했다. 후자는 주로 공산주의와 무정부주의 사상이나 독립운동을 단속하는 업무를 담당했고, 일반경찰과 보통경찰은 일상적으로 관할 지역 조선인의 동태를 파악하고 감시하는 업무를 담당했다.<sup>132)</sup> 그러므

130) 相川町史編纂委員會, 『佐渡相川の歴史 - 通史編, 近現代』, 683쪽

131) 三菱鑛業セメント株式會社總務部社史編纂室 編, 『三菱鑛業社史』, 1976, 334~337쪽

132) 萩野富士夫, 『特高警察』, 岩波新書, 2012, 34쪽; 허광무, 「일제말기 경찰기록으로 본 일본지역 강제동원 조선인노동자의 관리와 단속 - '도주'노동자 수배가 갖는 역사적 의미를 중심으로」, 『한일민족문제연구』



로 특고경찰이 사도광산의 조선인 광부를 담당하는 것은 당연한 업무였고, 광산에서 일어난 파업이나 태업에도 경찰이 관여했다.

협화회는 경찰서 단위로 설치한 조선인통제조직이다. 협화회수첩을 통해 조선인의 이동까지 통제했다. 그러므로 사도광산의 조선인은 아이카와현의 경찰조직과 1939년 발족한 니가타현협화회 아이카와 지회의 통제 아래 놓여 있었다.<sup>133)</sup> 니가타현협화회 하부 조직 가운데 가장 회원수가 많은 지회는 사도광산이 있었던 아이카와지회였다. 1940년 12월말 기준으로 니가타현협화회의 정회원은 1,959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655명의 정회원이 아이카와지회 소속이었다. 이러한 중층적이고 촘촘한 통제 상태에서 사도광산의 조선인은 생활하고 있었다.



[그림 50] 제1상애료 식당이 있었던 곳(2019.5.13. 촬영)

조선인들은 총 5개의 숙소에서 생활했다. 시모야마노가미마치(下山之神町)의 야마노가미(山之神)사택, 신고로마치(新五郎町)의 제1상애료, 스와쵸(諏訪町)의 제3상애료, 지스케마치(治助町)의 제4상애료, 그리고 금강료에서 생활했다. 히로세는 4개 숙소로 파악했으나 현지 연구자 사토 타이지는 1945년 3월 기준 거주 조선인은 5개 숙소의 총 1,200명이라고 파악했다.<sup>134)</sup> 이 가운데 연구단은 신고로마치의 제1상애료의 식당 자리를 확인했다.

히로세의 연구를 토대로 1943년 5월 기준 조선인 584명의 숙소 분포를 보면, 야마노가미에 117명, 제1상애료에 185명, 제3상애료에 157명, 제4상애료에 124명, 기타 1명이다. 야마노가미의 숙

35, 2018, 73쪽

133) 협화회에 대해서는 樋口雄一, 『協和會 - 戦時下朝鮮人統制組織の研究』(社會評論社, 1986) 참조

134) 2019년 6월 24일 사토 타이지가 허광무에게 보낸 메일 내용

소는 사택이어서 가족용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히로세는 광산측이 ‘가족동반 노무자에게는 사택을 무료 대여하고 공동목욕탕시설, 쌀과 된장, 장유, 기타 생활 필수품의 염가 배급(직영 구매회), 가족의 상병(傷病)의 경우에 직영 의국에서 진찰 실시. 단신자는 상애료 3개소에 수용하고 숙박비는 징수하지 않으며 식사는 일본인과 동등한 내용으로 1일 50전으로 제공하고’ 등등의 내용을 근거로 가족을 동반한 조선인 광부들이 사택에 거주한 것으로 파악했다.<sup>135)</sup> 그러나 논산의 국내현지조사에 의하면, 가족이 같이 생활했으나 이들의 숙소는 사택이 아니라 상애료였다.<sup>136)</sup> 당시 조선인 가족동반 규모를 볼 때 사택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시 신문기사에는 직영농원을 운영한 것으로 되어 있다. “미쓰비시 사도광업소에서는 사역하는 반도인 기타 수 백 명의 식량충당을 위해 相川山之町の 산야를 경작하고 농사기술원을 고용해 감자와 고구마 등 대량생산에 착수하고, 비료에 충당하기 위해 여러 마리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다”고 보도했다.<sup>137)</sup> 이러한 직영농장은 당시 남양군도에서 운영했던 방식이다. 사도섬이 고립된 지형이므로 식량을 자체 생산하기 위한 수단으로 직영농장을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1943년 8월 조선인에 대한 징병령이 시행되면서 1944년에는 징병대상자가 되어 입영하는 사도광산 조선인 광부도 생겼다. 조선인을 징병하기 위한 준비는 1942년 초부터 시작되었다. 1942년 1월, 조선군사령부는 제1920사단 징병주임참모를 사령부로 불러 조선 청년들의 체격과 일본어 실력, 그리고 호적 정비 상황을 확인했다. 그리고 1942년 5월, 내각은 각의결정을 통해 조선인 징병제 실시를 결정했다. 물론 각의에서 결정한 내용은 즉시가 아니라 1944년부터 실시였다. 이 결정에 따라 가장 먼저 교육제도를 정비했다. 제3차 교육령(1938년 3월 4일 공포)이 육군특별지원병제도의 창설을 위한 것이었다면, 제4차 교육령(1943년 3월)은 징병을 준비하기 위한 절차였다. 일본어는 물론 황국신민으로써 철저한 정신교육을 실시하고자 했다. 이전부터 국민학교 규정을 공포(1941년 3월 31일)했고, 1942년 12월에는 의무교육제도 시행 계획(1946년 예정)도 발표했다. 초등교육을 받지 못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조선청년특별연성소를 세워 교육했다. 징병 적령자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는 준비도 필요했다. 당국은 조선기류령(朝鮮寄留令)을 공포하고, 호적을 정비해서 징병 적령자 파악에 나섰다. 조선기류령은 본적지를 떠나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징병 적령자를 파악하기 위한 제도였다. 2년에 걸친 준비 기간을 거쳐 1944년 9월 1일부터 조선 청년들은 징병이라는 이름으로 입대했다.<sup>138)</sup>

사도광산 조선인 광부 가운데 징병 대상자는 20여명이었다. 대정익찬회 사도지부는 징병자격 대상자들을 ‘축복 격려하기 위해’ 1943년 8월 1일 아이카와현 대산지(大山祇)신사에서 ‘병제발전기념장정사기양양기원제’를 집행했다. 이 자리에는 사도지청장, 광산장, 아이카와 경찰서장, 광산향

135) 広瀬貞三, 「佐渡鉱山と朝鮮人労働者(1939~1945)」, 15쪽

136) 부록2) 현지조사자료 중 국내현지조사보고서

137) 『新潟日日新聞』1942년 4월 8일자 ‘相川の食糧増産運動’

138) 정혜경,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동원 연표』, 도서출판 선인, 2018, 133쪽

군분회장 등이 참석해 축하와 훈시를 하고 조선인 대표(村川華英)가 선서를 했다.<sup>139)</sup>

대상자 20여명 가운데 1944년 4월 제1회 징병검사에서 갑종합격을 받은 광부는 10명이었고, 이 가운데 8명(柳村益洙, 白川\*基, 新井光郎, 金本相培, 柳村志男, 石原公益, 石原鳳周, 南蓉益)이 9월에 입영했다. 위 행사에서 대표로 선서를 한 村川華英의 이름은 9월 입영자에서 찾을 수 없다. 니가타신문은 이들이 “군가와 깃발 아래 모여” 징병검사에 합격했다는 “감격과 광영과 자부심에 빛나는” 모습으로 “광산장 등이 서명한 국기를 어깨에 걸고” “미영을 격퇴하겠다”는 인사를 했다고 보도했다.<sup>140)</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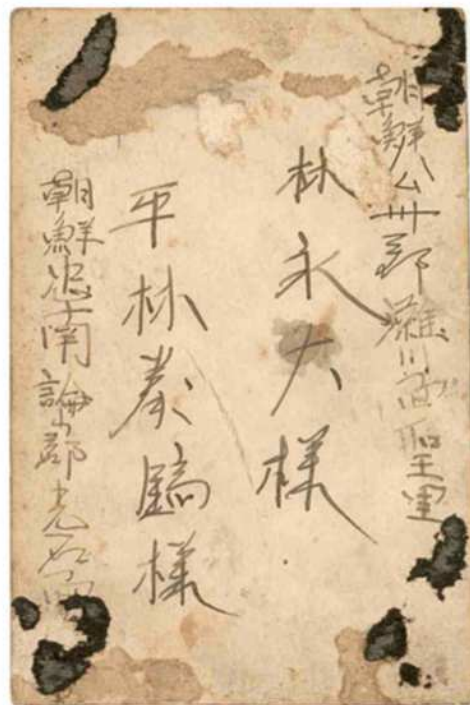
가와사키에 거주하는 사도섬 출신의 재일조선인들이 남긴 사진(안해룡 수집)을 통해 당시 모습을 볼 수 있다.

AD001 : 佐渡徴用 出典·提供 : 朴順伊氏



佐渡徴用工

AD002 : 佐渡徴用 出典·提供 : 朴順伊氏



AD001裏面書き

[그림 51] 박이순 할머니가 제공한 사진

[그림 52] 공주군과 논산군의 주소가 적힌 엽서

139) 『新潟新聞』1943년 8월 4일 ‘征け聖戦へ、佐渡鑛山の半島出身者産業戦士に翼賛支部が激勵’

140) 『新潟新聞』1944년 9월 6일 ‘光榮と感激に溢れ、佐渡鑛山から半島青年晴の入隊’



### (3) 저항하는 조선인

당초 할당모집의 기간은 2년이나 3년이었으므로 기한을 채우지 않는 한 귀선은 할 수 없었다. 처음부터 광산 측은 광부의 '정주화'를 통해 안정적인 노동력을 확보하고자 했으므로 가족동반정책을 실시했다. 가족동반정책은 탄광산 노동력 안정(생산성 증대, 노무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일반적으로 적용했던 당국의 정책이었다.<sup>141)</sup> 당국은 정책적 필요에서 실시한 가족동반을 시혜적 차원인 듯 호도했다. 고노마이광업소가 작성한 '1942년도 가족초청관계'를 보면, "성격이 유순하고 품행이 좋으며 도박을 한 번도 하지 않고 출가(出稼)성적도 양호하여 매월 4~50원 이상 실적을 올리며 가족 중에 노동가능자가 있는" 광부들을 대상으로 가족을 초청하도록 했다.<sup>142)</sup> 이 문서에 의하면, 가족 중에 노동가능자가 있는 광부가 가족을 초청할 수 있는 대상이었다. 사도광산은 고노마이광업소에 비해 더 적극적으로 가족동반정책을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141) 탄광노동자의 가족 동반은 일본 본토나 남사할린은 주로 탄광에서, 남양군도는 농장노동자를 대상으로 각각 실시되었다. 이른 시기의 가족 동반은 1940년 4월자로 후쿠오카현에 있던 메이지(明治)광업 히라야마(平山)광업소가 작성한 문건「移住半島労働者呼寄家族名簿」(「일제하피징용자명부」수록)에서 확인된다. 당국이 작성한 가족동반 관련 공문서는 1941.2.27에 내무성 경보국 보안과장이 조선인 노무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가족을 불러오는 방법의 추진을 명한 문건과 스미토모(住友) 고노마이(鴻之舞)광업소에 적용한「半島勞務員統理要綱」(1941.1)이 해당된다. 半島勞務員統理要綱에 의하면, 조선인노동자의 性的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의 하나이자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방법으로 채용한다는 취지가 밝혀져 있다. 특히 가족을 불러올 수 있는 노동자는 가동 성적이 우수한 사람으로 선정 대상자를 제한하고 있었고, 모집 조건에 가족동반을 제시함으로써 모집과 생산성 제고를 촉진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었다. 朴慶植,『在日朝鮮人關係史料集成』4, 三一書房, 1976, 14~15쪽; 小澤有作編,『近代民衆の記録10 - 在日朝鮮人』, 新人物往來社, 1978, 459~466쪽

142) 守屋敬彦 編,『戦時外國人強制連行關係史料集 - 朝鮮人2, 下』, 1903쪽

1941년 4월 기준 조선인 광부가 600명이었는데, 가족을 동반한 광부는 50명에 불과했으나 광산 측은 가족동반의 비율을 늘리기 위해 노력했다. 신문기사에 의하면, “반도노무자를 반영구적으로 머물게 할 방침 아래 가족을 부를 계획이며, 이달에는 40가족 약 100명, 다음 달에는 80가족 약 200명을 맞을 준비 중”이며, “조선인 아동을 위한 전문의 교사를 특별히 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sup>143)</sup> 그러나 학교를 다닌 조선인 아동은 드물었던 것으로 보인다. 논산현지조사 결과, 가족과 같이 사도로 들어간 두 가족 모두 학교를 다닌 기억은 없었다.

1939년 2월에 할당모집으로 사도광산에 들어와 3년의 기한을 채운 광부들은 1942년 1월에 기한을 채웠으므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그러나 광산 측에서는 ‘전원계속취로’ 방침을 정하고 ‘조선 현지 가정 사정이나 병역자 등 일부 일시귀선이 부득이한 경우는 조선 현지 관청과 경찰서와 협의한 후 송환’하기로 했다. 일부 일시귀선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돌아갈 수 없음을 의미했다. ‘계속취로수속수료자에 대해서는 적당한 시기에 개인 표창과 상당하는 장려금을 수여’하는 방법으로 조선인을 사도섬에 묶어두었다.<sup>144)</sup> 돌아가고 싶어도 마음대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 바로 강제이다.

마음대로 돌아갈 수 없는 인신 구속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하나는 투쟁이다. 그러나 사도광산은 섬이라는 지형적 특징으로 인해 투쟁이 제한된 지역이었다. [표 16]에는 총 148명의 ‘도주’ 사례가 있고, ‘도주’는 파업이나 태업과 같이 조선인 저항의 사례 가운데 하나이다. 조선인 저항의 종류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은 파업이다. 사도광산 조선인들은 어떤 형태의 투쟁을 했는가.

사도광산에서 조선인이 일으킨 투쟁 사례는 2건이다. 공안당국의 자료에 의하면, 1940년 2월 17일, 98명의 조선인이 일하고 있는 현장에서 신보료(新保寮)에 수용되어 있던 최재만(崔在萬)을 대표로 40명의 조선인이 ‘불온한 행동’을 보였으나 당일 해결했다. 이들은 광산 측이 청부제도로 관리하던 광부들이었는데 급여나 대우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두 번째 투쟁 사례는 1940년 4월 11일 97명이 일으킨 파업이었다. 이들은 ‘3월분 임금 지급을 받은 결과 응모 당시 조건과 차이가 있어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일으켰다. 이 사건은 4월 13일에 해결되었는데, 경찰이 개입해서 주모자 3명은 조선으로 송환했다.<sup>145)</sup>

두 사례의 배경에는 ‘급여 외에 식비(1일 50전)나 장비대(1조당 50전)를 공제하는 일, 무료지급이라 여겼던 작업화(지카타비) 등 작업필수품을 모두 본인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문제’가 자리하고 있었다. 또한 ‘일부 노무 관리자들의 극단적인 차별의식’도 원인이 되었다. 모집 당시에 노동조건을 정확히 전달하지 않았던 점도 조선인의 차별 사례이기도 했다.<sup>146)</sup>

143) 『新潟新聞』 1941년 4월 14일자 ‘半島人戰士 佐渡鑛業所に約六百名’

144) 広瀬貞三, 『佐渡鉱山と朝鮮人労働者(1939~1945)』, 12쪽

145) 内務省 警保局, 『特高月報』 1940년 3월분; 4월분; 張明秀, 『新潟県在日朝鮮人関係年表』, 『新潟近代史研究』 3, 1982, 122~123쪽

강철의 『재일조선인사연표』에는 ‘1942.4.29. 미쓰비시 사도광업소 소속 조선인 노무자 3명이 경관에 연행되자 동료 160명이 사무소로 난입해 항의하다가 8명이 체포당함’이라는 내용이 나온다. 신문 기사나 공안당국의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한 사례이다. 3명이 무슨 이유로 연행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160명의 동료들이 사무소로 난입해 8명이 체포되었다면 매우 격렬한 사건으로 보일 뿐이다.<sup>147)</sup>

두 사례 외에도 현장 탈출은 빈번했다. 공안당국 자료에 의하면, 총 5건이다. 1942년 11월 4일 4명(임금과 식료 부족의 불만을 품고 도망을 기도하고 동료에도 도움을 요청, 동료는 수수료를 가지고 도망), 월일 불명 여성 포함 4명(저렴한 임금에 불만을 품고 일본인 어부와 조선인 고물상의 도움을 받아 도주했으나 검거되어 검찰에 송국, 1943년 1월 도망한 조선인 2명에게 벌금 40엔 판결이 내려짐. 기타 2명은 다시 탈출을 시도해 성공), 1943년 2월 27일 1명이 도주했으나 4월 18일 발각되어 검거(노무조정령 위반으로 송국), 1943년 3월 26일 2명이 도망했으나 29일에 적발되어 노무조정령 위반으로 송국, 1943년 5월 1일 1명이 도주(5월 3일 발견되어 검거, 노무조정령 위반으로 송국)<sup>148)</sup>

탈출을 시도한 이들은 어부 등 주민의 도움을 통해 탈출을 시도했으나 성공한 사례는 드물었다. 공안당국이 파악한 조선인 탈출 원인은 ‘임금 불만’ 등 노동조건 문제였다. 앞에서 소개한 경험자 임태호는 사고에서 목숨을 지키기 위해 탈출했다. 그러나 광산 측은 조선인의 탈출 원인을 ‘자유방임에 부동성인 성격이나 부화뇌동성, 도일 이전부터 계획’ 등 광부 개인의 성향으로 폄하했다. 방지 대책도 ‘관변이나 사업주 협력을 철저히 한 단속 강화, 내지와 다른 전시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조선 현지의 근황을 충분히 인식, 도망증개자 엄벌, (주민들에게-인용자) 반도노무자에 대한 값싼 동정심을 근절시킬 것, 부랑반도인의 사용금지’ 등 단속 강화로 일관했다<sup>149)</sup>. 노동조건 개선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 (4) 해방을 맞은 조선인

1945년 8월 15일 현재 사도광산에 남은 조선인은 244명으로 알려져 있다. 해방은 맞았지만 이들은 곧바로 귀국선을 탈 수 없었다. 일본이 패전을 공식 공표한 8월 15일 다음 날인 16일, 아이카와 경찰서장과 특고계, 광산 측은 회의를 열었다. 이들의 논의 주제는 조선인 광부의 귀국이 아니라 ‘패전으로 인한 가동률 저하 방지 방안’이었다. 이들은 가동률을 유지하기 위해 ‘지도회’를 개설했다. 일본 패전 후 사이타마와 후쿠시마로 전근되었던 조선인 광부들은 8월 26일(후쿠시마조)과 8월 27~28일 양일간 모두 319명이 사도로 돌아왔다. 본래 파견자는 408명이었는데, 이 사이에 89명이 사라진 것이다. 전근자들의 복귀로 사도에 집결한 조선인 광부는 총 573명이 되었다. 이 가운데 8월 15일~9월 11일까지 새로운 ‘도주자’가 7명, 일방적 귀선자가 27명 발생했다.<sup>150)</sup>

146) 相川町史編纂委員會, 『佐渡相川の歴史 - 通史編, 近現代』, 682쪽

147) 姜徹, 『在日朝鮮人史年表』, 雄山閣, 1983, 194쪽

148) 内務省 警保局, 『特高月報』1943년 2월분; 張明秀, 『新潟県在日朝鮮人関係年表』, 123~124쪽

149) 佐渡鑛業所, 『半島勞務管理ニ就テ』(1943년 6월), 『在日朝鮮人史研究』12, 1983, 88쪽



500여명이 넘는 조선인 광부들은 곧바로 귀국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노동에 복귀하지 않았다. 광산 측이 노동에 복귀하지 않은 이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지 않자 십 수명의 조선인이 공동취사장에 몰려가 항의하기도 했다. 또한 광산에서 '도주'한 광부들이 사택이나 기숙사 거주자들과 연락을 하는 등 당국의 입장에서 조선인 광부들은 '불온한 행동'을 계속했다. 그러자 광산 측은 9월 1일부터 '기분전환을 위한 출가(出稼) 경쟁'을 실시해 9월 상순까지 평균 75~76%의 출가율을 보이기도 했다. 식량은 8월 31일까지 가배미(加配米)를 4합 3작을 지급했는데, 9월 1일부터 4합 1작으로 감소하고, 이 가운데 5할은 콩을 섞었다. 부식의 상황도 나빠졌다. 직영농장에서 수확하는 야채가 1개월분도 남지 않을 정도가 되었다.<sup>151)</sup> 이런 상황에서 조선인의 귀국 열망은 강했으나 기다림은 계속되었다.

니가타현 경찰서는 조선인 송환 방침을 정하고 9월 30일부터 니가타지역의 군수공장에 동원했던 조선인을 귀국시키기 시작했다. 9월 30일~10월 2일까지 총 2,254명이 귀국했다.<sup>152)</sup> 이들의 귀국을 완료한 후 사도섬 광부들의 귀국이 가능했다. 1945년 12월 이후 2개월 기간 동안 일본에 영주를 희망하는 몇 명을 제외한 이들이 귀국할 수 있었다.<sup>153)</sup>

---

150) 相川町史編纂委員會, 『佐渡相川の歴史 - 通史編, 近現代』, 683쪽. 광산 측이나 당국은 일본 패전 후에도 여전히 조선인 광부에 대해 '도주'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151) 相川町史編纂委員會, 『佐渡相川の歴史 - 通史編, 近現代』, 683쪽

152) 広瀬貞三, 「佐渡鉱山と朝鮮人労働者(1939~1945)」, 21쪽, 표 4

153) 영주를 희망한 이들은 일부는 사도에 남았고, 일부는 가와사키로 이주했다.





## Ⅳ. 조사 성과 및 활용 방안

### 1. 조사의 성과 및 의의

본 보고서는 일본이 아시아태평양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동원한 조선인 피해 실태를 미쓰비시광업(주) 소속 사도광산을 사례로 살펴본 연구 결과물이다. 보고서는 학계와 정부 기관, 그리고 시민들이 좀 더 평이하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진과 도표를 제시했다. 보고서를 통해 학문적인 부분을 포함해 국가적·민족적 의미를 중시해 현재 우리 정부와 학계의 이러한 진상조사 노력이 과연 과거 강제동원 피해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을 반영하고자 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인을 동원한 일본지역의 탄광·광산을 886개소(광산 522개소, 탄광 364개소)로 파악하고, 구체적인 현황을 정리 제공했다. 탄광과 광산의 이름을 비롯해 동원기업 및 자본계열(현존기업 여부 포함), 주소, 명부 등재 여부, 주요 생산품 등 관련한 정보를 폭넓게 수집 정리했다. 현황 정리를 위해 기존의 연구와 조사보고서는 물론 광산명감 등 관련 자료와 관련 명부(조선인노무자에 관한 조사결과, 소위 조선인피징용자에 관한 건, 조선인노무자공탁금자료, 조선인 재일자산 조사보고서철, 후생연금명부, 경제협력 한국·105조선인에 대한 임금미불채무조)를 적극 활용했다.

이 과정을 통해 조선인을 동원한 일본지역 탄광·광산의 기업은 총 325개이고, 이 가운데 다수를 차지하는 기업이 니혼(日本)광업(주) 52개소, 미쓰비시(三菱)광업(주) 46개소, 스미토모(住友)광업(주) 37개소, 닛테츠(日鐵)광업(주) 36개소, 미쓰이(三井)광산(주) 33개소, 후루카와(古河)광업(주) 18개소 등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42개 도도부현에 걸친 광범위한 지역에서 조선인을 동원한 사실도 파악할 수 있었다.

둘째, 광산 노동의 특성과 광부의 적극적 활용 방안의 하나인 전환배치 실태를 정리했다. 광부

의 전환배치는 첫째, 1943년 금광업조정령에 따라 동일한 직종(광산)으로 전근한 사례와 둘째 광부를 군시설공사장으로 동원한 사례가 있다. 이 가운데 본 보고서에서는 실태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전자의 사례를 분석했다.

1943년 광부의 전환배치는 강제성을 입증하는 사례이다. 당국이 전시체제 운영을 위해 노무자의 통제와 효율적 운용을 도모한 사례이기 때문이다. 광산노무자의 전환배치는 당시 군수물자 생산에서 광산이 갖는 의미를 확인하는 사례로서도 의미가 있다. 광산의 채굴품 가운데 철광석은 비행기와 선박 등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물자였고, 금은 전비 마련에 중요한 광물이었다. 그러나 전쟁 말기에 철광석과 구리 생산에 노동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으므로 일본 상공성은 금광업조정령을 발동하고 노무자의 전환배치를 단행했다. 본 보고서에서는 명부분석을 통해 조선인들의 전환배치 과정과 전환배치 전후의 노동실태에 대해 살펴보고, 현지조사 결과도 반영했다. 관련 명부(1943년 금광업조정령에 의한 전환배치 노무자 명부)는 엑셀 파일에 입력하고 필터링하여 통계 수치를 추출하는 동시에 다각적인 분석이 가능하도록 정리해서 부록에 수록했다.

셋째, 미쓰비시광업(주)과 사도광산의 조선인 동원과정과 피해실태를 분석했다. 이를 위해 먼저 미쓰비시 관련 자료를 근거로 메이지 이후 일본의 전쟁을 통해 미쓰비시 그룹의 성장 과정을 살펴보고, 미쓰비시광업(주) 사사(社史)를 토대로 조선인을 동원한 미쓰비시광업(주) 소속 45개 탄광·광산 가운데 27개 광산의 현황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광산 운영 실태를 살펴보았다. 또한 미쓰비시광업(주) 소속 사도광산의 조선인 강제동원 실태를 살펴보았다. 사도광산 조선인 피해실태 규명을 위해 문헌기록(명부와 신문기사 및 문서기록)과 구술기록, 현지 조사라는 방법을 활용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최초로 사도광산 관련 조선인 명부 2종을 발굴해 미시적 분석을 시도했다. 보고서에는 명단을 확인할 수 있는 조선인 연초 배급명부를 분석하고, 2종의 명부는 모두 부록에 수록해 최초로 명부를 공개했다.

넷째, 조사의 성과를 활용하기 위해 조사과정에서 확보한 자료에 대한 활용 방안과 아시아태평양전쟁유적으로서 사도광산을 대상으로 한 역사문화콘텐츠적 시각에서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아시아태평양전쟁유적의 역사문화콘텐츠적 활용 방안은 일반 시민들이 역사를 만나는 창구이며 활용과정을 통해 역사 경험을 축적하고 축적된 경험을 다시 시민의 반전평화역사교육으로 순환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그러므로 이를 토대로 적합한 문화콘텐츠 구축 및 활용 방안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도의 일환으로 제4장 제2절에 사도광산의 역사문화콘텐츠적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향후 한국과 일본 사회가 구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부록에는 탄광·광산기초현황목록, 현지조사 자료(국내, 일본), 1943년 금광업조정령에 의한 전환배치 노무자 명부, 연구단이 확보한 사도광산 조선인 강제동원 명부의 명단과 사본(총 2종), 위원회 피해조사 명부 등 총 6종을 수록했다.

학술연구용역조사 보고서의 성과 및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의 지평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다. 연구 범위에 머물지 않고 조선인이 강제동원된 총 886개 탄광·광산 현황을 정리 제공함으로써 관련 연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노력했다. 또한 연구 수행과정에서 확보한 모든 자료를 정리, 제공함으로써 향후 활용도를 높이고자 했다.

둘째, 양국 사회가 미쓰비시광업(주) 소속 사도광산의 조선인 강제동원과 관련한 사실의 무게를 인식할 수 있는 근거와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이다. 사도광산 관련한 명부와 신문기사, 공안당국의 문서, 경험자의 구술기록, 현지조사자료를 폭넓게 수집 분석해 기존 연구를 뛰어넘는 사도광산 조선인 강제동원 실태를 제시할 수 있었다. 새롭게 발굴한 명부를 통해 사도광산에 동원된 조선인이 충남지역 출신자를 넘어 경북과 함남지역까지 총 6개도(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북, 함남) 출신임을 확인했고, 군진급공사장 동원 사례도 추가할 수 있었다. 이러한 성과는 2021년 예정인 일본 사회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대응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시민 사회가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적극적인 연구 수행을 통해 다대한 성과를 산출했다는 점이다. 책정된 현지조사비에 국한하지 않고 자체 조사를 통해 총 2차례 현지 조사(니가타현 사도시, 홋카이도 몬베쓰시)를 실시했고, 가와사키 거주 재일동포가 소장한 사진 자료를 확보했다. 최초로 사도광산과 관련한 명부를 발굴 공개한 점도 연구단의 성과 가운데 하나이다. 명부자료는 강제동원의 실태를 규명하는데 기초자료이지만 사도광산의 경우에는 일본 정부와 기업이 생산한 명부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연구단이 연구 수행 과정에서 새로이 명부 2종을 발굴 공개함으로써 사도광산 연구 진작에 기여했다고 자평한다.

넷째, 강제성에 대한 인식을 정립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전환배치 정책, 광부들의 탈출(도주), 임금 문제를 통해 강제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일본 정부는 1932년 강제노동을 금지한 국제노동기구(ILO)의 노동 협약 제29호를 비준했다. 그런데도 1938년 국가총동원법이라는 법적 근거에 따라 총동원시스템을 마련하고 제국 일본의 모든 영역을 대상으로 인적·물적·자금을 총동원했다. 아시아태평양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일본은 스스로 비준한 국제노동기구의 노동 협약 29호를 위반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43년 광부의 전환배치는 당국이 전시체제 운영을 위해 노무자의 통제와 효율적 운용을 도모한 사례이므로 강제성을 입증하는 사례이다. 또한 탈출 문제를 살펴보면, 강제성 문제는 명확해진다. 강제로 동원된 조선인들은 늘 탈출을 시도했고, 회사 측은 경찰과 직업소개소 등 촘촘한 색출 시스템을 가동해 잡아들이고, 탈출자에 대해서는 린치와 폭행을 가했다. 섬이라는 지정학적 한계가 있었던 사도광산에서도 광부들은 적극적으로 탈출을 감행했다. 서류에는 ‘도주’라고 기재했다. ‘퇴사’가 아니었다. 상식적으로 볼 때, 자유로운 상태에서는 있을 수 없는 현상이다. 바로 인신적 구속, 강제적 상태에 놓여 있음을 의미하는 사례이다. 임금 문제에 대해서는 본문에서 임금 수령 여부나 임금의

과다 여부는 강제성과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시체제기 노무자들은 노동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일본 국가권력이 제정한 법에 따라 자본가와 계약관계에 따라 노동조건을 확보하거나 노동자 권리를 주장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임금을 비롯한 모든 처우는 부리는 자들이 일방적으로 정했고, 지급 방식도 일방적으로 운영했다. 이러한 내용은 2019년에 일부 경제학자들이 제기한 '강제동원 부정론'에 근본적 대응 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연구의 가장 큰 어려움은 자료의 문제이다. 특히 사도광산과 관련해 일본 정부나 기업이 생산한 피해자 명부는 잔존하지 않으며, 연구단이 확보한 명부자료는 일부 내용에 그치고 있다. 구체적으로 명부분석 과정에서 확인한 가장 큰 문제는 명부에 수록된 인적 정보가 제한적이라는 점과 정확도를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 교차분석 자료의 문제이다. 교차분석 자료로 사용하는 일정시피징병자징용자명부나 왜정시피징용자명부는 한반도 전체가 아닌 남한 지역으로 국한되며, 이 가운데, 일정시피징병자징용자명부는 전북 지역이 누락되어 있다. 그러므로 북한지역 출신자 분석 불가능한데, 조선총독부 지정연령자 명부에는 함남 출신이 기재되어 있다. 남북공동조사를 통하지 않으면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다.

또한 과거사업무지원단을 통해 제공받은 자료는 누락되거나 확인이 필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분석에 어려움이 있었다. 요청 자료에 대한 회신에 2개월 이상 걸렸다는 점을 감안할 때 추가로 보완 자료 제공에 일정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일부 항목 분석에 그쳤다.

향후 과제로는 네 가지를 들고자 한다.

첫째, 연구 성과를 시민사회와 공유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술연구용역 수행 과정을 통해 사진과 명부 등 다양한 자료를 확보하고 제공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를 시민사회와 공유하기 위해서는 학술연구를 뛰어넘는 다양한 콘텐츠의 구축이 필요하다. 본 연구보고서에 수록한 활용 방안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고민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둘째, 일본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시도에 적절한 대응 자세가 필요하다. 2015년 일본의 메이지근대산업유산 등재 대응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외교부, 위원회, 문화재청,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공동 대응을 했으나 대응 시기가 늦었다. 그렇지만 일본 유네스코위원회가 세계유산위원회 석상에서 강제성을 인정한 것은 위원회의 진상조사 결과물이 있었고, 조선인 외 피해국가(중국, 연합국 포로 피해국 등)와 연대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도광산은 조선인 광부 외에 타국의 피해자를 찾을 수 없는 곳이고,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 결과물이 없으며 일본 현지의 시민운동단체도 찾을 수 없다. 여러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점에서 '사도금은산 - 금을 중심으로 하는 사도광산의 유산군'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일본의 세계유산 등재 노력과 관련해서는 대응 방안이 면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셋째, 추가 피해자 발굴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사도광산에 동원된 조선인 규모는 1,200여명으

로 알려져 있고, 공탁금 현황표를 통해 1,140명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위원회에 피해신고를 한 피해자는 148명에 그치고 있다. 현재 중단된 정부의 피해조사 기능을 회복해 추가 피해자를 발굴하고, 진상규명의 성과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넷째, 역사자료로서 명부자료의 공유 노력이 필요하다. 보고서 부록에 몇 가지 명부를 수록했으나 사도광산에 국한한 명부이다. 이 자료는 최초로 발굴한 명부라는 점에서는 매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 명부에 만족할 수 없음도 명확하다. 추가 자료 수집의 필요성이 있으며,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렵다는 점도 있다. 명부와 명부 사본을 연동하는 DB화가 필요하다.

또한 현재 국가기록원에는 위원회가 해산 과정에서 이관한 180만건의 조선인 강제동원 피해자 명부 DB가 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은 개인정보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역사기록물이다. 사도광산 명부가 추가된다면, DB의 규모는 늘어날 것이다. 180만건 명부자료의 일반 공개는 현재 기술적인 어려움이나 공개에 따른 법적 제약은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국가기록원은 이 명부자료를 전면 공개해 연구 활성화를 도모하고 사회적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2. 활용 방안

본 연구를 통해 산출한 결과물은 향후 역사문화콘텐츠적 방법을 통해 세계 보편적 가치의 기준에 따라 활용할 수 있다. 역사문화콘텐츠적 활용 방안은 일반 시민들이 역사를 만나는 창구이다. 일반인들은 학자처럼 사료를 뒤적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해석하고 상상력이라는 필터(소설가의 말, 사진가의 렌즈, 만화가의 그림)로 걸러서 전달한 과거의 표현을 접하기 때문이다. 역사문화콘텐츠가 할 수 있는 일은 적극적 기록 활용을 통한 역사의 복원과 재현이다. 필드워크,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일반인들이 역사의 진지함을 찾아가도록 돕는다. 그러므로 본 보고서의 역사문화콘텐츠적 대안 제시는 한국 사회는 물론, 향후 일본 사회에도 유용할 것이라 생각한다.

역사문화콘텐츠적 활용 방안 가운데 적용 가능한 방안은 문화콘텐츠 구축을 통한 활용의 극대화이다. 역사문화콘텐츠는 문화콘텐츠 구축 및 활용과정을 통해 역사 경험을 축적하고 축적된 경험을 다시 시민의 반전평화역사교육으로 순환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그러므로 이를 토대로 적합한 문화콘텐츠 구축 및 활용 방안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문화콘텐츠는 출판콘텐츠·사진 및 영상 콘텐츠·웹과 모바일 콘텐츠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산출한 결과물을 대상으로 어떠한 콘텐츠를 적용할 것인가. 선행 작업은 아카이빙을 하는 일이다. 이를 전제로 구체 콘텐츠 적용 방안을 살펴보면 세 가지이다.

첫째, 현지조사 자료(사진, 구술 등)를 주제별(사도광산)로 홈페이지를 통해, 출판물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는 방법이다. 본 보고서 외에 모든 학술연구용역 수행 결과물에 적용할 수 있다.

둘째, 연구보고서에 수록한 정보를 토대로 웹 콘텐츠를 제작하는 방법이다. 위원회 활동 기간 중 이와 유사한 웹 콘텐츠를 구축한 적이 있다. 웹 콘텐츠의 제작에 필요한 기본 정보는 본 보고서 부록에 제시한 886개소 탄광·광산기초현황목록이다. 이를 토대로 기본 웹 콘텐츠를 구축한 후 관련 정보를 추가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다. 지도에서 42개 도도부현의 탄광과 광산 작업장을 특정한 후 개별 작업장에 클릭을 해서 구체 정보에 접근하는 방식이다. 일반 시민이 취득한 현장 정보를 추가할 수 있는 쌍방향 서비스 기능을 넣는다면 웹 콘텐츠의 내용은 더욱 풍성해질 것이다.



[그림 53] 웹 콘텐츠 ‘일본 내 조선인 재해재난 개요 및 유골보관 실태표’ 대문  
(<http://www.pasthistory.go.kr/>)



[그림 54] 항목이나 지도를 클릭하면 재해재난 사고의 내용과 해당 장소의 그림 등 상세한 정보를 볼 수 있고, 이용자가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886개 강제동원 탄광과 광산 현장 가운데 다수는 현재도 현장에 남아 있는 아시아태평양전쟁유적이며, 일부는 세계유산에 등재되어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2015년 메이지시대 근대산업유산 등재 과정에서 일본은 현장의 역사성을 담지 않으면서 지금까지 유네스코 정신을 지키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를 통해 제시한 886개 탄광과 광산 현장을 피해국은 물론 세계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도광산을 포함한 학술연구용역결과물을 활용한 연구사업과 새로운 콘텐츠 생산을 지원하고 시민과 함께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방법이다. 학술행사를 개최하거나 토크 콘서트 같은 시민 상대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현장답사(필드워크)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일반 시민들이 생산한 콘텐츠(사진, UCC 등 영상물)를 공모해서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 참고문헌

## ○ 자료집 및 연구서, 구술집

-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 지원위원회 소장 자료  
社団法人北海道石炭鑛業會, 『北海道鑛業誌』, 1928  
內務省警保局, 「社會運動の狀況」, 1940년판  
持株會社整理委員會, 『日本財閥とその解體』, 1941  
中央協和會, 『朝鮮人勞務者募集狀況』, 1941  
內務省 警保局, 『特高月報』1943년 2월분  
佐渡鑛業所, 「半島勞務管理ニ就テ」(1943년 6월), 『在日朝鮮人史研究』12, 1983  
國民總力朝鮮聯盟, 『國民徵用の解説』, 1944  
飯塚市役所, 『飯塚市誌』, 筑豊印刷, 1952  
大山藪太郎, 『鑛業勞働と親方制度』, 有斐閣, 1964  
森末義彰·寶月圭吾·小西四郎, 『生活史』, 山川出版社, 1969  
藤原 彰·今井清一大江志乃夫, 『近代日本史の基礎智識』, 有斐閣, 1972  
麓三郎, 『増補版佐渡金銀山史話』, 三菱金屬鑛業, 1973  
朴慶植, 『在日朝鮮人關係史料集成』4, 三一書房, 1976  
三菱鑛業セメント株式會社總務部社史編纂室 編, 『三菱鑛業社史』, 1976  
新潟市, 『戰場としての新潟』, 1978  
田中圭一, 『島の自叙傳』, 靜山社, 1982  
姜徹, 『在日朝鮮人史年表』, 雄山閣, 1983  
津南町 編, 『津南町史』通史編 下卷, 1985  
樋口雄一, 『協和會』, 社會評論社, 1986  
新潟縣 編, 『新潟縣史-通史編8』, 1988  
이배용, 『한국근대광업침탈사연구』, 일조각, 1989  
兵庫朝鮮關係研究會 編, 『地下工場と朝鮮人強制連行』, 明石書房, 1990  
守屋敬彦 編, 『戰時外國人強制連行關係史料集 - 朝鮮人2, 下』, 明石書店, 1991

- 靜岡縣朝鮮人歴史研究會,『朝鮮人強制連行の傷跡 - 靜岡縣編 - いやされ過去』, 1995
- 相川町史編纂委員會,『佐渡相川の歴史 - 通史編, 近現代』, 1995
- 朝鮮人強制連行實態調査報告書編輯委員會·札幌學院大學北海道委託調査報告書編輯室,『北海道と朝鮮人労働者 - 朝鮮人強制連行實態調査報告書』, 1999
- 정혜경,『일제시대 재일조선인민족운동연구』, 국학자료원, 2000
- (㉔)TEM研究所,『佐島金山』,(㉕)GOLDEN佐島, 2001
- 朝鮮人強制連行真相調査團,『朝鮮人強制連行の記録- 關東編』, 柏書房, 2002
- 長澤秀編,『樺太廳警察部文書 戦前朝鮮人關係警察資料集Ⅳ』, 綠蔭書房, 2006
- 平和教育研究委員會 編,『新聞などに見る新潟県内韓国朝鮮人の足跡』 平和教育研究委員會資料シリーズ 第2集, 平和教育研究委員會, 2006
- 竹内康人,『戦時朝鮮人強制労働調査資料集 - 連行先一覧・全國地圖・死亡者名簿』, 神戸學生青年Center出版部, 2007
- 李朋彦,『在日1世』, 2007(이봉언 지음, 윤상인 옮김,『재일동포 1세, 기억의 저편』, 동아아시아, 2009)
- 국무총리 소속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위원회,『진상조사보고서 - 사할린 '이증징용' 피해 진상조사』(작성자 정혜경), 2007
- 국무총리 소속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위원회,『진상조사보고서 - 일본 조세이(長生)탄광 수몰사고 진상조사』(작성자 허광무), 2007
- 佐渡市平和教育委員會世界遺産·文化振興課·新潟縣教育廳文化行政課 編,『黄金の島を歩く』, 佐渡市教育委員會·新潟日報, 2008
- 이용식 지음, 배지원 옮김,『재일조선인 아리랑』, 논형, 2010
- 平和教育研究委員會 編,『新潟縣における韓国・朝鮮人の足跡をたどる』 平和教育研究委員會資料シリーズ 第2集, 平和教育研究委員會, 2010
- 新潟市 編,『新潟港あゆみ』, 朱鷺新書, 2011
-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진상조사보고서 - 전시체제기 규슈지역 '아소광업(주)'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진상조사』(작성자 심재욱), 2011
- 정혜경,『일본 제국과 조선인 노무자 공출』, 도서출판 선인, 2011
- 정혜경 외,『강제동원을 말한다-명부편(1)』, 도서출판 선인, 2011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 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전라남도 해남 옥매광산 노무자들의 강제동원 및 피해실태 기초조사 보고서』(작성자 우영송), 2012
- 大野達也 編,『鉱山をゆく』, イカロス出版株式会社, 2012
- 萩野富士夫,『特高警察』, 岩波新書, 2012
- 竹田和夫 編,『歴史のなかの金銀銅』, 勉誠出版, 2013
- 竹内康人,『調査・朝鮮人強制労働2 - 財閥・鑛山編』, 社會評論社, 2014
- 五十嵐敬喜 外,『佐渡金山を世界遺産に』, 株式会社ブックエンド, 2014
- 허광무 외,『일제강제동원 Q&A(1)』, 도서출판 선인, 2015
-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활동결과보고



서』, 2016

가와타 후미코 지음, 안해룡·김해경 옮김, 『몇 번을 지더라도 나는 녹슬지 않아』, 바다출판사, 2016

정혜경, 『우리지역의 아시아태평양전쟁유적 활용 - 방안과 사례』, 도서출판 선인, 2018

정혜경,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동원 연표』, 도서출판 선인, 2018

정혜경, 『아시아태평양전쟁에 동원된 조선의 아이들』, 섬앤섬, 2019

정혜경, 『일본의 아시아태평양전쟁과 조선인 강제동원』, 동북아역사재단, 2019

정혜경 외, 『반대를 논하다 - '반일종족주의'의 역사부정을 넘어』(도서출판 선인, 2019)

金村友幸 편, 『鴻之舞の歴史(年表) - 鑛山と生活』, 자비출판물(北見市 東陵町 57-28, 몬베츠시립도서관 소장), 연도미상

## ○ 연구 논문

佐藤泰治, 「新潟縣における朝鮮人労働者の處遇」, 『魚沼文化』27, 1978(뒤에 梁泰昊 編, 『朝鮮人強制連行論文集成』, 明石書店], 1993)

佐藤泰治, 「新潟県における朝鮮人労働者 1」, 『新潟県部落史研究』3, 1980

佐藤泰治, 「新潟県における朝鮮人労働者 2」, 『新潟県部落史研究』4, 1981

浜淵久志, 「太平洋戦争期における三菱財閥の再編過程(1)」, 『北海道大學 經濟學研究』31, 1981

浅野好美・趨公恵, 「日本 帝國主義下の朝鮮人労働者 一県内在住・在日朝鮮人一世の聞き取りを中心」, 『新潟近代史研究』3, 1982

曹喜春, 「新潟港湾労働における朝鮮人強制連行・強制労働 一証言をもとに」, 『新潟近代史研究』3, 1982

張明秀, 「中津川水力発電所における朝鮮人労働者虐待・虐殺事件 一「東亜日報」掲載の資料紹介」, 『新潟近代史研究』3, 1982

張明秀, 「新潟県在日朝鮮人関係年表」, 『新潟近代史研究』3, 1982

佐藤泰治, 「新潟縣における朝鮮人ノート」, 『新潟近代史研究』3, 1982

橋澤裕子, 「新潟縣における朝鮮人労働運動-新潟縣朝鮮労働組合を中心に」, 『在日朝鮮人史研究』17, 1987(뒤에 橋澤裕子, 『遺稿集・朝鮮女性運動と日本』, 緑蔭書房, 1989)

長澤秀, 「新潟縣と朝鮮人強制連行」, 『在日朝鮮人史研究』19, 1989(뒤에 梁泰昊編, 『朝鮮人強制連行論文集成』, 明石書房, 1993)

林道夫·張明秀, [佐渡相川三菱鑛山に強制連行された「朝鮮人」の調査についての報告]보고서, 1992

정혜경, 「식민지 시대 아소(麻生)탄광 재일조선인노동쟁의」,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대학원논문집』7, 1992

守屋敬彦, 「住友鴻之舞鑛山への強制連行朝鮮人の労働災害」, 『朝鮮人強制連行論文集成』, 明石書店, 1993

長澤秀, 「戦時下常磐炭田における朝鮮人鑛夫の労働と闘争」, 『朝鮮人強制連行論文集成』, 明石書店, 1993

原朗, 「初期物資動員計劃資料解説」, 『初期物資動員計劃資料』, 原朗·山崎志郎 編, 現代史料出版, 1997

정혜경, 「일제하 재일한국인 민족운동의 연구 - 大阪지방을 중심으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9

広瀬貞三, 「佐渡鉱山と朝鮮人労働者(1939~1945)」, 『新潟国際情報大学情報文化学部紀要』[人文科学編]3, 2000

- 樋口雄一, 「植民地下朝鮮における自然災害と農民移動」, 『法學新報』109-1·2, 2002
- 김광열, 「1940년대 일본의 도일한인 규제정책에 관한 연구」, 『한일민족문제연구』10, 2006
- 안자코 유카, 「조선총독부의 총동원 체제(1937~1945)형성 정책」, 고려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6
- 守屋敬彦, 「朝鮮人強制連行死亡者の遺骨・遺族扶助料」, 『季刊 戦争責任研究』55, 2007
- 鄭惠瓊, 「日帝強占下強制動員被害真相糾明委員會調査を通してみる勞務動員」, 『季刊 戦争責任研究』55, 2007
- 정혜경, 「1944년에 일본본토에서 '전환배치'된 사할린(樺太)의 조선인 광부」, 『한일민족문제연구』14, 2008
- 정혜경, 「조반(常磐)탄전 명부자료를 통해 본 조선인 노무자의 사망자 실태」, 『한국민족운동사연구』59, 2009
- 정혜경, 「전시체제가 일본 본토 조선인 노무자의 '전환배치' - 광산 명부를 중심으로」, 『한일민족문제연구』17, 2009
- 守屋敬彦, 「기업자료 중 각종 명부류의 기술내용에서 알 수 있는 조선인 강제연행자에 관한 사실」,  
『2009 네트워크 관계자 초청 워크숍 자료집』(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2009, 4)
- 정혜경, 「국내 소장 전시체제가 조선인 인적동원 관련 명부자료의 활용방안」, 『일본제국과 조선인 노무자 공출』, 도서출판 선인, 2011
- 守屋敬彦, 「朝鮮人強制勞務動員實態調査報告書」, 強制動員真相究明Net-work, 2012
- 西尾典子, 「資料紹介 - 全國鑛山と大山祇神社」, 『全国鉱山と大山祇神社(第一輯)』(国幣大社大山祇神社々務所, 1940), 九州大学記録資料館産業經濟資料部門, 2013 영인
- 정혜경, 「일제말기 조선인노무자 공탁금 자료, 세 가지」, 『강제동원을 말한다 - 일제강점기 조선인 피징용 노무자 미수금 문제』, 도서출판 선인, 2015
- 정혜경, 「일제말기 홋카이도(北海道) 스미토모(住友) 고노마이(鴻之舞) 광업소 조선인 노무자 노동재해 관련 기록물 연구」, 『한일민족문제연구』30, 2016
- 정혜경, 「일제말기 제주도 군사시설공사에 전환배치된 조선인 광부의 경험 세계 - 한반도 내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인식과 배경을 중심으로」, 『한일민족문제연구』35, 2018
- 허광무, 「일제말기 경찰기록으로 본 일본지역 강제동원 조선인노무자의 관리와 단속 - '도주'노무자 수배가 갖는 역사적 의미를 중심으로」, 『한일민족문제연구』35, 2018
- 신희석, 「자료소개 - 1930년 강제노동협약(ILO 제29호 협약) 강제근로에 관한 협약」, 『한일민족문제연구』36, 2019

## ○ 관련 웹사이트

<http://e-ono.com/coal/>

<https://cafe.naver.com/gangje#>

일본국회도서관 누리집(각의결정) [http://www.ndl.go.jp/horei\\_jp/kakugi/kakugi\\_main.htm](http://www.ndl.go.jp/horei_jp/kakugi/kakugi_main.htm)

<https://www.sado-goldmine.jp/towards/>

## 부록

- 1) 탄광·광산기초현황목록
- 2) 현지조사 자료(국내, 일본)
- 3) 1943년 금광업조정령에 의한 전환배치 노무자 명부
- 4) 사도광산 관련 조선인 명부(조선인 연초배급명부, 엑셀파일과 사본)
- 5) 사도광산 관련 조선인 명부 사본(조선총독부 작성 지정연령자연명부)
- 6) 사도광산 관련 위원회 피해조사 명부

\*부록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서 별도 보관. 관련내용 재단 문의



2019년도 일제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 학술연구용역 보고서

## **일본지역 탄광·광산 조선인 강제동원 실태**

- 미쓰비시(三菱)광업(주) 사도(佐渡)광산을 중심으로 -

### 〈연구참여자〉

책 임 연 구 원 정혜경(ARGO인문사회연구소)

연 구 원 안해룡(아시아프레스)

연 구 보 조 원 이해민(고려대학교)

---

발행일	2019년 12월
발행인	김용덕
발행기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편집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기획홍보국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딩 603호
전화	02-721-1800
팩스	02-721-1882
홈페이지	<a href="http://www.ilje.or.kr">http://www.ilje.or.kr</a>
디자인 및 인쇄	21세기교육사(디자인21 <a href="http://design21st.co.kr/">http://design21st.co.kr/</a> )

---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딩 603호  
전화 02-721-1800 팩스 02-721-1882 홈페이지 [www.ilje.or.kr](http://www.ilje.or.kr)